



6

198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0. 6호

(루계 392)



◆◆◆◆◆◆◆◆◆◆ 차 례 ◆◆◆◆◆◆◆◆◆◆

무장투쟁의 새길을 여시여	4
보천보 그 밤에 타오른 불길이어!	5
태양의 빛발을 따라	6
위대한 령도	7
언제나 내 가슴속에	8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빛나는 구감	10
웅기땅 이 길우에 서면	16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우리 인민의 행복에 대한 송가	17
다듬은 말	20
백두산에서	21
밀림의 밤	22
만 병 초	22
백두산	23
예가 어딘가 정녕 백두고원인가	24
그 모습 수수하고 평범해도	25
빛나는 이름들	26

좋은 나날에 산다	27
언제나 참된 길잡이로	28
옛집 창가에서	29
고마움에 젖어 행복에 젖어	30
다락밭 풍경	31
어부의 상봉 (외 1 편).....	32
해살 퍼지는 도래곶에서	33
일군의 갓춤새	34
숲에 사는 처녀	36
다시 본 모습	45
우리 군당비서	56
조국을 위하여	64
복무 년한	67
단편소설	68
습격의 밤	68
로동계급혁명화의 생동한 전형	75
사랑의 새 전설	77
그날은 오리라	78

무장투쟁의 새길을 여시여

강명복

새날을 부르며
투쟁을 부르며
카툼의 언덕우에 불빛 빛나던
그날이었다

깜깜 어둡기만하던
민족수난의 그 나날
이천만 우리 겨레의 머리우에
무장투쟁의 횃불을 추켜드신
위대한 수령님

손에 무장을 들어야 할
투쟁의 새길을 여시며
혁명의 전위부대
당창건로선을 밝히시었나니

단호하신 결심
빛나는 예지로
조선이 나아가야 할 미래
혁명의 진로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선언이여!

도도한 무장대오 흐름을 그려보시며
그이의 안광에 비끼신것은
해방된 조국의 푸른 하늘
그날에 올리신 위대한 사상은
조선의 결심이며 신념!

길없는 밀림을 헤치시며
끝없는 광야를 걸으시며
거리와 마을에
청년들의 가슴가슴에
진리를 깨우치시며
투쟁의 진리를 다져오신 수령님

불멸의 그 진리

그 신념을 안고
화전의 그 언덕을 넘어
고유수의 그 밤을 거쳐
모든 지구들과 조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모여온
카툼의 회의장

열정에 넘치신
그이의 음성은 뜨겁게 울리시였고
빛나시는 그이의 안광을 우러러
혁명전위의 눈빛들은 빛났어라

무장한 힘으로 원수를 치고
조국을 구원해야 함을 깨우치신
불멸의 그 진리는
위대한 승리의 선포였나니

무장을 높이 들고 나가는 길우에
조선의 새봄은 오리라
수령님의 위대한 선언은
혁명의 퇴성으로 높이 울리였어라

혁명의 세찬 폭풍을 안고
영광의 기치로 휘날렸어라
끝없는 밀림을 헤치며
압록의 푸른 물결을 넘어
해방의 새 력사우에

카툼의 언덕에서 높이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불멸의 선언은
오늘도 투쟁의 횃불이 되어
누리를 밝히며 황황 타오르고있어라

타오르며
타오르며
그 혁명의 진로를 따라
투쟁은 거세찬 격랑이 되어
굽이치고 또 굽이치고있어라!

보천보 그 밤에 타오른 불길이어!

정영호

늪엿늪엿
저물어가는 하늘가를
펼쳐너머 바라보면
소리없는 한숨이
어설픈 안개처럼 피어오르던 나날이었다

한결음을 내짚어도
그것은 땅이 아니었고
머리를 들어도
그것은 하늘이 아니었다
자유를 빼앗기우고
해빛을 잃은 인민들에게는

한줄기 산발을 넘어도
시내물을 건너도
내것이 아닌
빼앗기운 아픔
한줄기 불어내리는 혼풍도
제나라 제것이 아닌
가슴터지는 원한

세상은 너무도 막막해
깃눌린 설음과 원한에 떨며
한줄기 희망조차 바랄곳 없던 캄캄한 밤

아! 보천보
그 밤에 강산을 울린 총소리여!
순간을 천년으로
참을대로 참아오던
망국노의 원한을
그토록 시원히 가셔준
그 밤의 총소리여!

하늘도 땅도
하나의 철창 없는 감옥으로
온 삼천리강토가 신음하던
그 모진 고통의 밑바닥에서
겨레들을
자유와 해방의 상상봉으로 불러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그 밤의 불길이어!

-우리 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기쁨에 울며 웃으며 넘실대는
위대한 수령님 높이 올리신

그 밤의 그 선언은
이 나라의 멍든 가슴들에
채생의 봄우뢰로 울리지 않았던가

하늘가에 춤추는 불길을 우러러
이슬에 젖은 노동자들
김일성장군 만세!
목이 쉬도록 부르고부르던 가슴들에
그 밤엔
가림천의 물소리도
다정한 조국의 숨결로 흘러들었다
목메게 그려오던 씨뿌리는 봄날
내 나라 내 땅 사래긴 이랑이랑이 안겨들었다

갈망의 펼쳐문으로
그토록 불러보고 그려보던
그 모든 꿈이
그 모든 환희로움이
봄물처럼 시원히 안겨들던 그 밤

별바다너머 아득히
해방의 서광 동터오는
내 조국의 하늘가
신념의 해빛을 안고
이 나라 인민들
수령님 계시여
조선의 심장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고
온 세상에 소리쳐 환호성을 올리며
가슴터지도록 안아보던 환희의 바다여

보천보 보천보!
그 밤의 그 불타는 가슴들이
그리도 절절히 열망하던
해빛 밝은 주체의 내 조국땅우에서
부르고 불러볼수록
그 밤의 그 불길은 꺼질줄 모르고
우리들의 가슴에 황황히 타오른다

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강산에
그 밤의 그 불길은 타오르고 타오른다
온 세상을 밝히는 주체의 해불로
천만년 빛내여갈 이 땅의 미래를 당겨오며
목숨은 열백번 버리어도
다시는 조국을 잃을수 없음을
가슴깊이 새겨주며

태양의 빛발을 따라

문재건

다정하신 그윽한 눈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뜨겁게 손잡아 이끌어주신다
불굴의 공산주의투사 김철주동지

언제나 그 모습으로
우리과 함께 걸어가시며 이야기하신다
어제에서 오늘을
오늘에서 래일을

그 모습으로 걸어가셨더라
눈덮인 마을
귀틀집과 오막살이들을 찾아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며

일찌기 가버린 소년시절에
수령님의 높이신 뜻 심장에 새기셨다
만경봉의 설레이는 소나무숲에서
대동강의 푸른 물결
그 맑은 눈동자에 비껴담으시고

기나긴 겨울밤이 지새도록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받으시는
그이의 눈빛은 빛나시였다
혁명의 비옥한 대지를 가꾸어가실
뜨거운 맹세 가슴에 다지시며

청춘을 바쳐서도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으리라
하늘같이 높고
불같이 뜨거운 열망을 안으시고
《새날》신문의 한자한자를
강필로 새겨가신 그 밤들이여

그 어디서나 올렸다
열혈청년공산주의자
김철주동지의 불같은 그 음성은
그 언제나 날아갔다
총검의 숲을 뚫고
공청원들의 심장에 민족의 가슴에

한명의 동지를 위하여
한자루의 총을 위하여
사선을 넘고 헤치시며
건고걸으신 밤길은 그 얼마

몸소 찾아내시고 키우신
공청원들의 어깨에
혁명의 무장을 메워주시며
장군님 계신곳으로 떠나보내시던
그 새벽은 얼마나 환희로웠던가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소년선봉대와 공청, 혁명조직들을
무성한 숲으로 자래우시며
백두산을 우러러 바라보시던 그 눈빛

그 눈빛이였다
량강구의 그 언덕에서
어머님의 최후를 장군님께 아뢰이시던...
대오를 이끄시고 떠나시던
장군님을 손저어 바래우시며
바라보시던 그 눈빛이였다

해방의 새날을 안으시고
장군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조선이 가고 혁명이 나아갈
찬란한 래일을 바라보시던
그 눈빛이였다

원썬들에겐 서리발 증오를 날리시고
인민에겐 한없이 부드러우시던 그 마음
안도의 숲속에 오늘도 어리였고
석인구의 산발들에 새기여졌더라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따라
불같이 타오르는 그 열정, 불굴의 그 신념으로
혁명에 바치신 생애는
빛나는 충성의 귀감이 되시여
오늘도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그이는 우리과 함께 걸어가신다

그 모습
그 눈빛은
안겨준다
혁명가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계속되며
어떻게 영생하는가를
나에게
그대에게
우리모두에게

위대한 령도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를 앞두고-

올라비 린뉴스

시간은 흐른다
쉬임없이 흐른다
시간은 흐른다
끝없이 끝없이 흘러간다

잠시나마 멈춰주지 않으려나? 물어도
시간은 한초도 멈춰주지 않는다
잠깐만 멈추라! 부르짖어도
멈출수 없으며 멈추지도 않을것이라 한다

하거니 영원한 흐름속의 한순간 한순간을
나의 심장의 뜨거움을 담아 빛내려나!
조선이여 그 한순간 한순간이
형제적우애속에 그대를 돕는 시간으로 되게
하련다!

수천년
그대의 력사는 씌여졌더라
인민의 피눈물로
그대의 력사는 씌여졌더라

수난의 세월을 돌이켜보라
눈물도 많았고 불안도 컸더라
고통의 세월 돌이켜보라
갈망도 컸고 투쟁도 많았더라

상처와 아픔은 많았어도
혁명은 투사 영웅들을 낳았더라
그들을 령도하시는 위대한분 계시여
그이의 로고로 하여 해방의 봄 왔더라

그이께선 해방의 봄빛으로 안아주시며
인민을 새 조국 건설에로 부르셨더라
높으신 뜻 지니신 그이께서 민족의 념원 꽃피우
시려
로동당을 창건하시였더라

또다시 일어난 전쟁은
형언할수 없이 가혹한 파괴를 가져왔건만
그이께선 전후복구건설에로 또다시 인민을 불러
주시였나니

이보다 더 탁월한 령도 바랄수 있으랴!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안고
온 세상이 우러르는 위대하신분
그이께서는 갓 독립한 민족의 손에
연필부터 쥐여주시분
읽고 쓰는 법 몸소 가르쳐주시였나니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수령이
인민의 광명한 미래를 생각하여
나라의 첫 의정에 연필문제를 올린적 있었던가
그런분은 이 세상 오직 한분
김일성 주석뿐이시여라

농민에게 기름진 땅을 주시고
로동자에게는 기계와 기술을 주신분
그이의 령도가 있기에
인민이 락원이 꽃피고
그이의 령도가 있기에
조선로동당의 찬란한 업적이 있는것이거니
이 모든 성과는
대작을 그려내는 수단-연필에서 시작된것 아니
더냐!

조선로동당이여
대륙과 대양 넘어 날아온 소식
올해에 그대의 제 6 차대회가 열린다는 소식
나는 크나큰 감동과 환희 속에 들었거니

당이여
조선로동당이여
력사적인 그 대회에 드리는
나의 축하를 전하노라!
나의 심장이 래일 멎는다 해도
맹세하노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대를 위한 글을 쓰고 또 쓸것을!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 무르익듯이
통일의 그날은 기어이 밝아오리라!

(필자는 핀란드작가이며 기자임)

언제나 내 가슴속에

김원중

내가 살던 집은 보천보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뒤에는 압록강여울물이 흐르고 앞으로는 보천보로 뻗은 철길과 포장도로가 나란히 지나갔다. 그래서 여름이면 아침일찌기 일어나 아이들과 손목 잡고 동쪽너머 압록강에 나가 맑은 물에 시원히 세수를 하고 출근시간이 되면 바로 그 길을 따라 활개치며 걸어갔다.

《여보게, 거 직장두 먼데 아예 시내로 이사를 내려오라구.》

간혹 동무들이 이런 말을 하곤했다. 그럴 때면 나는 의례히 웃어보이며

《아무래두 그래야겠어. 출근길이 멀어서...》

하고 우물우물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서둘러 집을 옮기고싶지 않았다.

웅장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 집에 정이 들었고 그곳에서 감회깊은 일들을 겪었다. 고향도 아니고 부모들이 살던 집도 아니었지만 정작 그 집을 떠나는 날 나는 여간 섭섭하지 않았다.

압록강기슭에 진달래꽃이 만발하여 산허리가 마치도 연분홍치마를 두른듯 아름답게 치장을 할 때면 우리 집앞으로는 수많은 답사생들이 지나가고 지나온다.

조국땅 곳곳에서 온 근로자들과 적위대옷을 입은 대학생들, 씩씩한 인민군군인들, 중학생들 지어는 유치원어린이들까지도 봄맞이를 가듯이 보천보로 가다. 산뜻한 버스를 타고 혹은 기차를 타고 혹은 붉은기를 날리며 대오를 지어 노래를 부르면서 보천보로 간다.

반짝거리는 승용차와 버스를 탄 외국인들도 연신 창밖을 내다보며 달려간다. 선망과 존경에 찬 그 낯선 얼굴들은 모두 희고 검고 붉기도 하다. 대양과 대륙을 지나 멀리서도 왔구나...

기쁨과 희망, 긍지와 영광에 가득찬 그 사람들의 끊임없는 흐름은 가슴뜨거운 지향을 느끼게 한다. 보천보, 혁명의 성지를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수록 내 가슴도 한없이 부풀고 마음속에 뿌듯한 긍지와 영예감이 가득차오른다.

그러기에 나는 집을 떠나 판곳에 가서 일을 보다가 옛친구나 친척들을 만났다가 헤어질 때면 의례히 이렇게 말하곤한다.

《우리 집에 한번 꼭 오게. 그럼 나도 시간을 내어 이 보천보로 안내하지.》

《야》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네. 내 아무때건 휴가를 받아서라도 지네 집에 꼭 가겠네.》

그것은 분명 우기 집에 오고싶어서가 아니라 보천보라는 말에 마음이 확 풀려서 하는 소리이다.

보천보는 이렇게 온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달려오는곳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높이 올리신 조국해방의 장엄한 총소리가 삼천리강산을 뒤울리고 어둠던 밤하늘을 태우며 해불이 타올랐던 영광의 땅!

뛰어넘치는 경모의 정을 안고 그 땅을 처음으로 찾아갔던 때가 어제런듯 잊혀지지 않는다. 머나먼 천리방선 조국의 초소에서 군복을 입고 왔던 나는 지금처럼 보천읍으로 먼저 들어가자고 않고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로정대로 답사하느라고 구시물동으로 먼저 찾아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대오를 이끄시고 압록강을 건너오신 구시물동가에는 강대나무로 무은 큰 폐목이 그날의 사연을 이야기하듯 출렁이는 물결에 흔들리며 떠있었다. 곤장덕으로 오르느 길은 얼마나 가파로웠던가. 지금은 대낮에 오르지만 그때는 아직 동트기전의 어두운 시각이었다. 아득한 철벽같은 그 비탈길을 오르자니 목에서는 겨불내가 나고 등에 진 배낭이 천근무게로 매달렸다. 발디딜 자리는 매번 아슬아슬하고 손을 뻗쳐 들어온 나무밑둥은 이마우에 다가서있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아버이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혁명의 수만리 길은 얼마나 간고하였는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이 생각은 내 가슴에 사무쳐 후날에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았다.

6월 4일 사령부가 지리잡았던곳은 곤장덕 산중턱의 나무숲속에 있었다. 거기서 조금 나와 산등성이에 서면 그 높은곳에서는 보천보거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정찰조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망원경으로 지형과 적정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으며 전투계획을 더 빈틈없이 짜시었다.

그리하여 제1습격조는 적의 경찰관주재소를 비롯하여 면사무소와 소방회관을 습격하고 제2습격조는 우편국,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을 습격하며 제1차단조는 경기관총 1정을 가지고 혜산으로

통하는 도로를, 제2차단조는 무산, 대진평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를 각각 차단하고 전투개시와 함께 적의 경비전화선을 끊고 그 방향에서 오는 적의 증원부대를 소멸하기로 되었으며 정치공작조는 시내 여러곳에 배라와 격문을 살포하고 인민들에게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전투임무가 정해졌다.

력사에 길이 빛날 그날밤 10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황철나무아래에서 올리신 신호총 소리가 암흑의 밤을 깨뜨리며 높이 울렸다.

순간 복수탄을 채우고 명령을 기다리던 습격조원들이 맹렬한 사격을 퍼부으며 비호처럼 달려나갔다.

벌등지가 된 경찰관주재소, 불길에 휩싸인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그리고 드세게 얻어맞은 농사시협장...

억눌렀던 인민들이 화불을 들고 달려나왔다. 혁명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보천보의 밤거리는 대낮처럼 밝았고 군중의 환호성은 하늘땅을 진감했다.

《**김일성장군만세!**》

《**조선독립 만세!**》

불타는 보천보거리의 한복판에 높이 서시여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며 조선민족이 나아갈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숭엄한 영상은 지금 불멸의 화폭에 아로새겨져 영원히 대를 이어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분은 백전백승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존재하는 한 우리 나라가 반드시 독립된다는 확고한 신심과 민족적자부심을 굳게 가지고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며 역세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 불길이 온 삼천리강토에 활활 라번지게 합시다.**

동포형제들!

최후승리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의것입니다.

우리모두 광복된 조국땅에서 다시 만나 독립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위하여 총매진합니다.

조선독립 만세!

조선혁명 만세!》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그 연설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에 혁명의 불씨로 안겨졌으며 심장속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멸의 화불로,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헤메이던 그날에는 조국해방의 굳은 신념과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신후에는 행복의 노래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은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

나는 오늘의 행복을 생각할 때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헤쳐오신 간고한 혁명의 로정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으며 또 그때마다 보천보의 하늘을 우러러 본다.

지난해 여름 어느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달려들어오며 소리쳤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오신대요! 보천보, 삼지연으로 가신대요!》

그리고는 다음말을 물을새도 없이 방비를 들고 훌쩍 나가는것이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지나가실 큰 길을 깨끗이 쓸러고 앞을 다투어 달려가는 어린것들... 이튿날 새벽에 나도 아이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나가실 우리 집 앞길, 보천보로 가는 길을 충성의 마음 담아 쓸고 또 쓸었다. 그 어떤 약속도 없이, 말도 없이 조용히 나와서 길을 쓰는 사람들이 새벽어스름속에 줄지어선듯하였다.

량강도 현지도의 길에 간고하던 지난날의 투쟁의 자취를 더듬어가실 어버이수령님의 감회는 얼마나 깊으실것인가! 오로지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만고풍상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시는 이 길우에 인민들은 비단필을 깔아드리고싶은 심정뿐인것이다....

보천보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았던 그 집에 나는 정이 들었고 거기서 사는것을 자랑하기 좋아했다.

그러나 지금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곳에 집을 옮겼다. 앞으로는 혁명의 초소가 부르는곳으로 또다시 옮겨가며 살수 있을것이다. 판곳에 옮겨앉으면 사람들은 곧 새 고장에 정을 붙이고 또 살기도 좋다고 말한다. 내 나라는 어데 가나 살기가 좋다.

그러나 나는 그 집에 살던 때를 잊지 않는다. 보천보로 가는 길은 언제나 내 가슴속에,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굳게 뻗어있다. 그리하여 나는 내 마음한복판에 뻗은 그 신념과 영광의 길, 우리 인민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걷는 충성의 한길을 따라 일생을 빛나게 살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빛나는 구감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 2 부에 대하여-

장 영

력사적인 우리 당 제 6 차대회를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세차게 벌리고있는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는 지금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 2 부가 널리 애독되고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 2 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이시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구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혁명적생애의 한 시기에 이룩된 불멸의 업적을 형상적으로 감명깊게 그린 혁명소설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혁명적생애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본보기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없이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의 권위를 절대화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으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시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시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최상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실행해나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는것은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작가동맹 중앙 위원회 4.15 문학창작단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을 소설화하는 사업을 벌리게 된것은 주체의 혁명문학건설에서 참으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생애와 혁명업적을 전면적으로 그리는 장편소설이 창작되게 됨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최고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우리 문학의 시대적 요구가 더욱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으며 우리 근로자들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참다운 구감이신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기 위한 귀중한 교과서를 가지게 되였다.

당의 지도밑에 창작된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 2 부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적생애가운데서 1935년 초봄부터 1936년 여름까지의 역사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이 시기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요영구회의에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이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가고 반《민생단》투쟁의 좌경적후과가 가서 지면서 광범한 반일혁명력량이 굳게 결속되던 혁명적양양기였다.

장편소설은 이러한 역사적시기 김정숙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 혁명투사로서의 위대한 풍모를 어떻게 완벽하게 갖추시게 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과 녀성해방투쟁의 진두에 나서시게 되는가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은 이 형상을 통하여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사람은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며 혁명전사들에게 있어서 장군님께 대한 충실성은 어떻게 표현되여야 하는가 하는 사상주제적과제를 훌륭히 해결하고있다.

이것은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생애가운데서 1932년 초봄부터 1933년 가을까지의 역사적시기 청소년시절을 보내시면서 혁명적세계관을 어떻게 확립하시게 되고 주체형의 혁명가로 어떻게 자라나시게 되는가를 보여준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 1 부가 사람은 무엇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 다음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하기 위하여 태어나는것이라는 의의깊은 해답을 준 이후 그러면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해답을 준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 2 부는 제 1 부가 제기한 사상주제적과제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새롭게 해명함으로써 제 1 부와 제 2 부 사이의 주제적연계를 보장하면서도 제 2 부의 독자적인 사상주제적과제를 밝혀내고있다.

이 장편소설의 제 2 부가 제기한 사상주제적과제, 다시말하여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의 사상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문제에 사상에술적해답을 주기 위하여 소설은 전 13 장을 세계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장편소설의 첫째부분(제 1 장 ~ 제 6 장)은 1935년 초부터 이해 늦가을까지의 시기를 반영한것으로서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첫과업을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 술기막골유격근거지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내용이 형상되고있다.

북만원정에서 갓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1935년 초 삼도만유격구의 능지영에 들리셨을 때 김정숙동지의 투쟁업적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에게 유격근거지해산방침에 따라 술기막골로 이동하는 상촌근거지인민들을 무사히 데려갈것과 녀성들도 무장투쟁에 떨쳐나서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김정숙동지께서는 술기막골에 이르시어 근거지의 어려운 식량난을 타개하는 일과 녀성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 사업, 대렬안에 기여든 반혁명잔당들을 적발 숙청하고 왜놈들의 계속되는 《토벌》로부터 술기막골근거지를 방어하는 전투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장군님의 사상의 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의 끝없는 충성심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의 둘째부분(제 7 장~제 9 장)은 술기막골 근거지를 떠나 내두산계선에 이르신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에 대한 형상에 바쳐지고있다. 1935년 겨울 사령부로부터 명령을 받고 중대와 함께 내두산의 꼭골에 이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고장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며 적들과의 치열한 격전속에서 녀성무장대오를 한사람한사람 꾸려나가신다. 내두산계선에서의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에 대한 묘사는 능숙한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을 벌려나가는 그이께서 주체형의 혁명투사로서의 풍모를 어떻게 완벽하게 갖추어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소설의 셋째부분(제 10 장~제 13 장)은 1936년 봄 마안산계선에 이르신 김정숙동지께서 장군님께 녀성무장대오를 무으신데 대한 충성의 보고를 올리시는 내용과 력사적인 동강회의에 참가하시고

1936년 8월의 무송현성진공전투에서 사령관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시는 내용이 형상되고있다.

이 장면들은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신 혁명전사는 사령관동지를 어떻게 받들어드리고 장군님을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감동적인 화폭으로 된다.

장편소설은 이처럼 세부분의 구성을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혁명활동을 다면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그이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신했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견결한 공산주의자들이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은 김정숙동지께서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불굴의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실수있게 한 사상정신적기초였으며 그 원천이였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 2 부는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김정숙동지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이 우선 장군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것을 가장 커다란 영광으로 여기시며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의 사상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시는데서 표현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행복은 김정숙동지의 성격적풍모에서 가장 주도적인 사상감정으로 되고있다.

자나깨나 흠모하여마지않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삼도만근거지의 능지영에서 처음으로 만나뵈고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는 순간 김정숙동지의 감격과 행복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큰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반 《민생단》투쟁의 반혁명적본질을 날날이 규탄하시면서 요영구회의에서 채택된 근거지해산방침의 의의를 해설해주실 때 그리고 그동안 반 《민생단》투쟁의 좌경적오류를 간파하고 시련을 겪고있는 혁명동지들을 적극 돌봐주며 아동단사업을 추켜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실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려는 다함없는 충성심을 심장깊이 간직하시였다.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긍지,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으시고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수행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우는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시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것이였다.

하기에 장군님께서 새로운 임무를 주실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다만 《장군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의대답을 올릴뿐 그 이외의 다른 말을 더 찾지 못하였다. 그만큼 그이께서는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시였으며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속 깊이 간직하여야 할 생활의 절대적인 신조로 받아들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마안산에서 두번째로 다시 만

나뵈웁게 되었을 때의 심정에 대한 묘사는 김정숙동지께서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을 얼마나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느끼시는가를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저 자꾸 목이 메여와서 얼굴을 바로 들고 장군님을 우러러뵈올수도 없으시였다. 그 험난한 싸움속에서도 빛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꿈을 주셨던 장군님! 그 장군님을 또 이렇게 지척에서 만나뵈옵지 않는가! 곁에 계시지 않았으나 늘 곁에 계시는것 같이 느껴졌던 그리운 장군님을 오늘은 이처럼 환히 밝은 날에 꿈이 아니게 곁에 모시지 않는가!》

이 심리묘사는 진정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긍지와 영예를 온 가슴으로 느끼시는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심정에 대한 진실한 형상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는것을 그토록 크나큰 행복으로 여기시기에 그이께서는 사령부의 작식대공작임무를 맡으시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임무수행에서 최대의 정성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령도따라 싸워나가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가르치심을 확고한 신념으로, 생활의 철칙으로 삼으시고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시였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으로 무장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시는 김정숙동지께서 동강의 밀영에서 《조국광복회 10 대강령》을 완전히 통달하시고 그 매 조항에 깃들여있는 사상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시는가 하는 성실한 학습태도를 잘 보여 주고있다.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가르치심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삼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장군님의 사상의도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도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술기막몰에 계실 때 음전이와 분임이를 살뜰히 돌봐주시는것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는 리억겸이가 그이께 그들과 가까이 하는것은 우경이라고 하면서 녀성들을 가지고 무슨 혁명을 하겠다고 그러는가고 비난하자 그이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자에게 면박을 주시고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건결히 옹호하신다.

리억겸이와의 대결이 심각화되어 그자가 김정숙동지로 하여금 공청사업과 작식대일을 못하도록 협박할 때에도 그이께서는 당당하게 《...누가 나한테 일을 그만두라 어찌라 해요. 설사 그만 두라고 했대도 나는 내 신념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예요.》라고 하시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억척같이 싸워나가신다.

그이께서는 술기막몰에 떠도는 사소한 류언비어도 결코 소홀히 들어넘기지 않으시고 그 출처를 찾아내시며 리억겸의 반혁명책책동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시고 그놈의 정체를 밝혀나가신다.

김정숙동지의 주도세밀한 조치에 의하여 마침내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공작원과의 연락이 이루어지고 반혁명잔당들이 적발숙청되며 구혁명정부와 술기막몰근거지가 위기로부터 구원된다.

바로 이 시각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우주의 영원한 광원인 태양을 떠나서 빛나는 별은 상상할수 없듯이 장군님의 찬란한 해발을 떠나서 혁명전사의 참된 삶을 생각할수 없다는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며 장군님을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보람을 가슴벅차게 느끼시는것이였다.

이것은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가르치심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시는 그이의 건결한 혁명정신에 대한 생동한 화폭으로 된다.

소설은 능지영에서의 반《민생단》투쟁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지켜 얼마나 건결히 싸우셨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민생단》협의자를 동정하면 《민생단》련루자로 물리워 목숨을 잃을수도 있다는것을 잘 아시면서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건결히 싸우시며 《민생단》협의자들을 혁명동지로 대하고 그들을 적극 도와나서시였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2부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를 건결히 옹호하시는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원칙성을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감명깊게 그려내면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이의 충실성은 또한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정확히 집행하시는데서 표현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도만유격구의 능지영에서 김정숙동지께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꼭 녀성혁명의 앞장에 서야 하겠습니까. 녀성들이라고 총 한자루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총을 못들겠습니까? 총을 들고 싸우게도 만들고 조직을 꾸려가지고 적후에서 싸우게도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녀성이 다 들고일어나 싸움에 참가한다면 우리의 힘이 얼마나 커지고 강해지겠습니까? 꼭 이 문제를 명심해야겠습니까.》

장군님께서 김정숙동지에게 상촌근거지에 내려가 이동하는 인민들이 고통이 없이 떠나가도록 조직사업과 보위사업을 잘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는 아이들 일에 힘은 썼지만 이제부터는 녀성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불행한

너성들이 다 일어나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나가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실 때 그이께서는 장군님의 그 크나큰 믿음이 너무나도 고마와 가슴속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기 이전에 벌써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부모 잃은 아이들의 누나가 되어 그들에게 모든 정력과 심혈을 쏟아부으심으로써 사람들의 가슴을 끝없이 격동시켜 온 동만땅에 알려 졌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안은 과업을 실천한다는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일이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기쁠때나 피로울 때나 항상 장군님께서 주신 말씀의 참 뜻을 되새기시면서 그것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일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해산되는 상촌근거지의 인민들을 거느리시고 술기막말로 오시는 도중 김정숙동지에게는 어려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시었다. 개안촌의 한 아낙네는 속이 치밀어 제대로 걸을수 없었고 사람들은 정든 상촌근거지를 떠나기 아쉬워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묘사한 소설은 김정숙동지를 상촌으로 보내시면서 상촌근거지문제는 마음을 놓으시겠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그 믿음을 되새기시는 그이께서 상촌사람들에게 유적근거지해산방침의 의의를 해설해주시고 그들이 술기막말근거지로 별고없이 이동해가도록 세심히 보살피시는 내용을 생동하게 그려보이고있다.

술기막말근거지에 이르신 김정숙동지앞에는 두가지의 큰 혁명임무가 나서고있었다. 그것은 장군님의 말씀대로 녀성무장대오를 꾸리는 사업과 척후에 나가 싸울수 있는 골결한 혁명가를 키워내는 일이었다. 이 임무는 불요불굴의 투지와 완강성을 발휘한것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업이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지니시고 높은 책임성과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신다.

그이께서는 우선 공청과중대를 조직하여 발갈이를 내미시는 한편 대걸이네 식량공작대가 구해온 씨앗을 모두 땅에 심도록 대중을 불러일으켜 어려운 식량난을 타개하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혁명화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시고 놈들에 의하여 희생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맥을 놓고있는 자매 국금이와 영금이를 따듯이 손잡아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가 하면 남편과 시동생이 《민생단》 혐의로 희생된 음전이를 따듯이 보살펴주시며 일시적인 난관앞에 주저앉아 동요하는 분임이를 엄격히 비판도 하시면서 그가 혁명적계급의식을 높이도록 도와주신다.

때로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적들이 옥실거리는 하동거리에 말파리를 몰고 들어가시여 적

들의 감시속에서 금실을 빼내오시는 대담한 전투도 벌리시며 반일애국사상은 강하지만 봉건사상에 물젖어 녀성들의 무장진출을 달가와하지 않는 내두산 곰골의 정대한일가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어려운 사업도 능숙하게 벌리신다.

그렇듯 심혈을 기울여 한사람한사람의 녀성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신 그이께서 마침내 음전이를 적후공작원으로 내보내시고 녀성무장대원들을 마안산계선으로 진출시키실 때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다소나마 실천했다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느끼시는것이였다.

소설은 마안산이 이르신 김정숙동지께서 녀성무장대오를 정렬시켜놓고 장군님께 보고올리시는 순간 그이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있다.

《...어쩐지 자꾸 눈물이 글썽거리지기도 하고 가슴이 쿵덕거리며 뛰기도 하시었다. 삼도만에서 그렇게도 간곡히 일러주시던 말씀을 이만치라도 실천에 옮겨 크지 않은 대렬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와서 장군님앞에 떨지어세우고 인사를 올리게 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술기막말에서, 내두산에서, 하동거리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며 과연 그렇게 해서 녀성무장대를 꾸려낼수 있을가고 가슴한귀통이엔 실망의 검은 구름조차 끼여들기도 하면서 꾸려낸, 아직은 그 짙에 불쾌한 조선 녀성의 앞장에 선 무장대! 그래도 장군님께서 이 적은 대렬을 보시고 그렇게도 대견해하시고 칭찬해주시니 얼마나 뛰던 보람, 애쓴 보람이 있는가!》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실천하고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것은 김정숙동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며 행복이시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실천하는 길에서는 그 어떤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그것을 이악하게 뚫고나가시었고 일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소설은 혈육이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던 사랑하는 오빠가 희생되고 조카인 인남이마저 행방을 알수 없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에도 그 슬픔을 누르시면서 며칠사이에 수백벌의 군복을 만들데 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시는 장면도 감명깊게 그려보이고있다.

이렇듯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의 명령과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시고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시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 2 부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충실성은 위대한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기시고 사령관동지의 신변을 목숨으로 사수하는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삼으시는데서

표현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심중을 헤아리시고 그의 심려를 덜어드리시기 위하여 애쓰시는것은 김정숙동지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의 발현이었다.

사랑하는 오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말할수 없는 피로움을 겪으시는 그 시각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정숙동무는 더구나 녀성들의 앞장에 섰으니 만치 슬픔을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자신께서 피로와하시면 장군님께서 얼마나 가슴아파하실가고 생각하시며 치밀어오르는 슬픔을 의지의 힘으로 누르신다.

자신을 생각하시기보다 먼저 장군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토록 지극하셨기에 그이께서는 삼도만에서 장군님으로부터 좌경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실 때에도 장군님의 사상을 좀더 미리 알았더라도 《장군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릴 일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피로와하시며 술기막 끝에서 갈라져 쏙바치로 갔던 아동단원들을 마안산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도 그 아이들을 홀어지지 않게 잘 거두었더라면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릴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눈물짓는 것이였다.

순간을 살으셔도 오직 장군님을 위하여 사시고 장군님을 위하여서는 한생도 서슴없이 바치실 각오가 되어있는 김정숙동지의 높은 정신세계는 특히 무송현성진공전투가 한창 벌어지던 그때 사령부의 안전을 자신의 몸으로 보위해드리신 감동적인 형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그려지고있다.

무송현성진공전투는 반일부대들의 퇴각으로 말미암아 예상했던것보다 치열해졌다. 이렇게 되자 장군님께서서는 녀대원들에게 동산포대쪽 잘루목으로 가서 대원들의 아침식사준비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전부대에는 적들을 유인하기 위한 철수명령을 내리시였다.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퇴각하는줄로만 알고 성박으로 밀려나왔다. 적을 끌어내다가 죽치려는 유인전술에 걸려든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 잘루목쪽에 나왔던 적들이 사령부에 화력을 집중할 위험이 조성되였다. 이때 정황을 민감하게 판단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적들을 잘루목 저편으로 유도하시어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시였다.

사령부의 안전을 목숨으로 보위하시는 이 고상한 희생정신과 강의한 의지는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그이의 숭고한 성격적품모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핵을 이루고있다.

장편소설은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충실성이 어떻게 표현되고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이의 본질적인 성격적특징을 진실하

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 2 부는 또한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공산주의적 품모와 고매한 덕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만이 지닐수 있는 고결한 품성,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계시였다.

장편소설은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이 고결한 품모를 옹계 형상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형의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품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따라배울수 있게 하여준다.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것은 그이께서 일찌기 어린시절부터 인민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키우신 고결한 성품이시였다.

소설은 김정숙동지의 이러한 성품을 근거지안의 어린이들을 아동단 조직에 묶어세워 혁명의 대를 이어갈 후비대로 곳곳이 키우시는 이야기와 식량이 떨어져 굶주리고있는 술기막골의 집집들에 도라지와 더덕을 캐다가 나누어주시는 세부묘사 그리고 국금이와 영금이를 살뜰히 보살펴주시고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아 쓰러진 음전이에게 재생의 빛을 주시는 이야기들에서 잘 보여주고있다.

또한 조국을 독립해보자고 풍상고초를 겪으며 싸우다가 모두 망하고 흩어지는바람에 피눈물을 뿌리며 내두산의 오지골골에 들어와 살던 독립군 로인들과 그 자손들에게 기울으신 사랑도 뜨겁게 묘사되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봉건분리에 억눌린 녀성들을 부녀회조직에 묶어세워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며 자신의 실천적모범과 사랑으로 골골사람들을 혁명화해나가신다.

내두산으로 밀려드는 왜놈 호리구시 《토벌대》를 소탕하기 위한 내두산방어전투가 련일 계속되던 그 간고한 나날, 눈덮인 고지에 었디여 오래동안 총을 잡고 싸우는 로인들을 생각하신 김정숙동지께서 몇길이나 되는 눈속에 빠지면서 더운물을 고지에 날라 사람들의 몸을 덮혀주시는 장면은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여준다.

그리고 능지영으로 왜놈 《토벌대》가 밀려들었을 때 펄펄 끓는 죽가마를 머리에 이고 산꼭대기까지 뛰어올라가 《민생단》협의자들에게 그 더운죽을 나누어주시는 숭엄한 모습은 또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러면서도 그이께서는 언제나 겸손하시고 소박하시였으며 웃어른들앞에서는 레절이 밝은 고매한 인품을 보이시였다.

하기에 한때 독립군이었던 내두산 골골의 리수정대환로인이 김정숙동지의 고매한 품모에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감탄한다.

《저 흰 눈결같이 깨끗하고 준수한 얼굴에 만사를 올리는 호소가 넘쳐나는걸 내 인제야 본단 말인가! 어느 하늘아래 저런 딸이 또 있을까...》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근거지인민들과 유격대원들에게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간직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 충성의 해발이시였으며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주신 향도의 기발이시였다.

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고매한 품모와 헌신성에 의하여 마침내 각계각층군중이 장군님을 높이 모신 반일혁명대오에 굳게 뭉쳐지게 됨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각이한 생활처지에서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걷고있던 수많은 녀성들과 인민들이 혁명적계급의식을 높이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혁명대오에 그끈하게 들어서는 그 과정의 갈피마다에는 참으로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이 뜨겁게 어려있다.

이와 함께 장편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그토록 장군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지니시고 혁명의 한길을 보람있게 걸어나가실 수 있는것도, 그이께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실수 있는것도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해나가시면서 그이를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결과이라는것을 설득력있게 형상하고있다.

이 작품이 취급한 역사적시기 장군님께서는 김정숙동지를 두번에 걸쳐 만나주신다. 그때마다 장군님께서는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며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친히 대책까지 세워주신다.

삼도만거지에서 김정숙동지를 만나셨을 때 녀성혁명화의 앞장에 서라고 하시면서 녀성무장대오를 꾸리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장군님의 그 믿음, 그이를 술기막말로 보내신 이후에는 그곳 형편이 어떤가고 걱정하시면서 공작원 강호로 하여금 능지영에서의 공작임무를 끝내고는 곧 술기막말로 가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는 그 세심한 배려, 마안산에서 그이를 두번째로 만나셨을 때에는 오빠가 희생된 소식을 어떻게 전하겠는가고 심려하시면서 될수 있는대로 그 슬픔을 덜어주시려고 마음을 쓰시는 그 사랑, 장군님의 그런 품이 있기에 그이께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투사로,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나실수 있으시였다.

소설은 바로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그토록 장군님께 바치는 충성의 한마음을 보석처럼 빛내이시고 그 충성의 해발아래 만사람들이 충성의 한길

을 걸어나가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처럼 따사로운 사랑의 품이 있기때문이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 2 부는 또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형상하는 작품창작에서 역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을 옹계 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에 리론과 방침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이 장편소설은 1935년 봄부터 1936년 여름까지의 역사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이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사건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사건 그자체로서 보여준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혁명적생애의 한 시기를 예술적으로 전형화하기 위한 각도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설은 술기막근거지방어전투와 내두산방어전투, 무송현성진공전투, 역사적인 동강회의를 묘사함에 있어서 그 전투들과 사건의 전과정을 전반적으로 그려나간것이 아니라 김정숙동지께서 장군님으로부터 녀성혁명화의 앞장에 설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고 그 과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충실성을 형상하기 위한 시점에서 선택묘사하였다.

따라서 소설에 묘사된 모든 역사적사건들은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보여주고 작품의 사상주체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데 적절히 이바지하고 있다.

동시에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내용은 보여줌에 있어서도 그것을 전기식으로 서술한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소설적특성의 요구에 맞게 이 시기에 발휘하신 그이의 충성심을 형상하기 위한 견지에서 그리고있다.

이처럼 소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역사적사건들에 대한 진실한 묘사를 보장하면서도 그것을 작품의 형상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도에서 보여주어 역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을 옹계 결합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장편소설이 역사적사실에 대한 예술적전형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하게 해결한 다른 하나의 성과는 역사적사건과 밀접히 결합된 등장인물들을 모두 그 운명발전선의 견지에서 묘사한것이다.

이 작품의 그 어느 인물을 막론하고 그 성격이 발전과정에 놓여있지 않는 인물이란 하나도 없다. 한때 혁명의 리익보다 개인의 감정을 더 앞세우면서 혁명대렬에서 리탈했던 금실이라도 희생된 줄만 알았던 남편 회심을 만난 자리에서 《저도 인제 혁명이라는걸 고쳐 인식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걸 고쳐 깨닫고있어요.》라고 자신의 성장경로를 돌이켜본다.

술기막골의 구정부회장 양기훈이와 식량부장 한기천이도 반혁명분자 리억검과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옳고 그른것을 어떻게 갈라보고 장군님의

뜻대로 혁명을 이끌어나가자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배워 장군님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참다운 혁명투사로 자라나게 된다.

그러면서도 소설은 인간의 운명을 평면적으로 그려나간것이 아니라 극적사건속에서 굴절있게 묘사함으로써 성격발전의 변증법적과정을 흥미있게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장편소설은 작품의 사건묘사와 등장 인물들의 심리묘사를 유기적으로 밀착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정서적흐름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한 성과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 2 부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장군님께 어떻게 충성다하시였는가를 형상적화폭으로 감명깊

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어떻게 표현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있다.

따라서 이 장편소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고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귀중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구감이신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활동의 한시기를 형상한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 2 부는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혁명소설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의 귀중한 교과서로 될것이다.

웅기땅 이 길우에 서면

조성관

물우에는 오리때 헤엄치고
물밑에는 양어때 왁실대는 번포늘
산허리 휘감아돌며 양떼의 무리 흐르고
알벌엔 한가로이 풀을 뜯는 젖소의 떼무리

그 어디메냐
와새풀 구슬피 설레이던 거친 벌은
어디메냐 그 어디메냐
우리 수령님 헤쳐가신 진펄길은

사랑의 자욱자욱 새겨안고
굴포벌 아득히 이삭 설레이는
웅기땅 이 길우에 서면
그날의 진펄길은 간데 없어도
웁기는 걸음걸음
눈앞이 흐려와 발걸음 무거워지는 길...

두만강 여울물소리 기슭을 치는
길이 막혀 길이 끝나는곳
외진 막바지에 사는 자식들이기에
더더욱 그냥은 돌아설수 없으신 어버이마음
차가 빠지면 걸어서라도
인민들이 사는곳이라면 다 가보아야 한다고
이른봄 복변의 진눈까비 헤쳐가신 길

부는 바람 모래산을 옮겨가고
진펄땅 피약밭에
피날알도 제대로 영글지 못하던

세상 궁벽한 고장을
온 나라와 한눈이에 올려세워주시고서도
선참으로 공산주의어로 이끌어주시려
길없는 길을 헤쳐가신 사랑의 자욱자욱

그 자욱자욱 따라
황금과도 일렁이는 포전길이
공장의 구내길에 잇닿아지고
포구에 돌아드는 만선의 기쁨도
하나의 대가정에 합쳐지는 종합농장...

아, 꿈꾸며 바라던 조국의 리상이
오늘에 벌써 여기서 숨쉬거니,
인민들을 행복의 넓은 길우에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 수령님 그 얼마나 험한 길을 헤쳐오셨던가
이 땅우에 공산주의지름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 수령님 만경대의 사립문을 나서시여
그 얼마나 먼먼 수십만리길을 걸으시여
오늘에로 오셨던가.

천지개벽된 강토우에
다시 한번 전변할
공산주의미래의 첫 모습을 눈앞에 바라보는
웅기땅 이 길우에 서면
그날의 진펄길은 간데 없어도
웁기는 걸음걸음
조국의 먼 앞길이
드넓은 큰길로 가까이 다가와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우리인민의 행복에 대한 송가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에 대하여-

최길상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락원에서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온갖 행복을 마
음껏 누리며 참다운 창조적생활을 해나가고있다.
세기를 두고 착취와 빈궁에 시달려오던 우리
인민은 민족의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
은 해발아래 압박과 착취라는 말을 영원히 모르
게 되었으며 가장 값있는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생활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희망과 랑만
에 넘쳐 보다 휘황하고 행복한 공산주의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오늘의 이 행복, 이 기쁨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운 품이 있
음으로 하여 이루어 질수 있는것이다.
그러기에 생활이 있고 행복이 넘쳐나는곳 그
어디서나 오늘의 행복을 노래할 때 아버지수령님
의 사랑을 노래하는것이며 은혜로운 땅에 대한
감사의 정을 노래하는것이다.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우리 인민의 이
와같은 사상감정을 그대로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가사는 이렇게 첫구절부터 한점의 티도 없이
맑은 행복의 감정을 자연스럽고도 절절하게 터쳐
놓으면서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행
복하게 사는 우리 조국,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
렬한 사랑과 긍지를 가슴뿌듯이 안겨주고있다. 그
러면 이 노래가 누구에게나 것처럼 쉽게 리해되
고 친숙하여져 모든 사람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
한 감사의 정을 강렬하게 불러일으켜주는 그 비
결은 어디에 있는가.

× ×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은혜
로운 당의 품속에서 모두가 친형제와 같이 끝없
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세상에 부럼없이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생활적으로 진
실하게 노래한 훌륭한 가사이다.

가사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시대 인민들

의 신념과 의지, 념원을 비롯한 주도적인 감정이
풍만한 서정속에 깊이있게 일반화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과 인테리들은 사회경
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
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
하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다같이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로 우러러모시고 영광
스러운 당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하나의 혈연
적인 뉴대로 련결되어있는 화목한 대가정속에 살
고 있다.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가장 부럼없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친아버지로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며
은혜로운 당의 품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
활을 마음껏 누리고있기때문이다.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우리모두를 자애
로운 아버지사랑의 품속에 안아주시고 이끌어주
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의 품에 대한
우리 인민의 감사의 정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이러한 사상감정은 이 노래의 사상적핵
이라고 말할수 있는 후렴구에서 절절하게 표현되
고있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가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가사에서 노래하고있는바와 같이 참으로 위대
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을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
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으며 그것을 영원히 빛
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신다.

지난날 억눌리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의하여 오늘은 자기 운명을 자
기손에 틀어쥐고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
로, 공산주의미래에로 줄기차게 달려가는 가장 긍
지높고 자랑스러운 혁명적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당의 품속에
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는것보
다 더 높은 영예, 더 큰 자랑과 행복은 없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모든 영예와 행복, 자랑과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으며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찬란한 앞날이 있고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다.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 수령님 계시어 오늘 우리 나라는 온 세상 사람들이 경탄하여 부르는 《20 세기 기적의 나라》로 되었으며 누구나가 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오직 기쁨과 행복에 넘쳐 생활하며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 교육과 과학, 문학과 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주체조선의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 수 있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은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한 불패의 통일단결이 확고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아버지수령님과 어머니당에 대한 우리 인민이 이러한 신념과 의지, 념원을 생활 그대로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영광스러운 당의 품을 《우리의 집》으로 행복의 요람으로 노래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하나의 화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를 《모두다 친형제》로 표현하였다.

여기에 바로 이 가사의 새로운 시적발견이 있으며 당과 수령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노래할 수 있게 한 시형상의 비결이 있다.

가사 절에서 노래하고있는바와 같이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이 그토록 즐거운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민을 압박과 착취의 멍에서 영원히 해방하여주시고 자주적인간의 참다운 생활을 마련해주시고 가슴벅찬 행복을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태양 **김일성** 동지를 아버지로 높이 모신 끝없는 자부심과 영예가 마음속깊이 간직되어있기때문이다.

가사는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속에서 사는 서정적주인공의 무한한 행복감을 그 어떤 직선적인 표현이나 설명으로 《해설》 해주지 않고있으며 서정적 주인공의 느낌을 그대로 터쳐주고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이것은 행복과 기쁨을 한껏 심장깊이 받아안고 있는 서정적주인공의 뜨거운 마음을 정서적으로

표현한것이다.

이렇게 첫시작부터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정서가 흘러넘치게 한 다음 가사는 당과 수령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심정을 더욱 열렬하고 깊이있게 추구해들어가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모두가 세상에 부럼없는 인민으로 되고있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서정적으로 힘있게 확증해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자애로운 아버지로 높이 모셨기때문이며 당의 품을 은혜로운 집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세상에 부럼없는것이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가사의 사상정서적주장을 대변하고있는 이 시행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감정이 집약되어 표현되고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삶의 행복과 투쟁의 보람에 대하여, 긍지에 대하여 말할 때 《부럼없다》는 표현을 쓴다.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이 사는것보다 오늘의 현실에 대한 감정을 더 잘 표현할수 있는것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가사는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다고 자부하는 가장 열렬한 감정이 어떤것인가를 2 절과 3 절에서 더 폭넓고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녀를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렵 몰라라

우리 인민이 세상이 부럼없는 인민으로 되고있는것은 다만 행복한 감정만이 차넘치기때문만이 아니다.

가사 2 절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는 인민으로 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며 그 어떤 시련도 풍랑도 겁내하지 않는 가장 위력한 인민이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당의 품속에서 가장 용감하고 슬기로운 인민으로, 그 어떤 두렵도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세상에 부럼없다는 긍지높은 우리 인민의 이 신념속에는 바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는 영예와 자랑이 맥맥히 흐르는것이다.

가사는 아버지수령님과 당의 은덕에 대하여,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하여 노래하면서도 그 어떤 직선적이고 개념화된 표현을 쓰지 않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사를 통하여 위대

한 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의 품에 대하여 뜨겁게 느끼고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우리 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더 깊이 간직하게 되는것은 가사가 높은 시형상으로 우리들을 감동시키기때문이다.

가사가 시로 되어야 한다는것은 주체적문예리론이 독창적으로 밝혀준 사상이다. 가사를 시화한다는것은 세련된 시형상속에 뜨거운 열정과 정서가 풍부하게 흘러넘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는 잘된 가사를 두고 말할 때 이 가사에는 시가 있다고 표현한다.

가사에 시가 있다고 하는것은 가치있는 사상적 내용이 뜨거운 정서를 통해서 흘러나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킨다는것을 말한다.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세상에 부럼을 모르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정서로 풍부하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 절만 보아도 우리 생활에 대한 열정과 정서가 얼마나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는가.

동무들 다같이 노래를 부르자
손풍금소리 맞추어
천리마 나래퍼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여기에서는 1 절과 2 절에서 양양된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을 폭넓게 일반화하면서 세상에 부럼없는 우리의 벽천 현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레찬, 오늘의 보람찬 현실을 소리높이 자랑하려는 높은 긍지가 정서적으로 노래되고있다.

1 절에서 끝없는 희망을 상징하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두고 한없이 즐거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 손풍금소리 높이 울리며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조국을 노래한 서정적주인공은 2 절에서 다시한번 세상에 부럼없는 신념을 서정적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3 절에서는 우리의 생활현실로 돌아와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 위훈으로 수놓아지는 조국을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1 절에서 서정의 말단을 이룬 손풍금소리를 2 절에서 한번 굴절시켰다가 다시 3 절에서 손풍금소리로 돌아와 감정을 발전시킴으로써 가사의 정서를 내적으로 통일시켜 일관하고 뜨겁게 흐르도록 하고있다. 이것은 가사의 시형상을 높이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가사를 시로 되게 하는데서 이러한 정서의 통일을 보장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창작실천적인 문제이다.

가사는 절로 되어있기때문에 매 절마다 자기의 완결된 사상감정을 담고있어야 할뿐아니라 정서

적 고조점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가사 전편을 놓고 보면 한편의 서정시로서의 높은 시형상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가사의 이러한 형상적특성은 매 절들의 사상감정을 어떻게 절로서의 품격을 갖추도록 완결하여 주면서도 절과 절들의 사상정서적인 발전과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어줄것인가 하는 문제를 매우 어려운 창작실천적인 문제로 제기한다.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가사의 이러한 형상적특성을 잘 살림으로써 매 절마다 완결된 사상정서적내용을 담고있으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은혜로운 당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부럼없는 사상감정을 점차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었다.

이리하여 가사는 절가의 특성도 살아났고 하나의 완결된 시형상으로 되었다.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주도적인 감정을 잘 노래할수 있는것은 가사의 정서가 밝고 명랑하며 열렬한것으로 일관되어있는데도 기인한다.

이 가사의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세계는 희망과 포부, 긍지에 가득차있으며 따라서 가사의 전반 양상은 밝고 명랑한 정서와 생기와 활력으로 충만되어있다.

이것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활정서에 맞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밑에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더없는 영예와 보람으로 하여 언제나 신심에 가득차있으며 희망과 포부로 가슴 설레이고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속 어느곳에도 그늘진 구석이란 없으며 누구나가 다 밝은 마음으로 혁명파업수행에 몸바쳐나서고있다.

실로 오늘 우리 인민들처럼 리없이 맑고 깨끗한 심정으로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일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에 충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 념원은 언제나 순결하고 높고 열렬하다.

이러한 정서가 뜨겁게 흐르고있기때문에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과 당에 대한 신뢰의 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할수 있었다.

가사에서 아버지수령님과 당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무겁고 침울하게 형상한다면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다하는 우리 인민의 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할수 없을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가사의 정서는 많은 시사를 주고있다.

이 가사의 서정적주인공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는 행복한 새 세대이다. 그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을 친아버지

로, 영광스러운 당의 꿈을 행복의 요람으로 간직하고 있는것이 생활의 신조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은 언제나 한없는 고마움과 충성으로 차넘치고있으며 밝고 희망차다.

서정적주인공의 이러한 사상감정이 바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정서의 특성이다.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이와 같이 정서를 시대감정에 맞게 밝은 양상으로 일관시켰을뿐 아니라 시어를 잘 골라쓰는데서도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이 가사의 표현은 간결하면서도 함축되어있고 비유가 적중하여 사상정서적내용을 한층 돋구어 준다.

특히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노래한것은 가사의 사상정서적 주장을 가장 명백하고 형상적으로 표현한것이다.

또한 우리 인민모두를 친형제로 비유하여 표현한것도 우리 시대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함축하여 가장 적중하게 나타낸것이다.

이 가사의 시어는 또한 생활적이면서도 평이하고 누구나 다 쉽게 리해되고 친숙하게 되어있다.

《화목하게 사는》, 《내 마음 즐겁다》, 《부럼없어라》, 《무섭지 않네》, 《만발하였네》 등 모든 시어들이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들로 되어있다.

이 가사는 또한 운률조성에서도 유순하고 호흡이 여유있게 되어있어 노래가 담고있는 행복과 긍지, 희망을 운률적으로 잘 안받침해주고있다.

또한 가사는 시행에 글자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으면서도 감정의 흐름이 일관하고 여유있게 조직됨으로써 가사를 빨리 외울수 있게 하였다. 가사는 이러한 운률을 후렴구에서도 반복함으로써 가사의 사상정서적내용을 처음부터 운률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 ×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선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령도따라 살며 일하며 혁명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과 의지, 념원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노래한 훌륭한 가사이다.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을 불러일으키며 세차게 울려퍼져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할 것이다.

우리 시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 념원을 비롯한 주도적인 감정을 서정을 통하여 진실하게 노래한 좋은 가사를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다듬은 말

본래말	다듬은 말	리면	뒤면, 안속
류입	흘러들기	리말기	머리기계
류의어	뜻비슷한 말	리봉	꽃댕기
륜독	돌려읽기	리탈하다	빠져나가다, 떨어지다, 벗어나다
륜번	돌림차례	리야까	손수레
륜작	그루바꿈	린근	이웃
특골	갈비(뼈)	린접동화	이웃닭기
룽가하다	넘어서다, 넘어가다, 뛰어넘다...	린접면	이웃면
룽직	빗줄천	린접하다	잇닿아있다, 이웃하여있다
리노제	오줌(내기)약	림종기	숨질 때
리듬	흐름새(문학에서)	립도	알굶기
	장단(음악에서)	래도하다	다가오다, 다닫다, 다달오다,
리룩하다	떠오르다, 뜨다		가까와오다, 오다...

백두산에서

장건식

해가 솟는다

우주만물이 어둠에 잠겨
숨엄한 정적속에 묻혀있더니
아, 무한대한 공간 그 한끝에서
한오리 구름발이 휘뿌영게 번져진다

수림이 움직인다
겹싸인 운무를 이랑이랑 물들이며
이글이글 타번지는 노을을 밀고
적황색 불덩이가 불끈 솟는다

티없이 깨끗한 장설우에
금노을을 쏟아붓는 첫해발이여
아아한 절벽을 우뚝 세우며
발아래 열리는 하늘이여 우주여!

누리의 모든것이
큰숨을 내쉬며 일어서는구나
풀뜬던 사슴이들
장군릉 바라보며 긴뿔을 건듯 쳐들고
벼랑가의 산제비들 태양을 향해
천지의 물을 차고 높이 솟는구나

일어오는 바람은 얼마나 청신하나
갈래갈래 쏟아지는 해살을 타고
원시림은 구슬같은 이슬을 굴리고
아득히 열리는 천리수해는
명주필 흰안개를 벗어던지고...

아, 하늘이 있어도
먹구름 차흐르던 저 하늘이
언제부터 이렇게 창창히 열렸느냐
땅이 있어도
저 숲이 언제부터 이렇게 설레이었느냐

숨쉬는 우주여
빛을 뿌리는 조선이여
압제에 짓눌렸던 긴긴 세월이
이렇게 여기서 밝아오지 않았던가
위대한 태양을 맞이하던 강산이
광휘로운 빛을 안고 큰숨을 내설 때

황홀하다 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하고 장중함이
신묘하고 숨엄한 빛발에 싸였구나
백두산, 여기서 빛발쳐
누리에 차흐르는 위대한 태양이여!

아, 해가 솟는다
백두산과 더불어
불멸의 위업을 쌓아올리신
김일성동지, 그이는 위대한 태양
그 빛발을 안고
인류의 새날이 엄숙히 열린다

밀림의 밤

천리수해를 삼킨 어둠이
끝없는 심연속에 잠기었구나
하늘과 땅 사이를
침침 침묵이 메운 백두밀림의 밤

어데가 동쪽이며
어데가 북쪽인가
향방을 더듬어 고개를 드니
하늘과 맞닿은 메부리들우에
시퍼렇게 내뿜친 별들...

귀기울이면
허공에 눈보라 아우성치고
쨍쨍 산뿌리 얼어트는 소리

아, 밤이여 밤이여
이렇게 엄혹한 밤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밤 이 무인지경속을
정녕 인간이 헤쳐낼수 있었던말인가

뜨겁게 젖어오는 나의 눈앞에
싸, 불비를 끼었느냐
부석을 휘뿌리는 눈보라속으로
어서 따라서라 나를 부르는듯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또 이어진다
기폭처럼 펄럭이는 백포자락 백포자락...

바람소리 사라지는 저 밀림속에서는

나무잎. 밟히는 바스락소리
타오르는 우등불가에 신들메를 조이며
《사향가》를 부르던 그들이 웃는다
허리치는 눈무지를 한치 또 한치...
부추기며 손을 서로 잡아 이끌며
조국으로 걸어온 그 사람들

아, 그들만이
그들만이 이런 밤을
묵묵히 웃으며 헤칠수 있었구나
오직 한분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오직 그 신념으로 숨신 투사들

밤이여 밤이여
반만년의 암흑을 들부시고 솟아오른
위대한 태양의 빛발로 하여
투사들의 숨결은 그리도 뜨거웠고
그 빛발로
밤은 그렇게도 눈부신 새날을 불러왔구나

오, 밤이여 백두밀림의 밤이여
이런 밤을 모르고
어찌 이 땅우에 펼쳐진
락원의 거리를 밟을수 있으랴
여기서 나는
이 땅우에 마련된 행복의 무게를
다 안아볼수 있구나

만 병 초

흰눈우에
파란 아지를 퍼며
반갑다
청신한 송이송이 폭풍에 내맡기고
하늘과 마주 웃는 만병초

눈보라 울부짖는 무변대공에
진한 향기 내뿜으며
누구를 기다리느냐
산허리에 별처럼 깔리어
걸음마다 발목을 부여잡는 꽃

오자 사라지는 여름 한철마저
우박이 쏟아지고 눈보라 운다
따스한 해벌에 시름을 잊고
벌, 나비를 부르며 필수도 있으면만

꽃이여
눈속에서도 웃는 꽃이여
모진 폭풍속에 태질하면서도
너는 이 가슴이 젖도록 새겨주는구나
못떠난다, 투사들의 발자욱 잊을수 없어
자욱자욱 그 자욱 별처럼 빛내이며...

아, 만병초
 그래서 너는 여기에 뿌리내렸구나
 아름답리 이깎나무도
 싹가지를 잘리우고 쓰러지는 땅-
 불멸의 대오만이 굽이쳐간 용암대지우에

너만은 고개를 들고 웃고있구나

백두산을 못잊어
 백두산의 꽃으로

백두산

무겁게 깔린 구름장막으로
 눈과 비와 우박이 쏟아지더니
 건뚝 들리는 만리대공에
 범접 못할 장중함이 짙 들어찬다
 아, 백두산 백두산

눈부신 채운을 은은히 뿌리며
 아아한 메부리들 구름바다우에 일어선다
 아득히 흘러간 세월을 딛고
 삼천리를 굽어보는 엄숙함이어!

절벽을 거슬러 불어오는 바람은
 출진의 나팔소리로 나를 불러세우고
 격전의 초연서린 흔적인가
 장군봉은
 구름발을 두르고 이마를 드는구나

발아래 산발들이
 투사들의 근엄한 동상으로 일어선다.
 파도처럼 달려와 메부리를 가다듬고
 천연성새우에
 백두산을 높이높이 떠받들어올린다

천리수해 저 깊은 수림속에서는
 밀영과 행군의 그날이 이어지고있느냐
 성스런 전적을 숲속깊이 간직하고
 사령부를 지켜가는 위장병인듯
 잠들줄 모르는 천고밀림이어!

어데선가 쏟아지는 해살을 타고
 거룩한 발자욱소리 울려온다
 벼랑끝에 나뒹구는 푸른 번개와
 천지에 내려꽃히던 성난 우뢰를
 일제의 머리우에 들썩우시던

김일성 동지! 여기서
 해방의 새날을 열어가시였다

아, 그날에 열린 하늘이
 그날에 열린 세월우에
 높이 떠받들어올렸구나
 깊은 령 험준한 산발마다
 거룩한 불멸의 그 자취는 어려있나니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솟아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한 백두산이어!

너는
 새조선이 시작되고
 새 력사가 시작된
 혁명의 성산!

아, 백두산, 백두산
 너는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적비로
 세월이 버려내고
 우주가 다듬어올렸도다

예가 어딘가 정녕 백두고원인가

조빈

가도가도 밀바다
예가 어딘가
풍요한 땅
예가 정녕 백두고원인가

푸른듯
누른듯
탐스러이 익어가는 이삭들을
내 환희에 싸여
쓰다듬고 또 쓰다듬노라면

나의 마음 천만이삭에 떠실려
훽훽 내려쳐가는듯
설레설레 물결쳐가는 이삭들과
가슴속 이야기 속삭여보며
끝없이 걷고싶은 백두고원 밀바다여

말해다오 지난해도 이맘때
천리 먼길을 찾아주신
아버이수령님
기쁘시여 밀바다에 들어서시며
사랑의 미소 보내신곳은 어디

여분이삭 손수 드시고
못내 만족하시여
백두삼천리벌이라 이름지어주시며
걷고걸으신 자욱은 어디
아, 우러를수록 그날의 자애로우신 영상
오늘도 다시 뵈옵는듯

항일의 혈전만리
간고한 나날에 새겨두셨던 생각

도천리의 밀밭을 그려보신
이 나라 북변 량강땅에
만풍의 새 력사가 열렸거니

설레이라, 백두고원이여
푸르려가는 별방의 기쁨에 더하여
너의 천만이삭 파도쳐 솟구치라
땅우에 넘쳐
창창한 저 하늘가에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라던
가없는 이 등판우에
만풍의 세월 열렸으니
가도가도 너의 한끝은 그 어데인가

알려다오
내 어데까지 왔는가
알려다오
내 떠나온 기슭은 또 어데인가

가없는 너의 밀바다
가슴 한껏 부풀어 다시 둘러보고
황홀하여 갈길 잊고 또 둘러보는 사이에
떠나온 기슭도 내가 선곳도
바이 알길 없어졌건만...

어데 가도 어데 있어도 그 품인
아버이 다함없는 사랑의 품에
정녕 내가 서있구나
풍요한 땅, 네가 솟아있구나
백두삼천리벌이여!

그 모습 수수하고 평범해도

김석주

문득 길가에서
밤길을 걷는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구나

농장마을 창가에 흐르는
한점 불빛을 보아도
생각없이
그저는 지나칠수 없구나

숨은 마음
사람마다 그 마음 간직하고
사람마다 그 길을 걷기에
수수한 작업복에
흔히 보는 보통사람

저만이 간직한
속깊은 마음 다 알수 없어도
나에겐 생각되여라
그 모두 시대의 숨은 영웅인듯

꽃은 피어도 소리없이 피고
피어나는것도 볼수 없듯이
함께 일하고
이웃에 살면서도
우리 미처 모르고 지내는
숨은 영웅

그가 걷는 길 누가 몰라도
말없는 그 진정 누가 몰라준대도
조국을 위한
인민을 위한
그 정신 그 신념
우리의 삶의 노래 되었구나

심산속에 홀로 피어도
수령님을 위하는 기쁨
소문없이 묻혀 살아도
당을 받드는 행복

아, 수령님께 기쁨이 된다면
천길 땅속의 보석처럼
영원히 그 마음 간직하리
가슴속 깊은곳에
첫새벽
그 어느 들길을 걸어가
농장치녀의 작은 가슴에도

그 마음 불타고
깊은 밤
탐구의 불빛아래
그윽히 빛나는 눈동자에도
그 마음 어려있어라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남모르는 진정은
깊을수록 빛나는것

알수 없어라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얼핏 보면
그 누가 숨은 영웅인줄

수령님을 받들어
당을 받들어
우리모두 가슴깊이 간직했어라
영웅의 금별같은
그 숨은 마음을

빛나는 이름들

럼우봉

그 누가 불러주기를
언제 한번 바란 일 없건만
이제는 누구나 스스로 따라부르는
그 이름들

해저무는 포전에서 실험실에서
땀흐르는 무더운 주물장에서
세상을 놀래운 발명은 서로 달라도
모두가 하나같은 삶의 거울되어
우리에게 한꺼번에 왔구나
자랑높은 나라의 숨은 영웅들

오직 한마음
아버이수령님께 기쁨 드리려
남들이 에도는 길 없는 길도
남들이 저어하는 아슬한 벼랑도
서슴없이 말없이 헤치고 넘어
기어이 위훈의 새 언덕에 오른 사람들

그들도 미처 몰랐으리라
그렇게 걸으면서도 뿔아가면서도
다름아닌 그 걸음걸음으로
세기를 놀래우며
현대과학기술의 새 장을 써나가고있었음을...

정녕 영웅중에도
숨은 영웅들이었기에
마치 이름없는 산허리에 널린 보석들
아침의 해빛에 한껏 눈부시듯
세운 그 공적들 더 값높이
시대의 금별로 빛나거니

아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하나하나 소중히 찾아내주신

수령님 그 사랑의 품에
그들은 그렇듯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앞에 나선것이구나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 바칠줄 알았어도
그 무엇도 받을줄 몰랐던 그 사람들
오늘의 이 영광우에
수령님께서 높이 내세워주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숨은 영웅들

진정 우리 당의 끝없는 사랑의 력사와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의 력사가
함쳐흐르는 거기에
영원한 자기 위치를 정하였거니

그 이름들 한번 부르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별처럼 새겨진 그들의 발자욱따라
평범한 사람들도 영웅으로 혁신자로
다시 또다시 따라서고

그 이름들 다시 외우면
천만으로 태어나는 숨은 영웅들로 하여
더더욱 빛나는 주체의 조국
가슴이 터질듯 긍지로 차오는
오 내 조국의 위력함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이며

어제는 큰 위훈 깊이 묻어왔기에
오늘은 더 높이 빛나는 그 이름들
우리 시대 새 인간들의 존엄높은 모습으로
온 사회를 주체의 한길로 소리높이 부르며
전진하는 충성의 대오앞에 빛나고있어라

좋은 나날에 산다

송명근

참으로 좋은 나날에 산다
마음은 갈수록 맑아지고
불붙는 열정에 나이는 젊어지고

산다는것은
얼마나 환희로운것인가
숨은 영웅들의 모습을
내 삶의 거울로 비쳐보며
내 삶의 높이로 따르며...

감히 말하기조차 송구스러운
한 처녀연구사의
꽃나이 청춘을
내 한생에 살고싶어
한알의 열매를 소중히 안노라면

내 가슴에도 씨앗은 영글고
푸른 잎은 무성하여라
엄숙히 맞는
당생활총화의 아침에
내 목소리 날마다 많아져라

시련이 내앞에 막아설수록
실패의 백날밤에도 물러서지 않은
주물로 불길앞에 다가서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신념의 불길이
내 가슴에 옮겨져 너울치여라

불밝은 창가에
조용히 하루일을 생각해도
스스로
제 한일에 놀라는 기쁨이
오늘에 있어라

아 시대는 숨은 영웅을 낳고
한점의 불꽃은
천만사람의 넋을 불태우나니

날마다
내 모습도 새로와짐을 느끼며 느끼며
아, 수령님의 기쁨속에 무한대한
삶의 의의를 새로이 발견하는 환희여

쉬울수 있으라
청춘을 바쳐, 한생을 바쳐
말없이 쌓아올린
충성의 높이로 오르는 자욱
진정이 없이는
한치도 따를수 없는 자욱

불타리라 순간의 사색도
온 조국을 비껴안고
잠못들어도
수령님 바라시는 일에
단 하나라도 더 보태고싶은
안타까움에 잠못들며...

좋은 나날에 산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온 강산에 빛발쳐
평범한 사람들 영웅으로 자라고
영웅의 위훈이 누리를 떨쳐가는

이 시대 이 나날...
맞고 보내는 하루하루는
숲처럼 무성하는
새 인간의 탄생을 선포하는 나날들!

아아--
위대한 당의 해빛
누리에 비졌으니
삶이여 빛나라
한껏 아름다와지라 인간이여

온 나라 온 인민이
주체형의 한모습으로 차림새하는
참으로 좋은 나날에 내가 산다!

언제나 참된 길잡이로

김정철

밤도 깊어

기술준비실을 나서는 두사람

어둠속에 전지불을 비쳐주는

당비서를 따라

기사는 퇴근길에 오른다

-기사동무 이쪽으로

한소나기 지나간 구내길우에

다정히 올려가는 비서의 목소리

-고맙습니다. 비서동지

진정이 넘치는 기사의 대답소리

저멀리 하늘가엔

비에 씻겨 류달리 밝은 별들...

새 기관의 시운전의 그날까진

아직 지새워야 할 밤이 더 많아도

서로의 믿는 마음 밤길은 즐겁구나

언젠가 다섯번째 시험도 실패하고

가슴 무겁던 그 저녁도

이렇게 기다리던 당비서

진정 기사는 얼마나 고마웠던가

자신의 아픈 마음 나누어안고

부축여주며

당비서가 가고있다는 그것으로 하여

조용한 때 마주앉으면

복구의 어려웠던 나날의 이야기로

젊은 날의 열정을 가슴속에 새겨주며

먼 출장길에서 돌아올 때면

새로 나온 귀한 책들도 안겨주며...

언제나 마음속

함께 걸어가고있는 당비서

때로는 다정히

때로는 준절히

그러나 그 모든 목소리들이

당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한발자욱도 헛디딤 없게 하려는

참된 길잡이의 진정이 어려있어

스스럼없이 마음 터놓으며 함께 가거니

이제 얼마나 보람찬 새아침을

기사는 당비서와 함께 맞이할것인가

쇠물에서 그대로 제품을 받아내고

세상을 놀래울 새 품종을 찾아낸

이름없는 과학자들의 빛나는 발명속에

자신의 소박한 발명도 보탬하며

오, 오랜 나날 이끌어준

당비서의 손길이 있어

더 높이 고동칠 새기관의 거대한 매력

그 힘으로 기관차는 더 기나긴 화초를 끌고

은빛궤도우로 정시에 달리고

그 힘으로 새로 띄운 짐배들은

파도를 헤가르며 거세차게 대양을 넘으리라

그 보람

그 기쁨으로

가슴벅찬 기사의 마음

당비서가 이끌어주는 그 길에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며

한생 당을 따라 그는 가리라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가고가리라

옛집 창가에서

윤명숙

수령님 오셨던
뜻깊은 날이 오면
축원의 마음 안고
정든 합숙 창가에 모이군하여라
정다운 형제들처럼...

매화꽃이 한창인 이 봄날
창밖에 꽃들은 그리도 향기들 풍기는가
자나깨나
수령님만을 그리던 맑은 마음이
약속이나 한듯

이십년전 갓 신입공이었던 그날을 못잊어
오늘도 수령님 오셨던 방적호실에 다 모였구나
이제는 아이어머니가 된 직장장도
영웅이 된 그날의 꼬마도
그날에 선동원이었던 당일군도...

그날의 어버이사랑이 흘러넘치는가
어서 노래나 부르라고
세워놓은 가야금도 만져보시며
노래가 듣고싶다고
아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영상
오늘도
우러러

누가 먼저 타기 시작했는가
그 고마움이 노래되어
수령님 앞에 올리던
그날의 가야금을 다시 타며
오늘은 이 호실에서 자라는 신입공들과 함께
다감한 눈빛들이
다시금 노래를 부르는 마음
가슴 뜨거워지는 생각이여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신듯
20년 또 30년
오래오래 공장의 주인이 되라고 하시며
수령님 바라보시던 창밖엔
그날의 애어린 백양나무

오늘은 저렇게 자라서 무성한 잎새들도
그 노래를 안고
못잊어 끝없이 설레이는가

수령님 은덕을 노래에 담아
가야금을 타는 마음도 눈비도
수령님 생각으로만 흐르는
아, 친아버지를 모시였던 사랑의 집이며

수십번 처녀들은 이 호실을 떠나
그 어디에 가도
공장을 지켜 마음만은
창가의 저 푸른 백양나무처럼
언제나 떠나지 않았거니

오늘은 또 새로 지라는 처녀들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다시 이어 부르며
수령님 말씀 안고 로동계급으로 자라누나

수령님 우러러 부르는
노을비긴 하늘로 끝없이 울려퍼지는
흙모의 노래여

수령님 오신 날을 안고
영원히 살며
운명도 희망도 수령님 품에서만 꽃피가는
끝없는 행복의 노래여
그 노래 끝없이 흐르는 창가인
이 밤도 별무리가 비껴흘러라

고마움에 젖어 행복에 젖어

오 필 천

금시라도 물을 대고 모를 내면
벼파도 넘실대며 안겨올듯
연연 사십리 새로 생긴 새땅
땅이 좋아선가 걷고만싶어
흙냄새가 좋아선가 다시 또 걷고

강둑을 멀리 밀어내고
강줄기를 바로잡아
얼어낸 새땅
하도 부드러워 다시 또 쓸어보고
한줌을 푹 떠서 두볼에 비벼보고

발목이 시도록 이 한밤을
이대로 걷고만싶구나
땅이 없어 눈물 많던 가슴에
분여지의 새땅을 안겨주시던
그 봄날의 그 밤처럼
수령님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온밤을 걷고 걸으며 목메이던
아, 그날의 그 살진 이랑을
나는 다시 밟아보는것 같구나

먹고 남아 나무리 쓰고 남아 나무리
옥야백리 나무리벌
땅에 꺼지도록 무겁게 떠실린
풍년나락 풍년흥에 겨워
강변의 이 좋은 땅마저 무심히 보아왔더니

아, 만풍의 그 가을날
기쁘시여 그리도 기쁘시여

들길을 걸으시던 그 걸음
강변가에 멈추시고
송아지 풀을 뜯는 이 묵은땅에도
풍년나락 설레게 하자고 말씀하시던
어버이수령님

그 사랑에 목메여
그 은덕에 목메여
가슴도 끝없이 설레이는가

물결천리 생명수로 적신 땅
구색맞는 비료로 살지운 땅
땅은 넓어 기름져
만풍의 기쁨 안고 우리 살건만
농민들에게 새땅을 찾아 안겨주시는
그 사랑에 눈시울이 젖는구나

산기슭 풀숲에 묻혀버렸던 땅이
새땅 되어 풍년벌과 손잡고
갈대 설레던 강변이 벼파도에 이어져
풍년벌이 넓어지고
농민의 행복이 커만가는
좋은 날 좋은 계절에

나는 끝없이
새땅을 걷는다
땅 받던 그 봄의 그 밤처럼
고마움에 젖어...
행복에 젖어...

다락발 풍경

-농산기사와의 이야기-

권창일

1

다락발엔 손님도 많아
하루는 시인이 찾아왔네
내려서 올라다볼가
올라서 내려다볼가
층층 굽이굽이 그 어데쯤 서면
다락발 그 모습을 다 볼수 있을가고
머리칼엔 반백이 섞였어도
열정에 타는 눈빛의 시인은
안타까운 마음 숨기지 못하는데
젊은 농산기사는 웃네 웃으며 말하네

다락발의 풍경으로 이것도 약과라고
해뜨기전 새벽에 여기 오르면
가극의 환상장면같은
아름답고 황홀한 다락발의 진짜 풍경을 보게 되
리라고
그래서 시인과 농산기사
이튿날아침 다락발에 올랐네

2

저아래 마을에서 새벽닭소리 꼬끼요오-
꿈속에서처럼 아스라히 들려오는데
소리없이 걷히는 젖빛 안개는
대극장무대의 화려한 사막인듯

안개바다위에 점점이 떠있는
다락발 신비스런 봉우리들은
환상의 돛배 타고 와닿은
어린시절 옛말속의 보화의 섬인듯

다락발 맨 높은 이 땅우에서
해님이 불끈 솟아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노을이 번지고
봉우리에서 골짜기로 노을이 내릴제

숫저울게 자래를 드러내는 다락발 층계층계
그 이랑이랑의 잎새들에서
천만구슬인양 열정에 타는 이슬방울들의 령롱
함...

3

진짜 시인앞에서 안된 말이지만
이런 때면 누구나 자신을 시인으로 생각한다고

농산기사는 정녕 시인이라도 된듯
명상에 잠기여 이야기하네

-새벽바람에 일렁이는
저 강냉이숲의 설레임을 보십시오
마치 춤의 정들이 여기다 모인듯싶지 않습니까
밀려오며 뒤번지며 파도치는 모습도 좋지만
살랑살랑 스적일 땐 얼마나 섬세한 조화를 보여
주는것입니까
그리고 부딪고 속삭이는
저 잎새들의 소리는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바이올린활들이 가벼이 현을 튕기듯
그 다정하기란
그 곰살궂기란

4

농산기사는 말하고
시인은 귀기울이고
사위엔 춤과 신비스런 음악이 가득했는데

아 그때 푸른 파도위로
새들이 솟구어오르며
짜르르 은구슬을 휘뿌려 던지네
푸른 골짜기아래로
수리개가 깃을 번쩍이며 내려쳐가네

통탕통탕
《전진》호들이 굽이굽이 다락길을 오르고
가리웠다 나타났다
삭도들이 하늘길에 내리네

그러자 이 산 저 산 모든 이랑우에서
분수비 일제히 뿜어오르며
술한 무지개 사방에서 일어나
그 아름다움과 다채로움을 다투는데

머리위에 건너간 큰 무지개아래서
시인은 물었네
-기사동무! 이렇듯 아름다운 다락발풍경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을까요

농산기사는 경건히 웃짓 여미더니 대답했네
-다락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의 대지위에 펼쳐주신 예술입니다

어부의 상봉 외 1 편

허성훈

푸른 물결 뒤번지는 동해의 어장에서
오며가며 만나도 좋기만 하구나
오늘따라 파도가 세차서
진정 못하는 배우에
몸을 가누지 못해도
그저 반갑기만 하구나

술많은 눈섭에 덮인
하얀 성예를 마주보며
바다가 들썩하게 웃어대니
이것 또한 한뼉이로구나

수령님 마련해주신 만능선 몰아
정어리를 쫓던 땀
멀미에 시달던 제대군인동무
인젠 그물치는 솜씨가 제법이라지

봄날 한철엔 청어어장에서
여름날 한때엔 낙지어장에서
때로는 예고도 없이
밀려드는 고기떼를 쫓아
세찬 파도우에서 불쑥 만나는
어부의 상봉이여

이 감격을 안고 갈매기 너도야
갑판우를 에드느냐
저도야 반겨서 바다는 파도를 들어
천만의 물구슬을 배전에 뿌려주느냐
아, 화선에서 만나는 전우들처럼

어로전이 앞에 있어
긴 이야기 나눌새 없어도
끓는 가슴이길래
불붙는 마음이길래
순간을 만나도 미더워지는 동지들!

이 마음이 그대로
천길물속을 살살이 들춰내는
위훈에 찬 나날을 수놓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이 상봉이
이처럼 가슴을 칠수 있으랴

진정이 안겨오는 이런 날엔
간물에 젖은 방수복
떨쳐입은 갑옷갈구나
옷섶에 번쩍이는 고기비늘은
조국이 뿌려준 꽃보라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펄펄 휘날리는 만선기
만선기를 보는 조국은
얼마나 큰 웃음에 휩싸이라

긴 말을 대신해
눈인사를 안겨주며 간다
나라의 재부가 되고
인민의 기쁨으로 되는 풍어기
떠나온 기슭에 더 높이 날리려
사나운 물결을 헤치며
우리는 이렇게 만나자 헤어져간다

해살 퍼지는 도래굽에서

에헤라 노저어라 노를 저어라

우리네 사돌선에 노를 저어라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이

갈매기 날아도는 바다기슭에

퍼져가고 해살로 퍼져가고

주낙은 저편에 늘어놓고

소해질, 작살질, 트레질하며

물멀기 잔잔한 도래굽에서

인민의 식탁, 나라의 식탁을

세소반 우리들이 한몫 맡아 차리오

깊은 바다 먼바다의 고기를 잡노라

별치 않게 여겨오던 세소어업이

수령님 다녀가신 이 바다가에

만선의 노래높이 흥성거리오

먼바다 깊은 물에 가지 않아도

산호같은, 진주같은 값진 수산물

얼른잡간 수십가지 손쉽게 따니

사돌공의 일숨씨야 그 뉘 당하랴

어깨등실 배노래가 절로 나오오

세소반 사돌선 배는 작아도

알알이 찢길래 골라서 잡았길래

한배가득 쏟으면 쏟아놓으면

상점에 넘치오 넘치어나오

매대마다 가득가득 무지여놓은

생신한 문어, 게, 해삼...

물좋은 고기들이 상점에 쌓이니

상점앞이 부두같다

어장도 인제는 문턱밑에 왔다오

아무렴, 문턱밑에 온것이야

어장뿐일라구요

파도도 기쁨 되어 노래가 되어

끝없이 안기는 달려와 안기는

사랑의 바다가 가슴에 출렁이오

에헤라, 사돌선에 노를 저어라

벼랑굽에 바위밑에

인민의 기쁨이 그득그득 피였소

큰배들이 포구에 와닿기전에

또 한배 두등실 더 실어내자

에헤라 노저어라

사랑의 바다에 노를 저어라

일군의 갓춤새

김명화

과일은 익어야 향기를 풍기고 사람은 알아야 감화력을 가지게 된다.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그 어떤 조언도 충고도 할수 없다.

얼마전에 나는 그것을 체험을 통해 다시금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그날 취재임무를 지니고 열차에 오른 나의 눈에는 40대의 한 중년이 유묘하게 끌려들었다.

그는 인물이 특별하다거나 옷차림이 남다른것도 아니며 남들처럼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하는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는 최근 돌림인 수수한 봄옷 차림을 단정히 하였을뿐이고 창탁우에 퍼놓은 농업기술잡지를 눈으로 조용히 더듬고있었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특징적인것은 두드러진 코마루인데 그것도 알팍스러운 그의 얼굴에서나 그런것이지 여느 사람에 비하면 결코 두드러져 보일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의 무엇이 나의 시신을 잡아끌었을까?

그는 이음짚을 뛰어넘는 열차바퀴의 단조로운 소음에도, 옆친구들의 떠들썩한 객담에도 아랑곳없이 책만 읽고있었다. 짐작컨대 그의 독서취미는 웬간한 외부적자극으로는 쉽게 깨뜨려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웬걸 자그마한 산간역에서 오른 몇몇 객들중 한사람이 가운데통로로 걸어오면서 나지막이 뎀 잔기침(습관인듯)소리에 그는 번쩍 머리를 드는것이였다.

《관리위원장동무!...여기로 오시오,》

관리위원장이라고 불리운 그와 동년배는 그가 친절히 내주며 편하는 자리에 사양없이 와앉으며 말했다

《아, 지도원동무구만! 도에 강습 갔다더니 이제 내려오는길이요?》

《그렇소. 1주일만에요, 그런데 관리위원장동무 어디로 가시오?》

《농기계공장일 좀...》

정초에 고장난 맥류파종기를 가져다 맡겼는데 지금까지 수리되지 않아 알아보러 간다는것이였다. 물론 그는 오늘저녁엔 어떻게 하나 수리된 파종기를 실고가겠다는 결심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자 지도원이 빙그레 웃으며 가방을 열었다.

《관리위원장동무, 이게 어떻습니까? 이번에 농

기계공장에 들렀더니 새로운 맥류파종기설계가 완성되어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종전의 2배능률을 내면서도 질은 더 잘 보장된다는겁니다. 광범히 도입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는 창탁에 도면을 쪽 퍼놓고 기계의 작용원리며 동력전달장치의 복잡한 공정을 설명하고 유리성을 이모저모로 론증하는것이였다.

처음엔 눈섭을 미간에 모으고 듣던 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점점 화기를 띠며 얼굴에 함박같은 웃음을 지었다.

나는 기계공학에 매우 밝은 지도원이라는 그 사람이 군농촌경영위원회에서 일을 보는가부다고 넘겨짚으며 그의 해박한 기술지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열차는 산간군소재지에도 많은 사람을 부리워놓고 립산로동자구로 가버렸다.

나도 이번 취재목적이 이 군에서 새로 일떠세우는 지방산업공장건설정형인것만큼 이 정거장에서 내렸다.

지도원이라 불리우던 그 사람도 여기서 내렸다.

우리는 정거장을 벗어나 읍거리의 변두리를 안고도는 강우에 가로놓인 허궁다리를 건넜다.

그때 읍거리입구에 자리잡은 고등중학교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체육훈련을 하고있었다. 축구공을 맹렬히 따라달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파란 하늘에 하얀 배구공을 띄워놓고 저마끔 솟구쳐 올라 강타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밖에도 룡구, 송구, 룡상 모든 체육종목에 걸쳐 진행되는 이 연습은 알고보니 이번 도에서 열리는 고등중학교 학생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이라는것이였다.

한때 체육에 일정한 소질을 가지고있는터여서 나는 가방을 든채 잠시 운동장에 돌리였다. 지도원도 거기 들었는데 나는 그도 나처럼 학생시절의 흥분이 되살아나 들린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나의 판단은 틀렸던것이다.

종목별로 훈련지도를 하던 교원들이 지도원을 발견하자 저마끔 달려왔다.

《지도원동무, 우물 잘 앉았습니다.》

《지도원동무,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압니까.》

《지도원동무, 우린 축구전술을 좀 바꿨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지도원에게 훈련진행실태를 말하

고 의견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지도원은 아예 양복저고리를 벗어놓고 훈련장에 들어가더니 학생들의 훈련상태도 보고 그에 대한 자기 견해를 교원들과 열심히 토론도 하였다.

이따금 높아지는 말귀를 가려들으며 나는 그 지도원이 체육에 전문가 못지않은 조예를 가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렸다. 지도원은 교원들과 체육훈련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학업정형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는가 하면 어떤 학생을 불러놓고는 의 좋게 이야기도 하는 것이었다.

(아니 경영위원회 지도원이?... 혹시 내가 군체육지도위원회 지도원을 잘못 본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소년단지도원? ... 지도원이 저쯤 되면 선수들의 실력이 높아지는 법이지.) 일군들이 자기가 지도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정통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모든 간부들이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정치리론적으로 준비되고 실무에 정통할뿐 아니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유능한 일군으로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는 사람만이 옳은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나는 계획대로 취재를 위해 지방산업공장건설장에 나갔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지도원을 만나게 될 줄이야. 작업복차림인 지도원은 귀바퀴우에 연필을 끼우고 접이자를 들고 나타나 새로운 식의 열난방장치 도입문제를 가지고 기술자들과 토론을 벌이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식의 열난방장치 도입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빨리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부문에 갇힌 나는 그 《사정》이라 일컫는 기술실무직원들을 말은 들었으나 아직 석연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하지만 지도원의 말을 들으며 나는 무엇보다도 도입이 완만히 진행되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다는 기술적 문제들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데 곰곰히 따지고 보면 《빨리 할 수 없다》라든가 《빨리 할 수 있다》는 기술적론거는 지도원이 몇마디 튕겨줄 따름이고 다른 기술자들이 다 말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기술자들의 창조적 지혜를 계발시키는 지도원의 수완에 또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빨리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합의가 이루어진 듯

했을 때 지도원은 저으기 심중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하는 것이었다.

《우린 이번에 또 하나 교훈을 찾아야겠습니다. 당에서 하라고 하고 국가에 리익이 된다고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감동깊은 말이였다. 그날 저녁 나는 강연회에 참가하여 그 지도원이 군당위원회 지도원 강경학동무라는 것을 알았다. 강연회 강사로 그가 출연한 것이었다. 나는 그의 설득력 있고 열정에 넘친 강연을 들으며 그의 다방면적인 지식과 실무적 능력에 깊은 공감과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직업적인 호기심이 그후 나를 그와 마주앉게 했다. 나는 그와의 취재과정에 앞으로 좋은 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얻어냈지만 이 글에서는 그의 한마디만 언급하려 한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남을 지도할 권리가 없다.》

옳은 말이다! 그의 이 말은 당일군들이 풍부한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경제사업지도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없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자신있게 조직 전개해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옳은 견해다! 열성만 가지고 일해나가던 시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당일군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자기 사업에 깊이 정통함으로써 어떠한 경제 기술적사업도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는 실력가여야 한다. 모르고서는 남을 지도할 수 없으며 사업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어느 면에서나 막힘이 없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어느 부문에서나 그 일군으로 하여금 성과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지식, 그것은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저절로 차려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것을 갖고자 원하며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소유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근면한 노력에서만 이루어진 수 있으며 혁명에 대한 주인된 자각에서 출발된 열정으로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사업이 이처럼 훌륭히 수행되는 데는 어떤 분야에나 막힘없는 능력과 지식을 가진 당일군들의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지도가 있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고보면 내가 렬차에서 유독 강경학동무에게 눈길이 끌린 것을 우연이라 하겠는가. 남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우선 알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학습하던 그 모습은 지금도 우렁이 떠오르며 선망과 존경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군 한다.

숲에 사는 처녀

정해경

바람이 세차게 숲을 뒤흔들었다. 뽕양귀 피어오르는 눈보라, 눈보라... 눈보라는 온 숲을 안고 우-우-소리쳤다.

오늘따라 섬길이의 마음은 허전해지기만 하였다. 그 무엇인가 귀중한것을 잃어버리기라도 한것처럼... 저 아우성치는 눈바람은 성길이의 가슴속에 간직되었던 온갖 따뜻하고 정들은 모든것을 날려보내는것 같기도 하였다.

지금 성길이는 숙경이를 기다리고있다.

숙경이는 검척공이다. 대청림산마을사람들의 사랑받는 독창가수이기도 하다. 그런 숙경이가 여기 림산마을로 공연왔던 어느 예술단에 불리워간지 벌써 이틀째나 된다.

림산마을사람들속에서는 숙경이가 예술단으로 갈것이라느니, 이미 사업소일꾼들이 승낙했다느니 하는 말들이 떠돌고있었다.

숙경이의 맑고 부드러운 음색과 정확한 음정이 예술단가수들의 마음에 들었을것이다.

성길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물론 숙경에게 있어서 전문예술단체로 뽑혀가는것은 하나의 발전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떠날줄이야...

작업소예술소조에서는 상반년계획완수자축하모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었다. 특히 예술소조가 힘을 넣고있는 노래이야기의 주역을 숙경이가 담당하고있다. 만약 그가 없으면 이번 노래이야기는 허전해질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그레 예술소조책임자인 성길은 어제저녁에 숙경이가 하던 노래이야기의 주역을 아지따기공인 수옥이한테 시켜보았으나 형상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더우기 작품의 절정이 잘되지 않았다.

성길은 손맥이 풀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은근히 숙경을 원망하기도 했다.

숙경이가 이번 축하공연만이라도 해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으랴, 남모르게 기다리는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지만 하였다.

어쩌면 오늘아침 첫 공차를 달고 떠났다는 림

철기관차편에 꼭 돌아올것만 같은 생각이 들이성길은 이른아침 토장에 나선것이였다.

아침 해빛은 흰눈속에 파묻혀 깊은 잠에 밀어졌던

잠귀 든한 숲을 다정하게 흔들어깨우듯 즐기며 스며들며 피란 잎새들을 조용히 어루만지고있었다. 어찌보면 저 호화롭고 다정다감한 숲이 좋아서 숙경이가 토장에 붙썩 나타날것만 같았다.

어느덧 성길의 눈앞에는 흘러간 나날들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숙경이가 숲에 온것은 아직 머리카락이 귀전을 스치는 단발머리처녀때였다. 봇나무잎처럼 가름한 얼굴에 움푹 볼우물이 져있어 더 귀여워 보였고 분비나무잎같이 총이 세고 진한 눈썹밑에는 언제나 웃음이 담긴듯한 까만 두눈이 유난히 반짝거렸다.

성길은 대번에 숙경일 예술소조에 받아들였다.

아닌게아니라 숙경은 우아한 목청으로 숲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이 산 저 산에 노래를 나르자고 성길의 손목에 이끌려 스키를 배운 숙경이, 노래를 안고 허리치는 솜눈길을 헤치며 벌목장을 찾아갈 때 그의 얼굴은 얼마나 환희에 넘쳐있었던가.

숙경이가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줄 때 숲도 노래에 취해서인지 움직일줄 몰랐다. 보매 진정을 쏟을줄 모르게 입이 무거운 숲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가슴은 웅심깊어 숙경이를 귀해하는 마음 나날이 더 깊어만갔다. 어떤 사람들은 숙경이에게 주려고 여름이면 밭팍에다 오미자나 마가목을 따서 담아두기도 하고 참나무잎에다가 들썩, 이스라치따위를 싸두기도 했다. 가을이면 잣송이를 땅에 묻어놓고 그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그들은 이런 산속의 열매들이 숙경이 목청을 돕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숙경이에게 이 숲의 종다리가 되어달라고 송진내 배인 두툼한 손으로 그의 조그마한 손을 감싸주지 않았던가. 그때 숙경이의 두눈은 얼마나 행복에 빛났던가.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면 흰 조약돌을 맑은 물속에 품어안고 흘러내리는 계수천에서 산천어를 낚아 천렵을 할 때 이런 숲의 정취를 모르고사는 사람

들이 생각난다고 하던 숙경이었다. 어찌다 숲속에서 희귀한 도마도나 수박같은 과일이 생기면 개울가 모래를 파고 찬물속에 묻어두었다가 성길 앞에 내놓으며 웃던 숙경이었다. 성길이는 여름철이면 토장에 프락포트를 세우고 늪속으로 뛰어들어가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나무 가지사이로 빠르게 올려다보이는 조각난 하늘을 쳐다보기를 즐겨했다. 나무가지사이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노라면 구름이 흘러가는것이 아니라 숲이 떠가는것 같았고 자기는 숲이라는 큰 《배》에 실려 어디론가 끝없이 흘러가는것만 같았다. 그러면 흰연기 피어오르는 공장지대며 긴 팔을 드리운 건설장의 기둥기며 푸른 전야가 눈앞에 펼쳐졌다.그 모든 것은 살아움직이면서 팔을 벌려 힘껏 소리치는것 같다. 《통나무, 어서 오라!》고... 그 소리에 깨어나 시계를 보면 이 모든것이 10 분이나 15 분간에 있는 일이었다. 이럴 때면 자기를 찾는 숙경이의 목소리가 숲속으로 메아리쳤다. 성길이가 모자를 툭툭 쳐서 쓰고나서 프락포트를 세워놓은 토장으로 가면 숙경이가 프락포트를 깨끗이 닦아놓기도 하였고 하얀 수갑을 운전칸에 놓아주기도 하였다. 이러기를 여섯해, 숲속에 마음을 쏟으며 노래로 서로의 마음을 두터이한 정을 토장에서 실려나간 통나무날가리에 비길수 있으랴...이런 성길이의 마음속에 서운하고 목직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한것은 사업소 생산과장을 하던 숙경이 오빠가 평양으로 소환되어간 이후부터였다. 숙경이 오빠는 적당한 때에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가기로 하고 립산마을을 떠난것이였다. 그런데 오빠가 아니라 뜻밖에도 예술단에서 숙경이를 불러간 것이였다. 바로 그때 《봉-》 하는 립철기관차의 목갈린 기적소리가 메아리쳐왔다. 마치도 그 기적소리는 《성길동무! -》 하고 부르는 그 누구인가의 다정한 목소리인듯... 성길은 번쩍 정신을 차렸다.

립철기관차가 헉퍼처럼 좁은 철길을 타고 대청산으로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순간 성길은 긴장해졌다.

(혹시 숙경이가?...)

그의 가슴은 저도모르게 두근거렸다.

립철기관차가 토장에 와 멎었다.

성길의 불라는듯한 눈은 운전칸에서 내리는 사람들속에서 이리저리 헤매고있었다. 마지막사람까지 다 내렸다. 이제는 내리는 사람이 없다. 일순간 성길의 마음은 장마비에 흠뻑 무너지듯 불시에 꺼져들었다. 숙경이는 오지 않았던것이였다.

《임자 또 나왔나? 아무래도... 아까운 애를 놓

는가보이.》

작업소에 기계톱부속을 가지러 내려갔던 벌목공인 임성재아바이가 서운한 소리를 했다.

《스키를 가져왔네... 축하모임엔 마을에서도 모두 올라오겠다고들 하더군》

임아바이가 기관차적재함우에서 스키를 안아내리웠다.

숙경이가 상반년계획완수자 축하모임에 갈 때 새 스키를 타겠다고 임아바이한테 부탁했던것이였다. 바로 그 스키가 숙경이를 기다리는 성길의 마음을 더 허전하게 해줄줄이야...

《여보게, 하기야 기쁜 일이지. 이 대청숲속에서 독창가수가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나이 찬 숙경일 보며 다른곳에 뺏기지 않을가 했더니 일이 잘되어가는가보네.》

이렇게 말한 임아바이는 성길이에게 무슨 진귀한 보물이라도 주려는듯 솜옷 안주머니에서 반짝하는것을 꺼내들었다.

《엠티!》

동그란 손거울이였다.

《요전날 집에 갈 때 로친한테 잔소리 들을가봐 수업을 미느라고 숙경이한테서 얻어쓴건데 참, 이제 정신이 말돌일 다닌다니까. 이 거울땀에 로친을 웃겼네. 뭐 늙어가면서 속은 애들 마음 된다는 속담말 그르데 없나 참...》

임아바이는 합숙쪽을 향해 스킵스적 걸어갔다.

동그란 손거울을 반아낀 성길이는 임아바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아 손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은물을 굽어내고 50 전짜리만하게 동그라미를 낸속에서 《꽃과는 처녀》주인공의 얼굴이 보였다. 거울을 뒤집으니 어느 잡지나 화보에서 따오려 불인듯 한 만수대예술극장과 대극장이 찍힌 조그마한 사진이 아래우로 충을 이루고 유리알속에 끼워있었다.

성길은 거울을 보는 순간 숙경이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붉은녹듯하였다.

조그마한 거울속에는 너무나도 큰 숙경이의 희망이 그대로 담겨있었기때문이었다.

이런 숙경이를 예술단에서 불러갔으니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으리라는것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러고보면 숙경이가 타고 내려간 좁다란 립철 길이 곧장 화려한 극장으로 뻗은 전기기관차의 넓은 광궤철과 이어질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숙경이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줄지에 흠어졌다.

(필요하다면야 가야지...)

성길은 껍 몸을 돌렸다. 그는 모든것을 털어버리길라도 하듯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이때였다.

어디선가 귀에 익은 웃음소리가 날아왔다. 성길은 흠칫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귀를 도사렸다. 또다시 바람에 실려오는 한가닥 웃음소리...성길이의 시선은 사슴놀이골 등판으로 정신없이 헤맸다. 그러나 눈에 마쳐오는것은 흰 눈을 수북이이고 서있는 나무들뿐이었다.

성길이는 달려갔다. 그의 발밑에서 눈가루가 날랐다.

웃음소리를 따라 합숙마당앞에까지 온 성길은 처녀들속에 둘러싸여 웃고있는 숙경이를 보았다. 나들이차림의 파란 외투를 입은 숙경이... 이 숲속에서 즐겨입던 그 솜옷차림이 아니었고 손에 쥔 닭알색 들가방도 이 숲과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것이였다.

아마도 작별인사를 하려고 잠시 들렸을테지. 성길의 가슴은 더 쓸쓸해졌다.

그러나 숙경이가 찾아온것만도 고마운 일이었다.

처녀들은 숙경이의 손을 놓을줄 몰랐다. 임아바이며 국흥아바이는 이미 인사를 나눈 모양 얼굴에 웃음을 환히 담고 숙경이를 바라보았다.

처녀들은 숙경이를 놓지 않은채 그사이 그리었던 마음을 쉬임없이 쏟기 시작했다.

《언니, 축하해요. 언니 노랜 듣구 대단했대지요! 하지만 너무해요. 이번 축하공연도 안하구 가겠어요? 난 암만해두 언니처럼 못하겠어요. 해주지요?》

숙경이 팔을 흔들며 어리광을 부리는듯하는 수옥이의 말에 반주라도 하듯 처녀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그러길래 사람은 지내봐야 알구 물은 건너봐야 안다구 하질 않니. 이틀새에 벌써 우릴 잊은 언니가 이제 배우가 돼보지, 우릴 생각이나 하나.》

《아야야, 막 때리네. 언닌 벌써부터 우리가 미운가부지, 호호.》

《애들이 왜 이러니. 그래두 난 너희들이 보고싶어 사슴놀이골에서 넘어왔는데.》

《어마나, 그럼 산을 타고 넘어왔어요?》

그제야 처녀들은 20 리길의 깊은 눈을 헤쳐올 숙경의 수고로움을 알게 되자 손을 잡아준다, 발을 들어본다 하며 어디 얼지는 않았는가고 야단들이였다.

성길이는 숙경이에게 예술단에 갔었던 일에 대

해 묻고싶었다. 그러나 물어보나마나한것을 구려여 까맣혔듯자 공연히 기분이나 잡칠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처녀들의 손에서 풀려나온 숙경이는 임아바이 쪽으로 돌아섰다.

《저 임아바이네 양이 새끼를 세마리나 낳았어요!》

《뭐, 우리 양이?!》

임아바이는 뜻밖의 집소식에 두눈을 놀랍게 치켰다.

《글쎄 어제저녁에 올라오다 우편통신원아바이를 만났는데 임아바이네 양이 새끼를 세마리나 낳았다질 않아요. 그런데 뭐 두놈은 《성별》이 같구 한놈은 《성별》이 다른데 두놈짜리가 암놈인지 수놈인지 그제 까리까리하다는거예요. 그래서 가보았지요뭐.》

《그래서?》

임아바이보다도 옆에서들 더 호기심이 동해난 모양이 었다.

《두놈짜리가 암놈이구 먼저 난 큰놈이 수놈이 더군요.》

《히야! -》

환성이 터져올랐다.

《군대나간 아들은 별을 달았대구 편지가 왔지, 양은 《삼태자》를 낳았다지. 숙경이가 떠날 땐 한상 차려야겠수다.》

《하하...》

또다시 웃음통이 터졌다.

《사실 그제 하루저녁 늦었어요. 어머니가 불잡구 어디 놓아줘야지요. 내가 우리 예술소조책임자 동무한테 비판을 받는다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땐 뭐 임아바이를 내세우라나요.》

《여보게 성길이, 그럼 이번에 저 임령감을 무대에 올리게나, 독창을 시키란말이야. 집의 로친이 노래선수를 붙잡았으니 령감이 무슨 마련이 있을게 아닌가.》

국흥아바이가 이렇게 우스개소리를 하는바람에 처녀들이 손뼉까지 치며 웃어댔다.

숙경이는 가지고 온 가방을 열더니 종이로 꿰꿰 싸서 이름까지 적은 물건들을 꺼내 놓았다. 국흥아바이의 담배도 있었고 대학에 간 수옥이오빠의 편지도 있었고 마을애들의 학습장도 있었다.

《숙경이가 우리 로친보다 낫군. 우리 로친은 늙어가면서 아들딸 생각이 더 커가는지 이제 제 령감같은건 꿈밖이라니까. 숙경이가 아니면 난 한지거던. 산판에 숙경이가 있긴 있어야겠어.》

숙경이가 가져온 러과담배를 피워문 국흥아바

이의 말은 톱소리같았지만 그 속에는 진정이 스며있었다.

숲에 사는 사람들의 살뜰한 인정과 재미가 이런데서 더욱 깊어지는것이였다.

숙경이의 두눈은 행복으로 가득찼다. 그것은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티없이 깨끗한 그런 눈이였다.

성길이는 좀 뜸해진 틈을 타서 숙경이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갔던 일은 어떻게 됐소?》

성길이는 우선 이것을 알고싶었다.

《노렐 잘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두 소문이 대단하던데...》

숙경이는 수집은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숲속도 아니구, 임아바이랑 우리 수옥이랑, 그리구 작업반원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쩐지 노레가 잘되질 않더군요. 호호...》

숙경이는 방금 피려는 꽃망울처럼 웃음을 한입 물고 작업반원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당장 떠나겠는가 하는 성길이의 물음에 숙경이는 웃는 말처럼 그저 지나치는 말처럼 대청산의 나무를 다 베여낸 다음에 떠나겠다고 했다.

이것은 숙경이가 여기 숲사람들의 마음에 미리 그들을 던져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한 말일것이라고 성길은 생각했다. 숙경이가 이제 이 숲을 떠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성길은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텅 비는것 같은 서운한 감정은 어쩔수 없었다.

× ×

숙경이는 어느날 보다 더 일찌기 토장으로 나왔다. 자기의 잔뼈를 키워주었고 아름다운 꿈을 준 정들은 숲과 리별을 한다는 생각때문인지... 그는 말 한마디를 해도 더 살뜰히 했고 웃어도 더 정답게 웃었다.

벌목장에서 통나무를 끌고 토장으로 내려온 성길은 트랙토르를 세웠다. 그러자 숙경이가 달려와 가구용재로 찍어낸 잣나무에서 보기 좋은것으로 골라 꺾은 가지를 트랙토르 시창우에 꽂아주고는 방그레 웃었다. 그리고는 남의 눈에 뜨일가보아 두려워선지 몸을 돌려 토장쪽으로 사라졌다.

시창우에 꽂힌 잣나무가지에서 향긋한 송진내가 운전실안으로 풍겨들었다. 마치도 여기를 떠나면 언제나 숲을 잊지 않겠다고 속살거리기라도 하는것처럼...

성길은 정신이 선뜻 들어 트랙토르에서 뛰어내

렸다.

이 숲속에서 하늘을 제일 넓게 볼수 있는곳이 토장이였다. 길고 비좁은 벌목통로들에서는 푸른 띠를 늘어놓은것 같이 올려다보이던 하늘이 토장에서는 운동장처럼 넓게, 둥글게 보인다. 토장과 잇닿은 상차장에서는 숙경이가 영차(나무싹는 대차)에 실린 통나무를 검척하고있었다. 토장에 가득 쌓였던 통나무가 웬간히 없어진걸 보면 몇영차 종이 실려간것 같았다.

숙경이가 토장에 서있는 성길일 보자 또 방그레 웃었다.

성길은 의미있게 머리를 끄덕여주고나서 토장 작업대우에서 도끼를 잡아들었다. 그는 소뿔처럼 웅이가 삐죽삐죽 달려있는 나무앞으로 다가갔다. 아마도 웅이따기공들이 밑에 깔린 웅이를 미처 보지 못한 모양이였다.

어깨에 묵중한 힘이 실리는 도끼, 손안에 그득차는 도끼자루, 한번 휘둘러볼만도 했다. 성길의 머리위로 번쩍 들리였던 시꺼먼 도끼등이 획 바람을 일구며 먼바로 웅이밑을 내리쳤다. 단때에 떨어져나간 웅이가 아츠러운 비명소리를 지르며 눈무지에 가 박혔다. 뒤이어 멀고 가까운 숲에 마쳐 들려오는 각양한 여음이 토장우에 떠돌기도 하고 긴 꼬리를 끌며 메아리쳐가기도 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배가 하얗고 머리에 흰점이 박힌 쇠박새 한마리가 성길이앞에 와 난딱 앉더니 눈알을 톱톡톡 굴리며 웅이자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성길이 다시 웅이를 내리치자 허연 살점이 붙은 웅이가 삐잉-소리 지르며 허공중에 날았다. 순간 쇠박새는 촛살같이 날아가 도끼밥을 쪼아보더니 도로 제 앉았던 자리에 돌아와 앉아 작은 머리를 가웃거렸다. 아마도 쇠박새는 날아나는 도끼밥을 나비로 안 모양이였다. 쇠박새는 겨울나비는 저리도 굳은가고 또 한번 쪼아보자는 심사인듯 나무껍질에 부리를 닦고있었다.

숙경이가 올라오고있는것을 알아본 성길이는 다시 도끼를 들었다가 내리쳤다.

《성길동무--》

숙경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여무진 소리에 놀라 성길이의 도끼질도 멎고 쇠박새도 숲속으로 달아났다.

《아니 흰 살점이 떨어져나갔군요. 이걸 보세요. 눈물을 흘리지 않나.》

주먹이 들어가게 나무살점이 떨어져 허영계 입을 벌린 웅이자리에서 송글송글 송진이 내뿜었다.

《이렇게 흠집을 내서 되겠어요.》

숙경이는 아쉬워하는 빛을 띠우고 성길을 바라

보았다.

《헛참...》

성길이는 허구프게 웃었다. 그러면서 역시 너자속은 너자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숲에 처음 왔을 때 성길동문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지요.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고 우리 인민의 소중한 재부라고요. 우리 이 숲속에 살지만 우리 마음은 조국땅 그 어디나 안가는데 없다고 했지요. 난 그때부터 글자로는 석자밖에 안되는 통나무라는 말이 것처럼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가깝게 이어져있다는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부엌세간의 작은 칼도마에서부터 집안을 운택하게 하는 이불장과 책장이며 교실마다 가득찬 책상과 결상 그리고 갱목, 팔프재, 건설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깊은 숲속에서 통나무를 베어내는 우릴 생각할게 아니예요. 난 검척을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군해요. 나무의 년륜속에는 숲사람들의 마음이 감기고 그 년륜속에 우리의 노래도 감긴다고요. 그러잖아요?》

숙경이의 목소리는 떨리듯했다.

《네가 오늘 웅이자리 한개때문에 된매를 맞은군.》

성길은 사과라도 하듯 우스개소리를 했다.

《나무를 〈박대〉 하니까 그렇지요 뭐.》

숙경이는 또 방그레 웃는다.

성길이는 숙경이가 내주는 작업실적표를 받아 쥐고 토장을 떠났다. 트랙포트를 물고 올라가노라니 그 웅이자리가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숙경이가 하던 말도 다시 귀전에 들려온다.

워낙 떠나는 사람이란 별치 않은것까지도 귀중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바로 숙경이가 지금 그런 심정일것이다.

그렇지만 성길은 웅이자리를 놓고 그토록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숙경이가 단순히 떠나는 사람의 가룩한 심정만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거기에는 숲에 대한 절절한 그 무엇이 깃들어있지 않는가.

성길은 《자연의 교과서》요, 《산소제작소》요 하는 숲의 대명사를 붙여놓았고 어디 가서도 숲을 자랑하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성길이는 조향간을 틀어친 손에 힘을 주었다. 파란 잣나무잎새들이 무슨 계기의 바늘처럼 시창 유리우에서 부지런히 한들거리고있었다.

쭈우- 세찬 바람이 나무가지들을 마구 흔들어댔다. 트랙포르는 큰 몸을 떨며 나무가지들이 서로 뒤엉켜서 마치도 굴속처럼 컴컴한 가문비나무 숲속을 헤쳐가고있었다.

멀리 벌목장이 바라보였다.

하늘에 장대를 뻗친듯 나무초리들이 까맣게 울려다보이는 밀림속에서 임아바이가 피워올리는 기계톱연기가 자오록이 새어나오고있었다.

《여보게- 이리 오게- 이놈을 담세-》

임아바이는 트랙포트를 보자 소리쳤다.

성길이가 벌목장에 트랙포트를 갖다대자 임아바이가 무릎이 빠지는 눈속을 뛰어다니며 통나무에 쇠바줄을 걸어놓았다.

성길이가 통나무를 끌고 토장을 떠나려는데 임아바이가 다가와서

《여보게, 숙경일 태워가지고오게나. 개가 이 벌목장에 와 앉아만 있어두 힘이 될것 같구만.》 했다.

《아바이두, 숙경이가 가면 어찌겠습니까.》

《글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별로 숙경이에 게 정이 가누만.》

한동안 숲을 바라보며 생각을 가다듬던 임아바이는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웅이가 걸리면 웅일 따준다, 길닭이가 걸리면 길닭이를 해준다, 우리 숲사람들을 살뜰하게 도와주는 그런 체널 어디서 또 구하겠나. 여보게, 한번 실구 오게나. 개 노래 생각이 나서 그러네.》

그러나 성길이는 실무적인 어조로

《아바이, 지금 언제 노래부르고 다닐 때가 됩니까?》

하고 막아버렸다.

임아바이는 하는수없다는듯, 또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것을 후회하듯 담배연기를 후- 내 불었다. 숙경이 가는것이 기쁜 일이라고 한 아바이갈지 않게 서운한 얼굴이었다.

성길이는 벌목장을 떠났다.

통나무를 달고 내려오는 트랙포트가 들출 때마다 숙경이가 꽃아놓은 잣나무가지가 시창우에서 하늘하늘 춤을 추었다.

성길이는 《L지점》이 가까와오자 바짝 정신을 가다듬었다. 《L지점》은 경사지와 낮은목이 이어지는곳이라 하여 성길이가 군사술어를 빌어 그렇게 이름을 달아놓은곳인데 이곳에 있는 샘구멍에서 쏟아져나온 물이 길우로 밀려와서는 얼음판을 만들어놓곤했다.

성길이는 조향간을 더 힘있게 틀어잡았다. 시창 너머 멀리 검스레한 숲속을 배경으로 얼음을 깨내는 숙경이의 움직임이 뚜렷이 안겨왔다. 끝없이 펼쳐진 무연한 숲에 비하면 그밑에 자라는 한그루의 애어린 종비나무라고도 할만치 작아보이는 숙경이가 길을 타고앉아 번들거리는 얼음을 깨내고 있었다.

숙경이가 곡괭이날을 내리칠 때마다 사방으로 튀어나는 얼음조각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평평한 빛을 뿌렸다. 머리를 들어 이마우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추슬러 머리술에 묻어놓고는 또 곡괭이질을 했다. 그러다가는 큰 얼음덩이를 안아다 길아래쪽에 던지기도 하고 길우에 널린 얼음조각들을 삽으로 퍼던지기도 하였다.

숙경이뒤로 숲이 펼쳐졌다.

천년 이끼오른 분비나무가지에 드리워 한가로이 날리는 누런 송라며 갑옷을 입은듯 두터운 껍질을 두르고 근엄하게 서있는 분비나무며 누런 장화를 신고 뿔내듯 시뻘겋게 살이 오른 몸통아리를 번쩍이며 하늘을 떠받든 기둥인양 솟아있는 이깔나무며 하얀 껍질로 몸치장을 하고 새침해 서있는듯한 분나무며...

그 모든것은 얼마나 신비롭고 호화로운것인가.

그리고 온 숲을 통채로 걸터진듯한 숙경의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성길이는 프락포르를 세우고 운전실에서 뛰어내렸다. 숙경이의 마음이 깔린 길우로 그냥 스쳐지날수가 없었다.

《숙경동무! 고맙소...》

이제는 떠나야 할 그 시각까지도 자기 일도 아닌 얼음버캐까지 까주는 숙경이가 성길에게는 무척 고마왔다.

《고맙기야 뭘... 이제 다 우리 일인걸요.》

웬일인지 성길은 가슴이 뿌듯해지며 힘껏 달고 온 나무가 몹시 적은것 같이 느껴졌다.

성길인 숙경이 손에서 곡괭이를 빼앗아들고 얼음을 퍽퍽 까내기 시작했다.

《빨리 내려가세요.-》

숙경이가 성길이 손에서 곡괭이를 앗으려 했다. 그러나 성길이는 더 억척스럽게 얼음을 까냈다. 그는 힘이 진하도록 일하고 또 일하고싶어지는 것이었다.

이때였다.

별목장에서 《숙-경-아》 하고 부르는 임아바이의 웅글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한쪽 손을 채양처럼 눈우에 올려대고 별목장쪽을 바라보던 숙경이가 입에 두손을 오그려대고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쳤다.

잠시 잠잠하였다. 이번엔 임아바이와 한조에서 별목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임아바이가 동물 주겠다고 마가목을 땀소.》

새큼새큼한 마가목열매의 맛은 거울에도 가을의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것을 숙경이는 알고있었다.

《네에- 이제 올라가요.》

숙경이의 목소리가 울려가자 별목장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숙경이는 그 목소리에 끌리우듯 길도 나지 않은 숲길로 뛰어들었다. 허리치는 눈속에 쑥 빠져 키가 작아졌다가는 또다시 키를 솟구고는 호호 웃어댔다. 진대나무에 걸려 눈에 온몸을 파묻었다가는 다시 일어나 흰 눈사람이 되어 그냥 뛰어갔다. 이제는 숙경이의 모습은 흰눈우에서 파란 점으로 가물거린다.

성길이는 그냥 곡괭이를 휘둘렀다. 그러나 바람을 타고 별목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있다.

《자- 눈우에서 땀 마가목값에 노래 한곡조요!》

뒤이어 박수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졌다.

《노래 한곡에 통나무 한립방씩을 더 찍어내겠어요?》

숙경이의 정찬 부르짖음소리도 날아온다.

《거야 못하겠나. 노래값이 너무 녹지 않을가. 마가목도 주구 나무도 더 할테니 온종일 노랜 불러주겠나?》

《호호...》

《하하...》

별목공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한데 합쳐 울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도 그 어떤 즐거운 노래처럼 들려왔다.

성길이는 곡괭이자루를 깔고 앉아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별목장쪽을 바라보았다.

별목기계톱에서 뿜어나온 재색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오르던 별목장에서 숙경이의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사시장철 변함없이 설레이는

푸른 숲 네 모습이 언제나 좋아

여기서 청춘을 고이 바치며

조국에 통나무를 섬기여가리

아 통나무 가는곳에 마음도 가네

그 청아한 목소리는 나무잎에 맺히어 구슬처럼 반짝이는 숲속을 조용히 어루만지는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숲속의 정가로운 온갖 향취를 모아다가 멀리 또 멀리로 휘뿌리는것 같기도 하였다.

그 노래소리는 바람에 실려 간간이 사라져가다 가는 또 손에 잡힐듯 가까와지기도 하면서 성길이를 승업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끝없이 이끌어갔다.

숙경이의 노래에는 숲속의 모든것이 깃들어있

었다.

그 노래에는 흰눈우에 그림자를 끌며 꾸물꾸물 기여가는 불무지의 재빛연기며 숲사람들의 아침이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는 로장도 나왔고 림철대차에 실려간 통나무가 기차에 실려 조국땅 여러곳으로 떠나가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노래에는 불무지앞에 모여앉아 흥에 겨워 이야기판을 벌리는 숲사람들도 나왔다. 통나무를 제끼고 년륜을 세여보고 자기의 나이에다 몇배나 더 되는데 놀라는 벌목공청년의 이야기, 통나무를 끌고 내려 오는데 곱이 길에 틀고앉아 프락포르와 힘내길 하 자고 앞발을 쳐드는바람에 눈이 뒤에가 붙을번한 운전수 일화... 그리고 노래는 마을로 번져서 참나무김치를 잘 담그는 인심후한 아주머니며, 군문답식학습경연에서 일등을 한 림산마을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이야기가 노래로 되어 사람들의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그러고보면 토장으로 난 외줄기길은 좁아도 그 길은 조국과 잇닿은 크나큰 길이 아닌가.

성길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잘 가라 처녀여! 이 숲을 언제나 잊지 말라!)

성길이는 프락포르에 올랐다. 자리를 뎀 프락포르의 뒤에 뽕양게 눈가루를 달고 내달렸다. 그것은 이 숲에서 처음 보는 속도였다.

× ×

숲속으로 아침빛이 줄기줄기 스며들었다. 흰눈을 덮고 깊이 잠들었던 숲은 거세차게 숨을 쉬며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축하모임날로 정한 일요일이 왔던것이다.

예술소조원처녀들은 아침부터 서둘렀다.

처녀들은 밤을 새워 정성껏 꽃다발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자기 취미에 따라 목란꽃다발도 만들었고 진달래나 초롱꽃다발도 만들었다.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다만 섭섭하다면 꽃다발이 향기 풍기는 생화가 아닌것이였다. 겨울만 아니었던들 숲속의 정기를 안은 들꽃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길이는 관통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예술소조원들을 불렀다. 이제 그들은 오전에 축하모임공연을 끝내고 그길로 사향샘골과 구름골을 거쳐 물바위골로 가야 하는것이였다.

예술소조원들은 함숙으로 다 모여들었으나 숙경이만은 웬일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 갔을가?)

숙경이가 주역을 담당하고있기때문에 그가 없으면 관통연습을 할수가 없다.

《숙경동물 못봤소?》

초조한 마음을 다잡지 못한채 창밖을 내다보던 성길이는 처녀들을 둘러보려 물었다.

《아까 사업소쪽으로 내려가던데요.》

키가 작은 헤림이란 처녀가 눈이 울롱해서 알려주었다.

《거긴 왜?》

《로임부에서 전화가 왔댔어요.》

《로임부?!...》

(그렇구나!)

성길은 무엇인가 배반당하는듯싶은 허전한 감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못박힌듯 한자리에 서있었다. 열오른 눈길을 창밖으로 던지니 저멀리 숲이 우거진 사이로 사업소로 가는 외가닥길이 눈에 밝혀온다. 저 길로 숙경이가 갔을것이다. 그가 떠나리란것을 모르는바 아니었으나 정작 숙경이가 로임부에 수속때문에 갔을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의 안정이 흐트러지는것이였다.

《야- 언니두 참, 마지막 공연만이라도 해주고 갈게지-》

울상이 된 수옥이 야속한 심정을 금할수 없어 종얼거리는 말이 성길의 허전한 가슴에 더욱 키질을 했다. 그는 숨을 씨- 하고 크게 내쉬었다. 섭섭했다. 이렇게 매정스럽게 가다니...

그는 마음을 다잡고 수옥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합시다. 아무래도 수옥동무가 주역을 맡아야겠소.》

《네?! 제가요?》

《그렇소.》

하고 성길은 힘을 주어 당부하듯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저녁에 숙경동무가 오더라도 낮빛을 흐리지 마오. 아무래도 갈 사람인걸 서운하게 할 필요야 있소.》

그러나 예술소조원들의 흐린 낮빛은 좀체로 가셔지지 않았다.

화음이 잘 맞지 않아 몇번 곱씹어 반복했으나 음도 여전히 고르롭지 못했고 활기도 없었다.

《오늘은 왜 이렇소? 똑바로 정신을 차리란말요.》

성길은 저도모르게 성난 눈으로 처녀들을 흘겨보며 소리질렀다.

할수록 분위기는 더욱 같았다.

(제길, 갈 땐 가더라도...)

숙경이 오더라도 낮빛을 흐리지 말라고 수옥에게 당부한 그였건만 둔탁한 음향이 빠져져나올때면 성길은 저도몰래 화가 나서 숙경의 처사에

나무람이 갔다.

이럴 때였다.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울리더니 누군가 숙경이가 노루를 잡아왔다고 떠들었다.

(영?!)

모두들 밖으로 우르르 밀려나갔다. 성길이기도 밖으로 뛰쳐나갔다.

임아바이가 노루의 다리를 매만지며 가문비송진을 발라주고있는데 숙경이 그옆에 서서 근심에 잠긴 얼굴로 그 모습을 긴장해서 지켜보고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성질이 숙경에게 다가가 물었을 때에야 그는 고개를 들어 저으기 미안한 기색을 지었다.

《미안해요. 얼른 갔다온다는 노루이 그만 노루 때문에...》

《노루 어디서 잡았소?》

《글쎄 구릉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다리에 난 구멍으로 떨어지는걸 보고 달려갔는데 그만... 누가 다리를 그렇게 찼는지, 이 숲에 사는게 아마 우리들만인줄 알았던 모양이지요?》

노루다리를 쳐매주고있던 임아바이가 힐끗 숙경을 쳐다보고는 감심한듯 고개를 끄덕였다.

《갔던 일은 제대로 됐소?》

성길은 속심을 감추고 부러 레사로운 어조로 물었다.

《네.》

《음.》

성길은 입을 다물었다. 짐작이 틀림없다.

(가는구나!)

그는 자기의 이런 심정을 숙경이가 눈치챌까 저어하듯 얼른 노루새끼에게 눈길을 돌렸다.

《어때요? 일없겠어요?》

임아바이에게 돌아선 숙경이가 다시금 근심스런 낯빛을 짓고 조용히 물었다.

《일없다. 가문비송진을 발랐으니 한 사날 치료하면 되겠다.》

대번에 얼굴빛이 밝아진 숙경이는 좁다란 노루불파귀를 톡톡 다독여주며 《어미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빨리 다리를 치료해서 숲으로 보내주세요.》 했다.

마치도 숙경이는 기쁘고 즐거운것 이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소녀애같았다. 웃음이 한가득 실린 그 얼굴을 보느라면 저도모르게 마음은 깨끗해지면서 즐겁고 기쁜것으로 가득차지는것이였다.

얼마후 처녀들은 떠들썩 떠들며 연습장으로 들

어갔다.

노루를 안고 일어서던 임아바이가 빙금 떠나려는 성길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임자 숙경이 말을 들었지?》

《예?》

《이 숲에 사는게 우리들만인줄 아느냐구...》

임아바이는 더욱 심중한 낯빛이 되어 품에 안은 노루를 풀어주었다.

《명심하라구. 뭐니뭐니 해도 사람이란 마음이 중한거야.》

로인은 뜻깊은 말마디를 던지고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노루에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했다. 미처 너희들을 생각지 못했구나!》

성길은 한동안 못박힌듯 서서 앞서가는 임로인의 뒤모습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합숙은 공연준비로 들끓었다. 처녀들은 임아바이를 둘러싸고 떠들썩했다. 임아바이는 책상우에 쌓아놓은 잣나무가지를 하나 골라냈다.

《자, 우리 숙경이가 <발명>한 잣나무꽃다발일세, 얼마나 훌륭한 꽃다발인가를 좀 보라구.》

임아바이는 잣나무가지를 처녀들의 눈앞으로 바싹 가져갔다.

《자 보라구. 한손에서 잎이 다섯개씩 돋은 솔잎은 오각별이라는 의미요. 그리고 암꽃과 수꽃이 한나무에서 피는게 잣나무니까 것처럼 다정하고 뜨거운 의미에서 준다는 뜻이 있구 그리구...》

옛말이라도 하듯 줄줄 엮어내려가던 아바이는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리구요 아바이...》

성미 급한 처녀들은 그 눈깜박할 짧은 순간도 견디기 어렵다는듯 아바이를 독촉했다.

《그리구 사철 변함없이 푸르니까 뭘겠나. 이견 변심을 모르고 젊음에 넘쳐 자송이처럼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지. 자, 잣나무꽃다발이 어떤가?!》

《야. 정말 훌륭하네.》

처녀들은 일시에 한성을 올렸다. 처녀들은 성길앞에다 잣나무가지를 흔들며대며 잣나무꽃다발이 생겼다고 떠들어댔다.

그때 성길이에게는 숙경이가 프락프르시창우에 꽃아준 잣나무가지가 생각났다. 그리고보면 성길이는 이 숲에서 제일 선참으로 잣나무꽃다발을 받은셈이였다. 성길의 가슴은 후터워났다...

관람석으로 정한 토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콕 차있었다. 벌목공들속에 끼여앉은 마을에서 온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의 얼굴들도 보였다. 지어 마을아이들까지 《총동원》해서 올라왔다.

드디어 축하모임이 시작되었다. 예술소조원처녀들은 혁신자들에게로 달려가 잣나무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숲을 통채로 묶어만든것 같은 향기로운 잣나무꽃다발을 받아안은 혁신자들의 얼굴은 금지로 빛났다.

혁신자들의 이름도 불리워지고 공연종목도 바뀌어 어느덧 숙경이의 독창순서가 되었다.

숙경이는 얼굴을 붉힐사해서 사람들앞에 나섰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듯 키를 솟구기도 하고 앓음새를 고치기도 하며 박수를 보냈다.

숙경이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귀기울인다. 숲도 잠잠히 노래를 듣고있는듯...

찍어낸 통나무를 바래울 배면
가슴속에 안겨오는 생각도 많아라
우리 일터 천고밀림 깊이 있어도
통나무 가는곳에 마음도 가네
아 조국의 넓은 품을 한가슴에 안고 사네

박수소리, 재청을 부르는 늙은이들의 고향소리... 사람들속에서 임아바이가 튀어나오며 잣나무꽃다발을 숙경이에게 안겨주었다. 박자를 맞추는 박수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숙경이는 또다시 사람들앞으로 나왔다. 그의 입가에는 행복스런 미소가 한껏 피어났다. 숲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천번이라도 만번이라도 노래를 부르겠다는듯이 그리고 거기에 바로 생의 희열이 있다는듯이...

축하모임은 대성황리에 끝났다.

흥분으로 한껏 들뜬 성길이는 숙경이앞으로 달려갔다.

《숙경동무, 고맙소.》

성길이는 숙경의 손을 힘껏 잡아흔들었다.

《우리의 공연을 훌륭하게 장식해주어 고맙소.》

성길은 그 다음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어떻게 감사를 주었으면 좋을지...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어설픈퍼보이는 눈송이들이 부나비처럼 너울거리며 나무가지우에도, 땅우에도 살그머니 내려앉았다.

예술소조원들은 소도구들을 싣다, 스키를 가져온다 하며 다음 공연장소로 떠날 차비를 하고있었다. 이제 그들은 사향샘골 토장으로 가야 한다.

《언니! 빨리 스키를 타요!》

수옥이는 숙경이앞에 스키를 가져다놓았다.

성길은 못볼것을 본 때처럼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이제 숙경이야 떠날 사람이 아닌가.

스키를 신은 숙경이는 허리를 폈다.

《성길동무가 스키를 배워주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숙경이는 흘러간 나날을 더듬어보듯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속삭이듯 말했다.

《그때 성길동문 나에게 스키를 못배우겠으면 노래를 걸어치우라고 했었지요. 그 말이 우리 노래가 숲사람들에게 것처럼 귀중했기때문에 한 말이었다는것을 난 후에야 알게 됐어요》

성길이는 스키런습을 하다 발목을 욱질려 눈우에 앉아 아무래도 스키만은 못배울것 같다고 울먹거리던 숙경이 모습이 되살아올랐다. 숲사람들을 언제나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던 그때의 일들이...

《이젠 우린 떠나겠소. 숙경이, 잘 가오!... 가면 이 숲을 잊지 마오!》

성길의 목소리는 서운하게 그러나 힘있게 울렸다.

숙경이는 잠시 숙이고있던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의 두눈이 번쩍했다. 그것은 서러움이었던지 아니면 노여움이었던지...

《성길동무! 우리가 늘 책에서 배웠고 입버릇처럼 외우곤하는 참된 보람은 크고 화려한데만 있는게 아니지 않나요. 난 그 참되고 아름다운것은 이 숲속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숙경이의 목소리는 정중하게 울렸다.

《난 예술단으로 갈수도 있었어요. 가고싶기도 했지요... 그러나 우리 노래가 숲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그들이 나무 한대라도 더 찍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또 그것이 참된 보람이라면 난 영원히 이 숲속에서 살겠어요.》

《아니, 그럼 로임부에 갔던 일은?...》

《출장 갔던 사람이 오빠를 만나고 왔더군요. 책을 가져왔다기에...》

그리고는 숙경이는 몸을 날려 스키지팡이를 짚었다. 스키밀에서 일어나는 뽕안 눈가루가 그의 허리를 휩싸며 마치도 구름에 실린듯 산아래로 쏜살같이 미끄러져내려갔다.

그제야 비로소 성길은 정신을 차렸다.

《숙경동무! 같이 가가요.》

기쁨으로 빛어놓은듯한 성길이 목소리는 숲속을 흔들었다

숲속에 눈보라가 뽕얇게 서렸다. 스키행렬이 산을 타고 흘러내리고있었다.

《우리 예술소조가 온다!》

사향샘골토장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맞아줄것이다.

다시 본 모습

설진기

1

그것은 내가 청단기계공장 설계실장으로 간지 한달밖에 되지 않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방금 주사업총화모임을 끝내고 실장실로 돌아온 나는 결상에 앉을 생각이 없어 담배를 피워물고 창가에 서있었다.

창밖으로는 구내운동장과 가공직장건물들이 석양의 불그스름한 빛발속에 그림처럼 펼쳐져있었지만 초점을 잃은 나의 눈에는 어느 한 물체도 선명히 안겨오지 않았다. 나는 담배를 깊이 빨아서는 한숨쉬인 연기를 내뿜곤하였다. 창유리에 부딪친 담배연기는 놀란듯 둥그렇게 확 퍼지며 눈앞의 모든것을 몽롱하게 흐려놓는다.

(사람들의 얼굴표정이 왜 그러했을까?) 나는 모임과정에 생겨난 이 의문에서 좀처럼 헤여날수가 없었다.

사실 오늘 회의는 비록 한주일동안의 사업총화이긴 하여도 내가 일을 시작한 뒤의 첫 모임이니 만큼 아무쪼록 좋은 인상을 남기여야 할것이었다.

그래서 각별히 품을 들어 총화준비 했었다. 보고에서 결함은 될수록 지적하지 않고 우점에 대해서는 자그마한것도 빼놓지 않았다.

그런데 한창 열을 올려 말하던 나는 《쿵-!》하는 코기침소리에 문득 소리를 죽이였다. 갑작스러운 그 코소리는 나의 목소리를 가리울만큼 높은 것이여서 누구나 그 소리의 입자에 대하여 생각하지않을수 없게 했다.

나는 그 소리의 입자가 김찬식기사임을 알아맞혔다. 그자신이 자기의 코소리가 무례하게 느껴졌던지 놀란듯 이쪽을 바라보다가 나와 눈길이 마주치자 얼른 피하는것이였다.

나는 더 개의치 않고 보고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이 리영달동무는 언제나 부지런하고 책임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살펴보던 나는 기대와는 정반대의 얼굴표정을 발견하고 저으기 놀랐다.

설계원도 사도공도 모두가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로 창밖에 눈을 판거나, 책상위에 눈길을 떨구고 제도연필을 주무르거나 했다. 보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듯. 아니,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그

어떤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에 잠긴 표정이라고 보는게 정확할것 같았다. 한 사도공처녀는 입귀가 실그러져 마치 비웃는듯한 표정이었다.

다만 방금 칭찬을 받은 리영달기사만은 어색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흐뭇해하지도 않고 보고자인 나만을 똑바로 바라보는데 그의 태도는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을 듣고있는듯한 태도였다.

그러나 영달기사의 점잖은 태도도 흐려진 나의 기분은 돌려세우지 못하였다. 나는 지못게 달라붙는 그 의문부호때문에 말을 떠들거리기까지 하였다.

보고를 끝내고 자리에 앉은 나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보고에 대해서 물어볼것이 없습니까?》

《.....》

질문이 많을것을 예견하고 방안을 둘러보았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인상적인 코기침소리의 입자였던 찬식기사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고있더니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것처럼 수첩에다가 무엇인가를 급히 적어넣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치였다. 《의견이 있는것은 토론에서 제기해주시시오.》

나는 마주앉은 사랑들의 얼굴을 어쩔수없이 살펴 피게 되었고 그럴수록 의혹은 짙어갈뿐이었다.

이윽하여 리영달기사가 움쭉 일어서더니 토론요지가 적힌 종이를 펼쳐들었다. 나는 늦어진 기차를 맞이하는듯 반가웠다.

영달의 토론은 류창하고 열정적이였다. 비록 말이 긴데 비하여 기록할만한 자료가 적은것이 유감스럽기는 하였지만 따분하던 모임분위기를 대뜸 돌려세워준것이 고마웠다. 영달은 앞으로의 결의에 대해서만 말했고 의견은 없었다. 비판도 충고도 하지 않았다.

영달기사가 앉은 다음 토론자는 더 없었다...

(의견이 많은것 같던데 웬 일일까?)

모임과정을 더듬으며 결론을 찾으려고 애쓰던 나는 담배재가 길게 앉은것을 보자 창가에서 돌아섰다. 재떨이를 찾아 팔을 뻗치며 나는 생각을 계속했다.

(의견이 있다면 어떤 의견일까? 혹시 설계원들의 사업평가가 잘못된게 아닐까?)

나의 생각을 깨뜨리며 옆방으로 통하는 나들문이 푹푹 울리었다.

《예- 들어오시오.》

들어서는 사람은 김찬식기사였다. 그의 손에는 자그마한 공책이 들려있었다.

《벌써 다 세웠소?》

나는 비로소 자리에 앉으며 그가 내미는 공책을 받아들었다. 총화모임을 끝맺으면서 오늘중으로 모두들 사업계획서를 수표받으라고 했더니 벌써 가져온것이였다.

나는 그에게 의자를 권하였으나 찬식은 초조한 기색으로 그냥 서있었다. 채차 권해서야 그는 조심스럽게 걸상귀에 걸터앉았다.

나는 그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훑어보았다. 작달막하나 다부진 몸매에 검실검실한 얼굴의 건장한 청년, 이마가 두드러져 눈확이 깊어보이는 이 사람의 가슴속에는 남모르는 비밀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듯한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나는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볼 작정으로 《가만, 동무네 집이 어디 있다고 했더라?》 하고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담화를 시작했다. 담화는 오래 계속되지 못하였다. 한마디를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하는것이어서 두세마디를 건늌는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되고말았던것이다.

나는 그가 총각이라는것외에 별로 알아낸것이 없었다.

나는 그가 가져온 계획서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한달 사업계획서요?》

계획서가 한페이지밖에 안되는것이 마음에 차지 않아 나는 따지듯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주 떳떳하였다.

《하기야 한해계획을 몇줄에 담을수도 있지. 그러나 계획이란 구체적인일수록 좋은 법이요.》

나는 계획서를 훑어보았다. 나의 눈길은 《자동 측정장치 설계완성》이라는곳에 가서땀었다. 나는 놀래여 그를 쳐다보았다.

《이걸 정말 한주일안으로 해낼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 이 설계를 보름기한으로 맡길 작정이였었다.

찬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모욕을 당한 사람처럼 얼굴을 붉히는것이였다.

나는 미안스러워져서 열린 만년필을 잡았다.

《중소! 해봅시다.》

나는 계획서 웃머리에 뚜렷하게 수표를 했다. 계획서를 돌려주며 나는 그에게 물었다. 모임에서 사람들이 왜 토론에 많이 참가하지 않았을가고.

찬식은 입술을 우물우물하더니

《난 뭐... 그런덴 신경을 쓰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고 뜨덤뜨덤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꼭 할말이 있는 사람같은데?... 이상하군.)

찬식기사가 나간 다음 나는 말동무를 구하듯이 담배갑을 찾아들었다.

담배연기를 후-내뿜으니 한발이나 되는 거대한 회색 물부리가 내 입에 물려있는것처럼 보였다.

(가만있자. 모임때 분위기가 이상스러워진것은 내가 영달기사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부터가 아니었던가?...)

범이 제소리하면 온다더니 때마침 리영달이 들어왔다. 그는 우두커니 담배를 빨고있는 나를 여겨보더니 웃음띤 목소리로

《난 또 아무도 없다구요? ...》 하며 문열에 있는 전등여닫이를 돌렸다. 전등이 켜지자 유리창밖은 갑자기 밤이 다뵈듯 어두워보였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본 나는 담배불을 비벼끄고, 태연히 자리에 와서 앉았다.

리영달은 깨끗하게 정서한 문건을 책상우에 내놓으며 손으로 입가리고

《글씨가 변변치 못해서--》 하며 퍼그나 미안해했다,

《뭘, 그만하면 보기 좋구만.》

사실 그의 글씨는 괜찮았다. 눈같이 흰 종이에 네모반듯하게 줄간을 긋고 먹으로 한자한자 박아 쓴 그의 사업계획서는 누구나 얼핏 보면 문건인 줄로 알것 같았다. 중요한 지표와 부차적인 지표를 첫눈에 가려볼수 있도록 글자의 크기를 알리게 한것이라든가, 색원주필로 알뜰히 별, 주별 구분을 해놓은것이라든가, 매 설계대상의 세분도까지 날자를 박아놓은것이라든가... 도 설계원다운 섬세성과 성실성이 대뜸 안겨오는 계획서였다.

오래동안 설계부문의 일을 해오면서 나는 이러한 섬세성과 정결성은 훌륭한 설계원의 주요한 표징의 하나라는것을 보아왔었다.

흐리터분하던 나의 기분은 어느정도 밝아지였다. 언제나 은근한 미소가 어리여있는 영달의 인상좋은 얼굴을 대하니 더구나 머리가 거뜬해지는 듯싶었다.

영달은 내가 구태여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스스로없이 마주앉았다. 그리고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담배갑을 바라보며

《설장동지, 한대 피워도 좋겠습니까.》하고 묻는데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허물없는 사이라는듯이 한대 빼물었다.

나는 책상우에 올려놓은 그의 팔을 툭 치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데, 이것 보오. 열처리로 설계를 좀 앞당길수 없을까?》

계획서를 따져본 나의 물음이었다. 영달의 경우에는 내가 예견했던 날자보다 더 늦은감이 있었던 것이다.

영달은 어째서인지 오른손으로 입을 막으며 대답했다.

《완전하게 하자면 품을 들여야지요.》

(완전하게 한다-) 나는 그 태도가 성실한것으로 느껴지며

《좋소!》 하고 시원스럽게 수표를 했다.

《그런데 동문 이발을 앓는게 아니요?》 하고 나는 걱정스레 물었다.

《예?...》

《입에 손이 자주 올라가기에...》

영달은 이번에도 손을 올리려다가 도중에서 중지하며 말했다.

《버릇이 돼놔서...》

그는 얼굴이 불길해지더니

《이렇게 마주앉아 이야기하다가 혹시 실례되는 일이라도 생길것 같아서》 하는데 과연 어쩔수 없는 습관의 힘은 그의 손을 어느새 턱밑까지 끌어올렸었다.

《!》

나는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무심결에 나는 바지주머니에 오른손을 찔렀는데 부드러운 손수건이 만져졌다. 어제밤에 깨끗이 빨아서 넣었던 손수건 이-

《저- 영달동무...동무한테 좀 묻지요.》

나는 총화모임때의 분위기를 두고 찬식에게서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이 사람한테서 풀고저 진지하게 물어보았다.

했건만 영달은 오히려 눈을 빨며 나무라는것이였다.

《원, 별걸 가지구 신경을 쓰시누만요. 온전치 못한 의견이길래 말못하겠지... 의견이야 있을수도 있는게구, 어떻게 그 술한 사람의 마음을 다 맞추겠습니까.》

《.....》

나에게는 그의 대답이 어떤지 섭섭하였다.

2

나는 월사업계획에 리영달기사와 김찬식기사와의 사업을 중요하게 박아넣었다.

이 두 기사는 그리 크지 않은 이 공장의 설계실에서 년한으로 보나 급수로 보나 가장 주목되는 인물들이였다. 그러므로 이 두 기술자를 어떻

게 발동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설계실의 전반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것을 나는 뒤늦게나마 판단하였던것이다.

그들에게 맡긴 설제도 아주 중요한 대상이였으므로 나는 설계실에 들어갈 때마다 두 기사의 제도판에 각별한 관심을 두었다.

대체로 영달의 설계가 더 앞서나가고있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았다.영달은 언제 봐도 제도판에 붙어있는것이였다.

그는 점 하나, 선 하나 그리는것은 매우 심중하게 대하는것 같았다. 그의 제도판가까이에 놓여있는 책상우에는 목침같이 두툼한 참고서적들이 고정비품처럼 놓여져있는데 영달은 수시로 그것을 들여다보곤하였다.

한편 김찬식의 설제도 속속 진척되고있었다. 공기식으로 한 자동측정장치의 설계는 비교적 우수한 편이였다.

(실력은 괜찮은것 같은데...)

불만스러운 점은 찬식이가 자주 자리를 비우는 그점이었다.

찬식기사가 어디로 갔느냐고 사도공에게 물으니 가공직장으로 내려갔다는것이였다. 세번이나 물었었는데 공교롭다고 하면 좋을는지 매번 그곳으로 갔다는것이다.

(무슨 알아볼 문제가 있다더니 그때문에 또 갔을가?)

이럴줄 알았더라면 내막을 더 알아볼걸 그랬다는 후회가 났다.

본인에게 캐묻지 않고 나는 그 내막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방금 한소나기 지나가고 칠색령룡한 무지개가 가공직장지붕우에 높이 떠있던 어느날 저녁녘이였다.

가내작업반에 다니는 나의 고모가 뜻밖에 사무실로 찾아왔다.

이고장에 도착한 이튿날, 인사차로 잠깐 얼굴을 내보였을뿐, 놀려 가겠노라는 약속이 여태껏 빛으로 남아있는터이라 나는 미안스러운 얼굴로 고모를 맞았다.

아닐세라 고모는 정겨운 지청구를 한참 털어놓더니 정색을 하며 말하였다.

《이사람, 내 한가지 조용히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네. 자네야 실속있는 말을 해주겠지.》

이렇게 말쑥지를 뻔 고모는 나들문쪽을 한번 돌아보고나서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것처럼 소곤소곤 캐묻는것이였다.

《여기에 김찬식이라는 총각기사가 있지?》

《그 사람이 우리 영순이하구- 말이 좀 있어서-》

《예?!》

나는 결상등반이에 몸을 실으며 천장을 쳐다보았다.

(음, 그랬었구나- 그래서 뻔질나게 가공직장으로 다니었군.)

《아니 왜 그러나?》

고모는 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겁에 질린듯이 물었다.

《예, 내 좀 생각되는게 있어서...》

《사람이 시원치 못한가?》

고모는 눈이 둥그래서 바짝 다가왔다.

영순이로 말하면 고모의 외동딸이었다. 가공직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고있는 그 애는 인물이 누구에게 못지않고 일숨씨 여무진데다가 마음씨 또한 고와서 먼 친척벌 되는 나도 은근히 자랑으로 여겨오는터였다.

《고모, 내 좀 알아봅시다.》

고모는 팔을 늘어뜨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알만하네... 그 애보고 싹 베어버리라고 해야겠군.》

나는 벌떡 일어서려는 고모를 붙잡았다.

《아니? 내가 언제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합니까?》

《알아보자는 소리야 나쁘다는 소리지 제 데리고 있는 사람을 몰라서?!》

《허참...》

말이 막힌 나는 웃어버릴수밖에 없었다.

고모는 늘어뜨렸던 팔을 탁상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럼 언제까지나 알아보게 되는가? 쫓쫓, 난 하루도 마음을 못놓겠는데.》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답니다. 진정하고 가계시오. 내 이제 소식을 전하리다.》

고모는 기분이 돌아서기는 했으나 찾아올 때와 같은 활기는 없었다.

《그럼 난 자네만 믿고 가겠네. 그 애한테도 덤비지 말라고 놀려놔야지!》

문쪽으로 걸어가던 고모는 중요한 말을 빼놓은 듯 급히 돌아서며

《자네가 이곳에 배치된게 천만다행일세!》 하고 덧붙이었다.

(허-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군.)

이날 저녁, 기사장실에서 있었던 긴급회의를 필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나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설계실에서 혁신을 일으켜 가공직장의 자동흐름선설계를 빨리 완성해야겠다는 불같은 독촉이었다.

(설계력량이 아무래도 결렸거던... 모든 설계원

들이 영달기사만큼 열성이 높았으면 문제 없겠는데...)

사무실복도에 들어선 나는 설계실창문에 아직도 불빛이 휘황한것을 보자 밤길에 길동무를 만난듯 반가웠다. 누가 아직도 안들어갔을까?

이미 불이 꺼진 여느 부서들을 지나 설계실 문앞에 이른 나는 걸음을 슬며시 멈췄다. 안에서 떠들썩한 말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악어가 아가리를 찍 벌리면말이야. 그놈의 새는 난작 날아들어 그 들쭉날쭉한 이발사이에 끼워있는 고기점을 뽑아낸다는거야.

말하자면 악어의 담당 치과의사면서 충실한 종북이거던... 하하.》

영달의 청청한 목소리에 이어 무슨 우스운 흉내를 냈던지 너자들의 웃음소리가 창문으로 쏟아져나왔다.

아마 영달이가 세계동물영화의 한 장면을 자기식으로 가공해서 이야기하는 모양이었다.

웃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설계원이라곤 영달이밖에 없었고 요즈음 새로 들어온 나어린 사도공처녀들이 여러명 있었다.

영달의 제도판을 반달처럼 둘러싸고앉아 잡담에 정신을 팔고있던 처녀들은 나를 보자 벌떡벌떡 일어들었다. 나는 그들더러 일어나지 말라고 손짓하며 영달이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영달은 당황한듯한 표정이 되며 서둘러 제도연필을 쥔다는것이 그만 놓쳐버리었다. 연필은 마른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심이 부러진 연필은 메뚜기처럼 나의 발앞으로 튕겨왔다.

나는 그에게 연필을 집어주며 룡담조로 한마디 건넸었다.

《이야기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나도 문밖에서

한바탕 웃었소.》

영달이가 지내 당황하는것을 보니 오히려 내쪽에서 미안스러워졌던것이다.

영달은 말없이 웃으며 제도판쪽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나도 그의 제도판을 얼핏 들여다보게 되었다. 설계는 별로 뚜렷한 전진이 없어보였다. 아침에 보았던 선들과 치수들을 거의 그대로 알아볼수 있었다.

나는 의혹을 애써 감추고 다른 제도판들도 한바퀴 돌아보았다.

김찬식의 제도판앞에 이른 나는 신경이 곤두섰다. 본래의 실체는 종적을 감추고 완전히 다른 설계안이 덩그러려 붙어있는것이다. 본래의 설계는 공기식이였었는데 새것은 전기식이였다. 이미 하

던 설계는 어떻게 했을까? 그게 괜찮았는데 왜 형식을 바꾸었을까? 한주일안으로 해내겠다고 결의하더니 오늘이 바로 그 한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본인이 있었으면 추궁이라도 하겠으나 찬식은 집에 불일이 있다면서 제시간에 퇴근했었다.

《이 동무가 왜 설계를 바꾸었는지 모르겠소?》

《글쎄요. 나한테 〈보고〉 하지 않으니 어디 알겠습니까.》

영달은 반죽종게 룡담을 했다. 그는 나와서 거리가 어지간한데도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때의 그의 손은 마치 방송원의 휴대용마이크와 흡사했다. 나는 일론 낯을 돌려버리었다.

《실장동지, 합숙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뭐, 괜찮소.》

《경리과에 알아보니 해안사택에 집이 하나 난답디다.》

《그래?!》

《내 단단히 말해놓긴 했는데. 소뿔은 단김에 뽑으셨다구 제격 집이다 전보를 날리십쇼.》

《걱정해줘서 고맙소!》

나는 어느덧 마음이 누그러졌다. 시계를 내려다본 나는 밤도 깊었는데 인젠 들어가 쉬라고 그에게 권하었다.

영달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뭐 벌써... 실장동지 먼저 들어가보십시오.. 전 이게 나빠서...》 하고 고개짓으로 제도판을 가리키었다.

사도공들을 보내고난 다음 나는 혼자 남을 영달을 미덥게 바라보았다.

《그럼 마저 수고하십시오. 난 먼저 들어가보겠소.》

《예.》

그는 나를 내려우려고 일어섰다.

문턱을 넘어서던 나는 아무래도 안되어 《너무 오래 있지는 마오.》 하고 이르고서야 설계실을 나섰다.

나는 퇴근길에 찬식의 집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요즘 찬식기사의 얼굴색이 좋지 못했었다. 혹시 앓아눕지나 않았는지 걱정도 되었다. 그의 가정형편도 알아볼겸 설계를 바꾼 이유도 알아보고 한시바삐 방향을 잡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 층에 있는 기술과장실에 들렀다가 내려오던 나는 설계실앞에 이르러 그만 아연해졌다.

빛을 지내 받은 사진필름마냥 시꺼먼 유리창... 방금전까지 휘황하던 그 창문...

(퇴근하지는 않았겠는데?... 전등이 고장났

나?...)

하나 설계실안은 언제 사람이 있었느냐싶게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현관등아래 멍하니 서있던 나는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15 분! 영달이와 헤어진 때로부터 고작 15 분이 흘렀을뿐이다.

《...먼저 들어가십시오. 전 이게 바빠서...》

영달이가 하던 말이 귀전을 울릴 때 나는 모욕을 당한듯 얼굴이 뜨끈해났다.

(내가 과연 사람을 잘못 보았던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설계실에 들어갔을 왜 영달이 별스레 바빠하던 일도 돌이켜보게 되었다.

《아니야, 다른 그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나는 영달을 믿었다. 내가 알고있는 영달기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다. 나는 순간 이나마 그를 오해한 자신을 비난하며 걸음을 힘차게 내짚었다.

...찬식기사의 집은 야간휴양소 앞마을에 있는 아담한 단층주택이었다.

밤이 깊었으나 그의 집 옷방창문에는 불빛이 휘황하였다.

앵초와 초롱꽃 화분들이 주련이 놓여있는 유리창앞으로 다가갔을 때 손칼로 무엇인가 장난감같은것을 꺾고있는 찬식의 모습이 들여다보였다.

나는 어쩐지 보지 말았어야 할것을 본 때처럼 얼굴이 뜨거워났다.

어수선한 마음을 수습한 다음 나는 가느다랗게 기침소리를 내었다.

찬식은 꺾던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다가 일어났다.

문을 열어젖힌 찬식은 자못 놀라는것이였다.

《아, 실장동지?!... 이 밤에...》

찬식은 맨발로 마루를 내짚으며 나의 손을 잡아 끌었다.

방안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책상위에 그 《장난감》이 그냥 놓여있는것을 보자 열론 고개돌리었다. 그러자 나는 천장까지 닿아있는 큼직한 서가를 보게 되었다. 벽이 온통 책으로 차있었다.

나는 서가로 다가가 걸탐스레 훑어보았다. 한쪽 서가는 주로 공학서적들로 차있었고 다른쪽은 주로 외국문이었다.

(공부를 직심스럽게도 하는 사람으로군!)

이상하게도 이 순간 나의 눈앞에는 리영달의 책상위에 고정비품처럼 놓여있군하던 기계제작편람이 떠올랐다.

유능한 기술자들은 편람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들은 계산치수나 찾아보기 위한 편람류가 아니라 창조적사색의 양식으로 되는 원리적서적에 흥미

를 가지는 법이다. 찬식의 서가는 바로 그의 실력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었다.

《도서관에 온것 같구만!》

나는 찬식이 권하는 결상에 앉으며 이렇게 칭찬하였다.

찬식을 향하여 돌아왔을 때, 나는 어쩔수없이 책상위의 《장난감》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저 장난감이 아니라 어떤 기계장치의 모형임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 측정장치모형이 아니요?!》

《예,그렇습니다.》

찬식은 내가 모형을 알아맞힌것이 고마운듯 얼굴이 밝아지며 기꺼이 설명을 달았다.

《자동측정장치를 무르익히긴 했는데 어느 형이 더 좋겠는지 확신을 가지고싶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찬식은 그밖에도 리론적인 설명을 더 하는것 같았으나 나는 창밖에서부터 그를 오해한 일이 어찌나 미안했는지 그리 목소리가 귀안에서 웅웅 거릴뿐이었다.

찬식은 책상보를 들치더니 그밑에서 다른 모형 하나를 더 꺼내었다. 나는 그것을 넉넉 받아들이고 반기었다.

《이게 공기식이로구만!... 그런데 왜 형식을 바꾸자고 하오?》

《우리 공장의 실정을 따져놓고보니 공기식을 하자면 압축기도 해결돼야겠구 배관공사도 해야 되겠으니까 전기식으로 하는것이 더 경제적이겠다는 타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형도 만들어보면서 검토해보는중입니다.》

《아- 그랬었구만!》

나는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런줄 모르고 나는 이 동무가 결의한 날자를 어기었다고만 생각지 않았던가.

나의 생각을 알아맞히기라도 한듯 찬식은《타산을 잘했더라면 처음부터 전기식으로 했을건데... 계획기일을 보장못해서 죄됩니다.》하였다.

《글쎄말이요... 좌우간 량심껏 해봅시다.》

나는 오늘 받은 새 설계과제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준 다음 자리를 일었다.

낮은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장들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분주히 드달려가고있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다.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듯한 불안감이 가슴을 끝없이 조이는것이였다.

나는 스적스적 야간휴양소의 뒤길로 잡아들었다. 백양나무가 칠칠히 들어선 그 길은 사색에 잠기기 좋았다.

와스스 - 한줄기 바람결이 나무일들을 흔들며 머리우를 지나간다.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이 길은 고모네 집으로 통하는 길이였다. 불현듯 고모의 초조한 얼굴이 눈앞으로 다가든다. 나의 기별을 손꼽아 기다릴것을 생각하노라니 그날 내가 괜한 말을 하지 않았던가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3

이른아침, 출근길이였다.

서류가방을 거드랑이에 끼고 사무실복도로 걸어 들어가던 나는 설계실앞벽에 걸려있는 기술문답판에 눈이 끌리었다. 웬 영문인가 했더니,전날에 없던 새로운 벽보기사가 나붙었는데 류달리 설명해보인 까닭이였다. 새하얀 종이에 네모반듯하게 테두리를 그은거며 빨강고 파란 색연필로 장식을 해가면서 제목을 두드러지게 부각한거며...누구의숨씨라는것이 첫눈에 알리었다.

기술과사람들의 자질향상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 기술문답판은 리용률이 별로 높지 못했었다. 몇달전에 붙여놓은 기사가 그냥 붙여놓은것을 발견하게 된 나는 설계실성원들을 발동시키여 한주일에 한번씩은 새 기사가 나붙도록 조직사업을 했었다.

리영달에게 《자동화의 원리》라는 제목을 준지가 이틀전인데 벌써 수행한것이다. 그것도 아주 성의껏... 나는 가벼운 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모임을 끝냈을 때 영달기사가 깨끗한 도면철을 내놓으며 《실장동지, 설계가 다했습니다!》 하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벌써 끝냈소?! 이틀이나 앞당겼구만. 수고했소. 수고했소!》

나는 도면을 받아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만은 흐뭇이 웃으며 담배갑을 꺼내는데 그는 무척 행복해보였다.

도면철을 그러안고 실장실로 건너가자 나는 곧 책상우에 도면을 펼쳐놓았다. 얼마간 도면을 들여다본 나는 실망하지 않을수없었다.

그것은 지금 현장에 있는 연처리로부터 조금도 나아진 점이 없는 설계로서, 새로 계획한 열처리로가 현장것보다 크기때문에 모든 치수들을 일정한 비율로 늘군데 불과했다. 엄연한 모작이였다. 거기에는 창조자로서의 설계원의 몫이 없었다.

물론 설계원들은 기존도면을 리용할수가 있다. 그러나 영달은 기계적으로 모방하던 나머지 재질의 변화조차 고려하지 못한것이다.

무엇보다 이해할수 없는것은 이 도면을 내놓을 때의 영달의 자랑찬 표정이였다. 과연 영달은 진실로 자기의 설계가 대단해보였을가?... 머리속에 든것이 적으면 제것이 똑 제일인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것이였다.

얼마후, 기사장실로 가려고 설계실앞을 지나갈 때 나의 눈길은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마냥 기술 문답판으로 쏠리였다.

나는 오래도록 그앞에 서있었다. 나는 이미 깨끗한 글씨나 네모반듯한 줄간같은것에는 관심하지 않았다. 손바닥만한 기사를 단숨에 읽어본 나는 그 기사가 영달의 두뇌로 씌여진 글이 아님을 알수 있었다.

《자동차의 원리》라는 저 원고를 쓰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관한 책 한권쯤은 보아야 하리라. 나는 영달이가 틀림없이 그렇게 하기를 믿어바랐던것이였다.

보매 영달은 그 책을 본것임에 틀림없었다. 왜 그렇게 말할수 있느냐 하면 저 원고는 《현대공업의 자동차》라는 책에서 나온 글이 분명하였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달기사가 그 책을 완전히 읽지 않았음을, 저 벽보원고는 그 책의 머리글을 그대로 베껴다놓은것임을 알아맞혔으니, 새로 나온 그 책은 나도 며칠전에 읽었으므로 머리글을 첫줄부터 마지막줄까지 생생히 기억해낼수가 있었던것이다.

이 순간 나의 불이 꺼진 설계실창문이 선히 떠오르며 영달의 《15 분》이 뇌리를 쳤다.

나는 영달기사를 불러들였다.

《영달동무, 동문 이 설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나는 그의 설계도를 가리키며 물었다.

영달은 꺾끗이 일어서서 눈길을 치켜올렸다.

《이대로 현장에 내보내도 무탈할겁니다.》

(무탈이라? 옳지, 바로 그것이였군. 지나치게 넉넉한 치수들은 후에 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생겨난것이였군. 이미 생산에 도입된 설계를 따왔으니 특별한 사고가 없을것은 자명한 리치가 아닌가.)

나는 흥분을 갈았히고 나직이 말하였다.

《영달동무》 내가 보기에는 치수들이 대체로 너무 큰것 같은데 어떻소?》

《안전률을 본건데요?》

《안전률을 얼마로 보았소?》

《3 배로 보았습니다.》

《최대한도로군. 재질을 고려했댔소?》

《재질이요?...》

영달은 얼굴이 벌개지며 고개를 약간 숙이였다.

《가단주철을 쓰는 조건에서는 안전률이 3 배까지는 필요없지 않겠소?》

나는 웃주머니에서 회전샘자를 꺼내들었다. 계산까지 하려들자 영달은 때를 놓치지 않고 실토하였다.

《이건, 이전 설계를 리용한겁니다.》

《그랬겠지. 《리용도》가 어데 있소?》

영달은 저쪽방으로 건너가서 리용도면을 가져왔다. 퍼그나 오래전의것이여서 종이가 누르끼레하였다. 그것을 내앞에 가져다놓는 영달의 손은 가늘게 떨리였다.

나는 도면을 책상우에 펼쳐놓고 명기란을 손가락으로 쿡 찍었다.

《보시오. 여기엔 회주 십팔에 삼십륙(금속의 강도를 표시하는 수자임)이 아니요. 그런데 가단주철을 쓸 때도 회색주철을 쓸 때와 같은 치수를 매기다니!... 기술문헌조사도 하지 않고 낡은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식으로 설계하니 이게 무슨 태도요?!》

《.....》

영달은 시선을 떨어뜨리고 안절부절하였다.

《어떻소? 동무에게는 이 설계도가 아주 걸작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것 같소?》

《.....》

영달은 이해되지 않는다는듯이 나를 힐끗 저다보았다.

《이런 도면은 기사가 아니라 사도공에게 맡겨도 될것ियो. 무엇때문에 동무는 대학을 나오고 기사 자격증을 받았소? 랑심이 없소.》

《예?!...》

영달은 고개를 번쩍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반발의 눈길은 아니였다. 정통을 찢리어 놀란 눈길이었다. 그 눈길은 곧 아래로 미끄러졌다.

나는 영달의 도면을 돌려주며 다시 설계할것을 지시했다.

도면들 받아드는 영달의 태도는 아주 태연한듯하였다. 그러! 그의 손에 들리운 도면의 기술은 하늘에 떠있는 잠자리의 날개마냥 파르르 떨고있었다...

영달이 간간 뒤 나는 울적한 기분에 사로잡혀 담배를 갈아덜뿐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담배맛도 쓰거웠다. 나의 몸을 칭칭 감고있는 이 불안의 바줄은 도대체 어데서 생겨난것일가?... 나는 재털이에 담배를 구겨박고 금해 가공직장으로 내려갔다.

직장장을 만나 자동흐름선문제를 토론하고 가 공장에 들어갔을 때 영순의 선반기앞에 서서 다

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찬식의 모습을 멀리 보게 되었다.

찬식은 영순이에게 종이에 쓴 어떤 물건을 넘겨주는가본데 그것을 받는 영순의 얼굴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귀중한것을 받아안은 사람의 얼굴처럼 환해보였다.

찬식은 곧 물러갔다.

나는 짬을 내어 영순의 선반기앞으로 다가갔다.

작업모자를 꼭 내려쓰고 바이트끝에 정신을 집중하고있는 영순이는 머리말에 내가 나타난줄도 모르고있었다.

나의 눈길은 우연히 영순의 선반기우에 놓여있는 자그마한 물건에 미치였다. 그것은 너무나도 눈에 익은 《장난감》, 찬식의 측정장치모형이었다.

(!...)

짜던 부분품을 마저 떨군 영순이는 나를 보자 반기며 기대를 세우고 발판에서 상큼 내려섰다.

《오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녁에 좀 만나자. 기다리겠다.》

영순이는 백옥같은 이발을 가지런히 드러내며 미소할뿐이었다. 그 미소에서는 감출수 없는 호기심과 기대가 엿보였다. 그리고 혹시 나의 선입견 일지는 모르겠으나 영순의 머루알같은 눈동자 속에는 일종의 경계심도 숨어있는상싶었다. 내가 찬식기사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지 않았음을 영순이도 모를리 없을것이였다.

《어서 일하라구, 웅.》

나는 눈을 깜빡해보이고 곧 물러났다.

영순이는 약속한 시간에 어김없이 왔다.

《오빠, 무슨 일이세요?》

영순의 착잡한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게 앞아라.》

나는 담배를 피워물고나서 영순의 귀여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의 웅천 마음을 풀어주려고 나는 우야 룡을 하였다.

《무슨 일이냐구? 이를테면 선반공처녀 오영순이 매우 잘생긴것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런 일이지.》

《호호호 오빠두! 룡담을 곧잘 하시는군요.》

《룡담이 아니다. 뭐, 철부지도 아닌데 에돌것 없지. 네가 우리 설계실 찬식기사하구 좋아한다며?》

영순은 탄전을 부리지 않았다. 쌍가풀진 눈시울이 살포시 내려덮이더니 실눈을 지었다. 책상위의 잉크단지이름에 시선을 박고 수심에 잠기는것이였다.

《어머니가 뭐라던?》

영순은 속눈섭을 치켜올렸다.,

《어머닌 그 동무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반댈하지요.》

나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변명하듯 나는 얼른 물었다.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서로 알게 됐지? 그 애기부터 들어보자꾸나.》

영순은 눈을 내리깔고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다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이리하여 나는 그들의 남모르는 사연을 마침내 듣게 되었다. 영순이가 찬식을 알게 된것은 한해전부터였다. 그 총각과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계기는 영순이가 자그마한 설비부속품을 깎다가 오작을 낸 때에 생겼다. 그 부분품의 설계자가 찬식기사였던것이다.

찬식기사의 설계도면은 언제봐야 치수가 뽕뽕하였다. 그날도 영순은 도면의 요구대로 바이트를 뽕뽕이 들이밀었다가 내면홈과 결면 사이에 맞추멍을 뺨 뚫어놓고말았었다. 영순은 너무도 분하여 울음이 북받쳤다.

그때 마침 현장에 나타난 찬식기사의 모습이 멀리 보였다. 찬식기사는 자기의 설계에 대한 가공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현장에 자주 내려오군 한다는것을 영순이도 들은바 있었다.

그날도 찬식기사는 고급기능공들과 이마를 맞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토론하는것이였다.

어떤 선반공들은 말하기를 찬식기사가 아직 능란치 못하기때문에 그의 도면을 실현하기가 제일 말쑥하며 어느 기사들의 도면보다 오작비률이 많은것이라고 하였다.

영순은 오작품을 낸 책임을 설계자에게 넘겨줘우고싶은 마음은 꼬물만큼도 없었다. 애오라지 오작을 미리 막을 방도를 모색하던끝에 영순은 도면을 들고 찬식기사에게로 다가갔었다.

《기사동지,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영순은 처녀다운 수집음을 띠우고 미안한 어조로 방조를 요구했다.

《그렇게 합시다.》

기사는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훑쳐보지도 않고 도면에만 시선을 쏟았다.

처녀는 점점 자신심을 잃어가면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 치수는 감합치수가 아닌만큼 가공여유를 좀 넉넉히 주시면.》

《깎기 쉽겠단말이지요.-오작도 방지하구.》

비로소 총각은 처녀의 얼굴을 흘끔 바라보고나서 설복하기 시작하였다.

《영순동무.》

(어마나! 내 이름은 어떻게 아시나?)

《치수를 푼푼히 잡으면 설계자도 험하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긴장하여 일한다면 귀중한 철재를 절약하고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는데 왜 험한 길만을 택하셨습니까?》

영순은 얼굴이 활짝 붉어졌다. 그는 기사가 들고있는 도면의 한쪽 모서리를 두손가락끝으로 간신히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어요.》

《고맙습니다!》 찬식기사는 오히려 이렇게 인사를 차리며 유정한 눈길로 영순을 바라보는것이였다.

(아이, 고맙긴...)

영순은 수집은 얼굴을 숙여보이고 종종걸음을 쳐왔었다. 그 이른날이였다. 이번에는 찬식기사가 영순이를 찾아와서 깨כות 도면 한장을 내보이며 조언을 청하는것이였다.

《아이참, 제가 어떻게...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나오면 섭섭한데요. 기사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잘 아는건 아닙니다. 지난밤 나는 동무가 제의한 문제를 두고 다시 검토해보았는데 중요한 결함을 찾아내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좀 고쳐본건데...》 영순은 감격하였다. 찬식기사의 허심성이 놀라왔고 자기의 미숙한 의견이 그에게 도움으로 되었다니 무등 기뻐다. 그뒤로 찬식은 영순의 기대옆에 자주 나타나곤 하였다. 찬식은 영순에게서 선반기술을 익혔고 영순은 자기의 기능을 리론으로 공고히 할수 있었다.

순진한 두 심장이 결합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았었다. 둘의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졌다. 찬식의 근심은 곧 영순의 고민이였고 영순의 기쁨은 곧 찬식의 행복이였다.

영순의 정겨운 이야기를 귀담아듣고나서 나는 한동안 깊은 감회에 잠겨있었다. 나는 까닭모르게 자기의 청춘시절을 불현듯 회상하였고 영순이들이 부러운 생각마저 갈마들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깨무는 영순이, 행복과 신념으로 충만된 처녀의 눈시울에는 순결하고 뜨거운 이슬이 가랑가랑 맺혀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앞을 거닐었다. 감격을 누르고 나는 우야 평정한 어조로 물었다.

《그래 영순이는 찬식이를 굳게 믿나?》

《아이참, 믿음이 없어야 어떻게...》

《만약 그 누가 찬식기사는 실속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래요? 그럴수 없어요. 그 동무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안예요!》

영순은 완강히 항거하는것이였다.

어쩐지 나는 영순을 마주보기가 점점 어려워짐

을 의식하고있었다. 나는 찬식의 사업계획서가 몇 줄밖에 안된다고 하여 성실치 못한것으로 판단했던 일이며 그가 영달이처럼 노상 제도판에 붙어있지 않는다고 하여 부지런하지 못한것으로 속단해버렸던 일들이 그지없이 부끄러워졌다.

(내가 너보다도 사람 불줄을 몰랐구나.)

영순아! 나는 네 말을 믿는다. 진실한 사람의 눈은 진실과 거짓을 똑바로 가려보는 법이니까.

나는 네가 진실을 빗보지 않았으리라고 믿는다.)

나는 영순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4

찬식의 설계는 그뒤 며칠 지나서야 끝났다. 그것도 내가 재촉해서야 가져왔는데 찬식은 머뭇머뭇하며 도면을 선뜻 내놓지 못하는것이였다.

《저로서는 힘껏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나는 찬식에게 앉으라는 말도 미처 못하고 도면에 눈을 팔았다.

널리 아는바이지만 화가에게 필체가 있는것처럼 설계원에게도 개성적인 기교가 있다. 회화에 창작가의 사상이 반영되듯이 설계도면에는 설계자의 사상의 반영인것이다. 찬식의 설계도를 들여다볼수록 나는 마치 명화가의 미술작품을 들여다보듯 황홀경에 잠기였다. 나는 찬식기사가 이 자그마한 도면의 매개의 점과 선, 치수들에 얼마나 피타는 로력을 기울였는가를 잘 알고있음으로 하여 깊은 감동에 잠기게 되는것이였다.

따르릉...

전화종소리에 나는 흥분에서 깨어났다..

기사장에게서 온 급히 만나자는 내용의 전화였다. 나는 설계도면을 손바닥으로 톡 치며 일어섰다.

《됐소, 아주 훌륭한 설계요!》

찬식이도 따라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 만족의 기색은 종내 나타나지 않았다.

《계획기일을 보장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동무는 계획을 한셈이요. 이것은 새로운 과제를 수행한것으로 칩시다. 동무야 원래 날자를 더 앞당겨 받지 않았겠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아니, 실장동무, 그건 위안에 불과한것입니다. 저는 계획기일을 앞당겨보장하겠다고 당원으로서 맹세를 하였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당적분공이며 혁명과업이라는 자각이 부족한가봅니다. 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기술자들에게 돌

려주시는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어긋나는것이 아닙니다.》

약간 불긋하게 달아오른, 어쭙은 미소 피는 그의 얼굴을 보다 말고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깊은 감동이 가슴을 저릿하게 했다.

나는 그와 깊은 이야기를 더 나누고싶었지만 후에 다시 만나자고 양해를 구하고 기사장실로 올라갔다.

기사장은 도일보에 실린 《발명 및 창의고안 현상모집요강》을 내보이며 설계실에서 이와 관련한 조직사업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현상모집요강을 넘겨받은 나는 단숨에 실장실로 내려왔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기사장의 의견대로 나는 전체 기술자들과 사도공들까지도 이 사업에 참가시켜 그들의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매 사람들의 창조물이 높이 평가되도록 해주리라고 마음먹었다. 특히 찬식의 측정장치설계를 온 나라에 널리 소개하여 빨리 도입되도록 하리라 하였다.

나는 우선 기사들부터 한명씩 불러들이었다. 문 앞에 앉은 리영달이 맨 먼저 들어왔다. 영달은 스스로 긴의자에 앉아 무슨 용무냐는듯 나를 뵈히 바라본다. 며칠전에 그렇듯 비관을 받은 그였건만 주눅이든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의 모습에서는 새로운 결의를 다진 사람의 생소한 태도가 엿보여 나는 마음이 개운해졌다.

영달은 반죽좋은 성미 그대로 다가앉으며

《실장동지, 집에다 전보를 날렸습니까?》 하였다.

《뭘, 집을 받은 다음에 치지.》

《안줬으면 차라리 잘됐습니다. 알아보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가 아주 현대식이라는데 합숙생활이 불편하더라도 더 참아보는게 나쁘지 않겠습니까?》

《...알겠소. 그런데 이것 좀 보요.》

나는 현상모집요강을 설명해준 다음

《이번에 기사들은 의무적으로 응모시키기로 했소. 그러니 동무도 열처리로설계에서 한번 독창성을 발휘해보시오.》 하고 추동하였다.

영달은 무엇인가 타산하는듯 잠시 어물어물하다가 점잔을 빼며 대답했다.

《의무적이라면야 해야지요. 그러나 거 뭘, 상이나 받자고 창의고안을 하겠습니까.》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그래 이 사업을 조직하는 사람들은 죄다 상이나 받자고 뛰는 사람들이란말이요?》

영달은 당황하여 손으로 입을 가린채 엉거주춤 일어섰다. 나는 그의 《휴대용마이크》에 환멸을 느꼈다.

《자기를 기만하지 마시오! 그런 말공부는 자기의 무능력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소... 그래 동문 칭찬을 받을 때 사기가 오르지 않습데? 삼을 받으면 일을 더 못할것 같소?. 나라에서 훈장과 영웅칭호는 괜히 제정한것 같으나말이요?!...》

영달은 눈돌 곳을 몰라 찢찢 매었다.

그의 수그린 이마박에 땀기가 빠질빠질 내뿜고 있었다.

《나가서 잘 생각해보시오.》

영달은 어깨를 처뜨리고 조심히 물러갔다.

《찬식동무를 좀 보내주시오.》

하고 나는 그의 등에 대고 일렀다.

나는 담배를 피워물고 노기를 갈았었다.

찬식기사가 의아한 얼굴을 하고 들어왔다.

《피우오.》

한참후에야 나는 찬식에게로 담배갑을 밀어보냈다.

《예, 여기도 있습니다.》

찬식은 양복주머니에 손을 찢렸으나 담배를 꺼내지는 않았다.

나는 그안에 현상모집요강을 밀어보였다.

찬식은 요강을 흥미있게 읽고나서

《이런 사업도 있구만요!》 하며 웃었다.

《한번 해볼 생각이 없소?》

《해봤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 설계가 좋지 않소.》

나는 책상위에 펼쳐진대로 있는 그의 설계도면을 가리켰다.

《그게 뭘, 되겠습니까?》

《왜 안된단말이요? 난 그걸 하자는게요.》

찬식은 뒤통리를 술술 굽었다. 나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 어쭙게 미소하더니

《할바하군 1 등을 해야겠는데...》 하였다.

《!!》

나는 눈썹리가 뜨끔해났다. 눈물이 나오는것만 같아 눈을 꼭 감았다. 이상하였다. 1 등을 해보겠다는 그 말이 왜 이다지도 나의 가슴을 치는지? ... 1 등을 해보겠다는 그 말이 왜 으시대는 말로 들리지 않는지?...

나는 곧 깨달았다. 찬식기사가 1 등을 하고싶다고 한것은 1 등상이 탐난다는 뜻이 아니라 1 등급의 설계를 완성하여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내놓고싶다는 뜻임!

그렇다. 영달이같은 사람에게는 찬식의 말이 알뜰하게 느껴질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찬식의 인간됨을 알기에 꾸밈이 없는 그 말의 진가를 고스란히 감수할수 있었다.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방금전 리영달은 왜 찬식이와는 정반대의 말을 하였던가? ... 그도 틀림없이 1 등을 해보고싶었으련만 영달은 어찌하여 가슴속에 없는 말을 지어내야 했던가?

영달은 타산을 잘못하였었다. 그는 속심과는 정반대의 말을 함으로써 몇갑절의 효과를 얻으려 했었지만 그와 같은 껍질말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그는 타산하지 못했었다.

별안간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데했다. 영달은 어떻게 되어 그런 말을 나한테 꺼리낌없이 할수 있었던가? 자기의 말이 나에게는 통할수 있으리라고 믿었기때문이 아니였겠는가. 나의 모습에서 그는 자기와 비슷한 구석을 발견했음이 틀림없었다.

첫충화모임때 나의 보고를 들으며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대하던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야 비로소 완전히 납득되었다. 그때 리영달이를 모범적이라고 극구 칭찬하던 나의 얼굴에서 사람들은 다름아닌 제 2의 리영달을 보았을것이였다.

결함을 감싸며 우점을 과장했던 보고에는 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부임후의 첫모임이 니만치 사람들에게 될수록 좋은 인상만을 남기려 했던 타산부터가 그릇된것이였다. 누구를 위한 타산인가? 나를 위한 타산이였다. 내 낯을 내기 위한 타산이였다...

깊은 회오속에 빠져있는 나를 찬식은 의아히 지켜보고있었다.

나는 찬식기사앞에서 도망이라도 치고싶었다.

(찬식이, 나를 용서해주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닌가. 지금 동무가 나를 아무리 찬찬히 뜯어보아도 인제는 내 얼굴에서 영달이 같은 모습은 찾아내지 못할거요!) 하고 생각할때 나는 더없이 마음가벼웠다.

(찬식이, 나는 동무가 참으로 마음에 드오!

일은 꼬불만큼 하고 큰 떡을 입에 넣으려는 악삭바른 사람, 구미가 없는채 하면서 군침을 흘리는 교활한 사람보다 량심적으로 일하고 평가를 바라지 않는 정직한 사람,가식이 없이 제몫을 차지하려는 솔직한 사람이 몇갑절, 몇십갑절 더 똑똑하고 우월하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당을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 말과 겉치레가 아니라 실속있는 행

동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라 할것이다.)

...저녁노을 이 붉게 타고르고있었다.

여느때없이 일찌기 퇴근길에 오른 나는 고모네 집을 향해 가벼운 걸음을 옮기였다. 명절날처럼 즐거운 기분이였다.

《그러잖아도 자네를 찾아가려면 참이였네.》

고모는 손에 행주를 친채로 달려나왔다. 나의 기색을 부지런히 살피며 고모는 사실을 멈추지않았다.

《저 미친게 글썽 그 찬식인가 하는 사람하구 그냥 붙어다닌다네. 덤비지 말라구.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두! 그래, 좀 알아보았나?》

《아무렴 우리 영순이가 사람을 잘못봤을라구요.》

《그럼 좋다는 소린가?!》

《어서 잔치날이나 받으시우.》

《됐네 이사람!》

고모는 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게.》

《아-니, 나를 중매군으로 섬기려는게 아니요?》

《으응? 흐흐, 중매군이야 중매군이지.》

《하긴 그렇군. 그런데 중매는 잘 서면 술 석잔이요 못서면 뽕 세매라는데...》

《그럼! 술 석잔 주잖으리.》

《어이구- 난 그만두겠수다.》

《아니 왜? 술은 못하던가?》

《못하지는 않소다마는 술 석잔 받기전에 뽕 세매를 먼저 맞아야 되겠으니 겁이 나서 그러지요.》

고모는 유쾌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급히 들어가더니 큼직한 수박을 쟁반에 받쳐들고 나왔다. 물기가 번들거리는 얼룩덜룩 시퍼런 수박은 보기만 해도 시원했다.

《이거나 어서 들라구. 밭에서 골라온건데 잘 익었을거네.》

《쪼개 봐야 알지요. 결만 보아서야 어디 알겠소.》

나는 고모의 손에서 과일칼을 받아들고 수박의 꼭지머리를 쿡 찢었다. 한손으로 수박을 굴려가며 다른 손으로 썩썩 칼질도 하여 마침내 두쪽으로 썩 갈라놓았다.

그러자 새까만 씨앗이 다문다문 박힌 시뻘건 속살이 어서 맛보라고 눈앞으로 뿔쫂 솟아오르는듯 했다. 들큰한 향기가 못건디게 코를 쿡 찌른다.

우리 군당비서

림희문

△때; 늦은 가을
 △곳; 새땅찾기전투장
 △나오는 사람들
 박상준; 군당비서(35 살)
 오영덕; 제대군인 불도젤운전수(32 살)
 윤이월; 협동농장관리위원장, 처녀
 리금녀; 그의 어머니
 △무대; 다락발을 건설하는 야산골짜기. 한쪽에
 해묵은 느티나무가 서있고 그밑에 기름탱크
 와 불도젤 부속들이 널려있다.
 앞뒤산골안에 메아리치는 불도젤의 동음과 함께
 무대 밝아지면 저녁노을이 비낀 일터에서 영
 택이 판사슬의 못을 콧느라고 땀을 흘리고있
 다. 팔소매로 땀을 문지르면서도 흥얼흥얼 노
 래를 부른다.
 ...
 에헤라 산기슭 다락발에
 프락톨 달려가네
 소리; (이월);영택동무- 영택동무-
 영택; (일손을 멈추고 소리나는쪽을 향하여)관리
 위원장동무- 나 여기 있수다-!
 △이윽고 이월 간식보자기를 들고 나온다.
 이월; 불도젤이 왜 멧었나요? 고장이예요?
 영택; 아니요, 판사슬의 못들을 교체할것들이 좀
 있어서... 아니 한시간전에 약물골다락발건설
 장에 간다고 하더니?
 이월; 갔다왔지요 뭐.
 영택; 그 십리길을 벌써요? 하하... 날아다니누만
 요. 무슨 급한 일루 그렇게...
 이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곧 추위가 닥쳐온다
 는 기상통보예요. 그래서 운전수동무들하구
 대책을 좀 토론했려구...
 영택; 그래요...
 이월; (영택이 땀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
 의 수건을 준다) 땀을 좀 씻으세요.
 영택; 일없습니다. 나한테도 있어요.
 이월; 제가 좀 도와가요?(팔소매를 걷고 나선다.)
 영택; (웃으며) 값을 내라군 안하겠지요?
 이월; 아이 참...(웃으며 붙잡는다.)
 영택; 자, 그럼 좀 잡아주십시오.
 △둘이는 함께 힘을 준다. 그런데 판사슬못이 그

만 쪽 부러지고만다.
 이월; 야...
 영택; (부러진 못을 집어던지며)제기랄, 못을 교체
 하긴 해야겠는데...
 이월; 간식이나 좀 드세요. 고구마를 삶아왔어.
 영택; 고구마요? 아, 이거 정말 코허리가 시큰한
 데요...
 △그들 함께 웃는다.
 △이월은 고구마껍질을 벗겨 영택에게 준다.
 영택; 아 이거... 동무들하구 같이 먹지요 뭐.
 이월; 그쪽에도 내갔어요.
 영택; 자 이거... (고구마를 받는다)
 이월; 정말 우리 농장을 위해서 수고들을 많이
 해요.
 영택; 수고야 무슨 수고겠소, 좌우간 땀흘린보람
 이 있어야겠는데...
 이월; 있지 않구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새로 일구는 다락발
 에 강냉이도 심고 포도원도 조성하라고 교시
 하시지 않았나요.
 이제 앞으로 이 야산에서 팔뚝같은 강냉이며 포
 도를 따게 될거예요. 자 그때 우리한테 포도
 를 잡수러 오세요. 아니 제가 포도를 따서 싣
 구 영택동무를 찾아가겠어요.
 영택; 아니,내가 오지요. 아무래두 그맘때쯤이면
 관리위원장동무 결혼식도 있게 될텐데...
 이월; 어마나, 호호...
 영택; 하하... 이거 제가 너무 지나친 통담을 하
 는게 아닙니까?
 이월; 아이 참, 그렇게 흠없이 대하는게 얼마나
 좋아요.
 영택; 하하... 정말 포도향기 그윽할 그날을 그려
 보면 가슴이 다 뽀뽀해집니다.
 △그들 또다시 유쾌히 웃는다.
 △느티나무에서 락엽이 떨어진다.
 이월; (락엽을 집어들며)마지막 락엽이 떨어지는
 군요.
 영택; 정말 정서가 있수다.
 오, 락엽이여!
 너도 내 마음처럼 붉게만 타더니
 오늘은 내 어깨우에

꽃보라로, 꽃보라로 내리는가!

이월; 아이, 남은 속상해 그러는데...

영택; 네?

이월; 곧 첫눈이 내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은 이렇게 굼뜨니... 영택동무, 개간을 한 댕새 더 앞당길순 없을까요?

영택; 댕새요?...그건 좀 바쁩니다. 아 열흘까지도 될지말지 한걸요...

이월; 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영택; 걸린 문제가 풀려야지요...(일어선다.)

이월; 저... 사업소엔 남아있는 운전수동무들이 없나요?

영택; 글썄요, 저두 사업소 떠난지가 달포가 넘어서...(바게뜨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저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이월; 아니, 판사슬못은 바꾸어끼우지 않아도 일 없겠나요? 영택; 그런데루 지금껏 가지구 뛰는데까지 뛰어보아야지요. (나가려다.)

이월; 아이, 고구마... (고구마보자기를 들려준다.)

영택; (받으며) 이거... 고맙습니다. (나간다.)

△락엽이 또 떨어진다.

△이월 근심어린 눈길로 삭풍이 우는 나무가지를 쳐다본다.

이월; 사업소에 찾아가서라도 결정적으로 교대운전수문제를 풀어야겠어... 자전거가 누구한테 있더라...(나간다.)

△사이

△이윽고 박상준 가전거를 타고 나온다. 자전거에는 배낭이 실려있다. 그는 널려있는 공구들에 눈길이 닿자 자전거를 세웠다. 그리고 다가가서 부러진 판사슬못을 집어들고 본다.

상준 공구들을 제자리에 정리해놓고 나가려는데 이월이 찾으며 달려나온다.

이월; 반장동무-반장동무- 어델 가요? 나 자전거 좀 빌리랴요.

상준; 네? (돌아본다.)

이월; 어마나?! 군당비서동지...

상준; 난 또 누구라구, 관리위원장동무였구만...

이월; 미안해요. 난 우리 3 작업반장동무줄 알구...

상준; 그래? 응, 하긴 3 작업반장동무가 나하구 비슷한데가 있지. 특히 이 뒤모습이...

이월; 네, 뒤로 보면 정말 같습니다. 호호... 어서 사무실로 가십시오.

상준; 뭐 대접을 할라우?

이월; 하지 않구요. 인심좋은 우리 농장에 대풍까

지 들지 않았나요. 특히 비서동진 온 한해동안 우리들과 농사일을 같이 하셨으니 당당한 자격이 있지요 뭐.

상준; 그래? 하하...

이월; 분배날 농장원들이 얼마나 기다렸대구요. 어서 들어가시지요.

상준; 위원장동무, 난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이 새 땅찾기전투장에서 대접을 받고싶은데?

이월; 그래요? 호호... 그럼 좋아요. 보세요! (앞산을 가리키며) 저 쭉골야산에 10 정보, 이쪽 약물골에 10 정보, 그리구 저 안골 스무정보는 어제까지 끝냈어요.

상준; 불도젤은 몇대나 불었소?

이월; 쭉골에 10대, 약물골에 10대, 전부 20대가 불었습니다.

상준; 그래 언제까지 끝낼 계획이요?

이월; 10 일까지는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상준; 10 일 이라... 날씨는 점점 추워오는데... 한 댕새 더 앞당길순 없을까?

이월; 현재 형편에선 좀 곤란할것 같습니다. ...불도젤이 미처 밀어주지 못하니 일이 영 자리가 나질 않습니다.

상준; 원인은?

이월; 교대운전수들이 없어서 낮에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교대운전수라... 위원장동무, 내 사실은 그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나왔소.

이월; 야, 그렇습니까? 정말 그 문제만 풀리면 좋겠어요...

상준; (허물없이 뚝에 걸터앉으며)그래 어머니는 건강하시오?

이월; 네.

상준; 참 요즘도 시집가라고 하오?

이월; 아니요, 비서동지가 만나주신 그후부터는...

상준; 그래? 하하...

이월; 저 군당에서 바로 오시는길입니까?

상준; 그렇소.

이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오셨어요?

삼준; 그럼, 저 자전거를 타고왔으니까...

이월; (자전거를 어루만져보며) 야 정말 멋진 자전거네!

상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을 많이 하라고 이번 에 우리 군당 일꾼들에게 보내주신 자전거요.

이월; 그래요?! 야...(새삼스럽게 다시 어루만져보

며)비서동진 늘 수십리 농장길을 걸어서 다니시더니...

상준;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일꾼들이 백리를 걸으면 어떻게 천리를 걸으면 어떻소... 그런데도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자전거까지 보내주셨으니...

이월; 야... 전조등도 있구만요.

상준; 그럼, 달이 없는 밤길도 문제없소. 참 관리위원장동무, 자전거를 빌리라고 한걸 보니 무슨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 어서 쓰오.

이월; 비서동지, 사실은 교대운전수들을 보내달라구 토지건설사업소에 전화를 걸었는데 영 나오질 않아서 제가 제격 갔다오려구 마음 먹었습시다.

상준; 그래? 토지건설사업소는 지배인 이하 총출동이니 거길 가도 교대운전수는 없소.

이월; 네? 그래도 큰 사업소인데 그렇게 예비운전수들이 없겠나요?

상준; 예비는 여기서 찾아야 하오.

이월; 여기서요?...

상준; 그래 위원장동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문제를 가지구 운전수동무들한테 들어가 몇번이나 토론해봤소?

이월; ...요새 너무 복잡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이 많아와서 -.

상준; 그것 보오. (웃는다)아무리 일이 바빠도 대답하게 시간을 내서 한번 실효모임을 가져보지? 그럼 혁신이 일어날거요... 그래 운전수들의 생활에서 뭐 제기되는 애로들은 없소?

이월; 별로 제기되는건 없는데 오래동안 농장에 나와있다보니 집적정들을 좀 합니다.

상준; 음...그리고 또?

이월;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되어 시무궤도전차사업소에 있다가 지난달 우리 군에 온 동무가 있는데...

상준; 그래서?

이월; 네, 그런데 그 동무의 아주머니가 첫애기를 낳게 되나본데 그 동무네 부부가 다 돌봐줄 친척들이 없아봐요.그래서 요즘 그 문제로 좀 근심하는것 같습니다.

상준; 오영택동무 문제말이지요?

이월; 네...

상준; 내 좀 알아봤는데 아주머닌 벌써 입원했더구만...

이월; 그래요? 야...그런데 비서동지는 어느새 알고 알아보셨나요?

상준; 내 어제 사업정형을 료해하는데 동무네 비서동무가 역시 걱정하더군.

이월; 그래요?

상준; 내 우리 집사람한테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연락하라고 했는데...

이월; 참 비서동지 아주머니가 군병원 의사지요?

상준; 그렇소. 가만, 오후쯤 전화가 왔겠는데...

이월; 그래요? 제가 종일 현장에만 나와있어서...

그럼 얼른 가 알아보겠어요.

상준; 그렇게 하오. 가만, 이걸 가지고가오. (배낭속에서 책들을 꺼내며) 새땅찾기에 대한 강연제강이랑 선동자료들이 나왔길래 오는길에 가지고 왔소. 이 경험자료는. 내가 쓴건데 실정에 맞게 보충하라고 하오.

이월; 야, 어느새에 글을 다 쓰셨어요?

상준; 뭐 그게 시간걸리는 일이라구... 그러구 이 건 소설책인데 5 작업반장동무한테 주오. 이 책을 다 읽구 주인공의 충실성문제를 놓고 작업반에서 감상토론을 하잔다고 전하오.

이월; 알았습니다.(나가다가)저 오늘 안가시지요?

상준; 일 되는걸 보구...

△이월 나간다.

△상준 달려가는 이월을 바라보며 미소짓는다.

△불도젤동음이 가까와오더니 멎는다.

소리(영택); 동무, 불 좀 없소?

상준; 네, 있수다.

△이윽고 영택 기름물은 장갑을 벗으며 나온다.

영택; 이거 실례합니다.

상준; 일없수다.(성냥불을 켜준다)

영택; (담배불을 붙이고) 고맙수다.

상준; (혼자소리로)성냥공급이 잘 안되는 모양이군...

영택; (돌아서 나가다가 자전거에 눈길이 가자 멈춰선다)자, 거 자전거 썩하구만, 동무거요?

상준; 그렇소.

영택; 전조등까지 있구, 정말 썩한데! 이 전조등 불빛 몇메터나 나갑데?

상준; 글썽요, 어쨌든 동무네 불도젤보다야 열하지요.

영택; 뭐 우리 불도젤보다? 동무, 우리 불도젤 전조광이 얼마나 밝은지 알기나 하고 그러오?

상준; 글썽, 그건 모르겠지만 그까짓 쓸모도 없는 전조등해선 뭘하오.

영택; 뭐요? 쓸모가 없다니?

상준; 아 동무네 불도젤이야 낮에만 일하지 않소?

영택; 야 이 친구 봐라. 은근히 한방망이 때린다,
 하하... 하긴 요샌 그런 말 듣게도 됐소...
 그건 그렇구, 동무 소속이 어디요? 여기 다락발전
 설 나온 동무요?
 상준; 난 여기 사람이요.
 영택; 그럼 됐구만, 이 자전거 오늘밤만 나한테
 좀 빌려주지 않겠소!
 상준; 왜요?
 영택; 내 급히 군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러오.
 상준; 군엔 왜?
 영택; 응, 다르게 아니구 사실은 내 처가 첫애기
 를 낳게 됐는데 궁금해서 한번 피땀 잤다오
 자구...
 상준; 그래? 가만, 혹시 오영택동무 아니요?
 영택; ?... 동무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
 상준; 혁신자의 이름을 왜 모르겠소.
 영택; 오-라, 동무 관리위원회마당 속보판에 붙은
 내 사진을 봤구만, 하하... 내가 무슨 혁신자
 겠소... 그래 좀 빌려주겠소?
 상준; 가짜혁신자한테 곤란한데...
 영택; 자- 이 친구, 그러지 말구 좀 빌려달라구요.
 상준; 어쩐다? 빌려줘? ... 앵이, 빌려준다!
 영택; 고맙소!
 상준; 그런데 왜 하필 밤에 가겠다고 그러오?
 영택; 낮에야 노루꼬리만한 해에 일을 해야지 그
 런 사사일로 작업장을 뜨겠소? 사실은 처가
 좀 근심되긴 해두 단념하고있었는데 하, 저
 자전거를 보니 또 생각이 나는구만, 하하...
 상준; 운전수동무, 지금 제격 잤다오우. 군까진
 이걸 타면 한 뉘시간 가면 될거요. 어서!
 영택; 응? 불도젤은 세워놓구?
 상준; 불도젤은 내가 대신 몰아줄게.
 영택; 동무가?
 상준; 내 이래봬두 땅크를 몰던 사람이요.
 영택; 그래? 가만, 나도 땅크병인데, 동무 소속이
 어디였소?
 상준; 나? xx부대
 영택; 뭐 xx부대? 자 이런! 한부대친구를 만났구
 만! 난 3대대에 있었소.
 상준; 난 2대대에 있었는데...
 영택; 그래? 하하... 고개 하나 사이두고 살았구만,
 나 3대대 권투선수 오영택이요. 한때 요란
 히 소문났었지; 이 채채기! (원손치기 권투동
 작을 해보인다.)
 상준; 하하... 그렇됐구만, 내 이름은 박상준이요.

영택; 오-라, 2 중북은기중대 사로청...
 상준; 맞아, 맞아...
 영택; 야 이거 이렇게 만났구만! (얼싸안는다) 좀
 앉자구! (상준의 손목을 이끌고 둔덕으로가
 앉힌다)야, 이거 정말 반갑구만... 그래 군복
 은 언제 벗었나?
 상준; 난 벌써 몇년 잘되지.
 영택; 그래? 난 1년도 채 안돼. 처음 제대되니까
 시무궤도전차사업소 사령으로 배치해주더구
 만. 하 그런데 땅크를 타던놈이 오금이 쭈서
 나서 어디 견딜수가 있더라구, 그래서 농촌에
 가서 트랙트루를 몰겠다구 졸라댔지. 그랬더
 니 지난달에 이 군토지건설사업소로 보내주
 질 않겠나, 하하...
 상준; 잘됐지 뭐...
 영택; 그럼, 참 우리 집에도 놀러가보자우. 난 원
 래 친척이 받은놈이 돼서 색시는 좀 형제들
 이 많은걸 얻으려고 했는데 하, 3 년석달 고
 르다 고르는걸 꼭 나와 같은 외토리처녀를
 만났단말이야. 거 뜻대로 안되더구만, 혼한게
 처녀같지만 막상 제사람 만들자고보면 만나
 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요, 하하...
 상준; 하하... 어쨌든 마음에 꼭 드는 처녀를 안
 해로 맞아들였을테지?
 영택; 그야 물론이지, 응, 사진을 보겠나? (주머니
 에서 사진을 꺼내보인다)자, 이쪽... 어때?
 상준; 괜찮아, 잘 골랐구만...
 영택; 쓸쓸하지? (웃으며)하 이렇게 외토리처녀를
 만나다보니 병원에 갈 걱정까지 내가 하질
 않나.
 상준; 너무 걱정하지 말라구, 병원과 이웃에서들
 잘 돌봐주겠지.
 영택; 그야 물론 돌봐주겠지, 어때? 내 이거 땅크
 병답지 않게 벌써 졸장부가 되는게 안야?
 상준; 안해를 사랑한다구 졸장부겠나, 사랑해주자
 구, 땅크병답게 뜨겁게말이야.
 △그들 웃는다.
 상준; 그래 먹는거랑 잠자리랑 불편하지 않은가?
 영택; 아니, 농장에서 특별대우를 해주지. 우린
 관리위원장동무네 집에 들어있는데 그저 한
 집안식구처럼 대해주질 않겠나, 관리위원장이
 어찌나 살뜰한지, 친누이던 그렇게 다정하했
 나, 어머니도 꼭 친어머니같다니까.
 상준; 그래?...
 영택; 글썄 우릴 위해서 저녁마다 불을 얼마나

때는지 방이 뜨끈뜨끈한데 게다가 한번도 덮어보지 않은 새 이부자리까지 퍼주길 않겠나.

상준; 사람들두! 아 그런 특별대우를 받으면서도 일은 그렇게 늦잡는단말인가?

영택; 그러게말이지, 아 온 나라가 새땅찾기전투로 법석 끓고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두 좀 들었다놔야겠는데 젠장 뭘 좀 하재두 배짱이 맞아야 해먹지... 걸린것도 한두가지가 아니지...

상준; 뭐가 걸렸나?

영택; 부속품이 부족한데다 기름공급도 시원칠 않지. 게다가 교대운전수까지 없으니 밤작업을 좀 벌리재두, 젠장

상준; 교대운전수?... 아니 우리가 군대에서 탱크를 탈 땐 무슨 교대운전수가 있었나? 그러나 우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전투훈련의 낮과 밤을 지새우지 않았나.

영택;

상준; 한부대출신 제대군인들끼리니 말좀 하세. 물론 지금 부속이랑 다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것만은 사실이야. 그건 곧 해결되어야 할 문제구 보다 중요한건 운전수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해제끼겠다는 옳은 태도가 서있지 못한거야. 문젠 지금 우리 운전수동무들이 마음에 불을 켜지 않고있단말이야.

영택; 마음에 불?

상준; 그럼, 영택동무, 우리가 새땅을 찾아내구 다락발을 건설하는 사업은 바로 우리자신들과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아닌가, 바로 어제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찬바람부는 다락발건설장의 가시덤불길을 헤치시길 않았나.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떨어지자 더운 방에 누워편한 잠을 잘수 있겠나.

영택; 그건 동무 말이 옳아... 가만, 동무 소속이 어디라구 했던가?

상준; 응, 난 동무네 심부름군이야.

영택; 심부름군? 그럼 조수로 배치돼왔단말인가? 아 그럼 진작 그렇게 말할게지, 사람들! 여,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손잡고 일해보자구.

상준; 좋아!

영택; 나하구 통해! 응, 배짱이 맞는단말이야,동무 이제 보니 정치사업도 썩 잘하누만, 응? 그 뭐야, 사람의 마음을 운전할줄 안단말이야.

△돌이는 호탕하게 한바탕 웃는다.

상준; 자, 동문 지금 우선 병원에 아주머니한테 갔다오지.

영택; 여, 내 진짜 줄장분줄 아는가?

상준; 어서 가보라는데두, 한바탕 큰일을 해제끼자면 뭐 잡근심이 없어야 돼, 자 어서...

영택; 하하... 성화라구야, 그럼 불도젤은 어떻게 하구?

상준; 내 심부름군이라니까 차를 굴릴가봐 걱정이돼서 그러나?

영택; 하하... 탱크사촌을 보더니 몹시 근질거리는 모양이지, 어서 소원대로 해보라구.

△상준 나간다.

△이윽고 발동소리 울린다.

영택; (바라보며)여여! 옷쪽으로 불으라구, 옷쪽으로!...됐어, 괜찮아, 좋아요! 하하... 탱크병승씨가 있는데...(자전거로 다가가 운전대를 잡아보며)어떻건다? 이따 작업총화나 짓구 반장동무한테 한번 제기해봐? 아니, 그럴수 없지... (박을 향하여)여 친구- 같이 타자구-... △영택 나가려는데 이월 숨이 턱에 닿아 달려나온다.

이월; 영택동무...

영택; ? ... 숨넘어가겠수다. 왜 그러오?

이월; 아주머니가... 해산을 했대요.

영택; 네?! 우리 친구가요?

이월 ; 네...

영택; 그래 뭘 낳았...(뒤더수기를 굽으며)거 뭘 남들은 아들아들하지만, 난 딸두 좋을것 같두만요...

이월; 호호... 저- 호호...

영택; ... 왜 그러니까...

이월; 저- 아이...(말 못하고 또 웃는다)

영택; 일없습시다. 말하십시오...

이월; 오누이쌍둥일 낳았대요.

영택; 뭐라구요?! (순간 폴짝 주저앉으며 엉덩방아를 찧는다)야- 허, 허, 허허... 아니 그럼 내가 쌍둥이아버지가 뻔단말입니까?

이월 ; 호호...

영택; (한참 따라웃다가)그래 몸은 일없답니까?

이월; 네, 산모는 건강하대요.

영택; (일어나 이월의 손을 덥석 잡으며)좌우간 고맙습시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있습니까?

이월; 군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비서동지 아주머니가 알려왔어요.

영택; 비서라니요?

이월; 우리 군당비서동지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시지 않았나요.

영택; 여기요?...

이월; 영택동무가 집일로 근심한다는걸 안 비서동지는 밤에 인민반에 나가 형편을 료해하구 영택동무네 집을 찾아가 이제 산모가 들방에 탄불까지 피워놓았대요.

영택; 네?!

이월; 그러구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시켜 도배와 장관까지 하게 하구 비서동지 어머니는 미역이랑 더 준비해놓구 기다리신다질 않아요?

영택; (목이 메여)그게 정말입니까?...

이월; 그러구 비서동진 운전수동무들의 집들을 다 돌아보고 월동용탄을 공급할 조직사업까지 다 하셨대요.

영택; 탄까지요? ...

이월; 우리 농장에서는 아이들까지도 비서동지를 다 알구 그저 따르답니다. 비서동진 언제나 우리 농민들과 허물없이 일을 같이 하면서 마음속에 충성의 불을 켜주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를 그저 《군당비서》라고 부르지않고 꼭 《우리 군당비서》라고 부른답니다.지금 우리가 일구는 저 새땅도 비서동지가 일군들의 앞장에서 로동화를 몇켄레씩이나 해뜨리며 찾아준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을 쓰게 못하고있어요...

영택; 관리위원장동무...

이월; 참 영택동무 소식을 비서동지한테 빨리 알려야겠는데 어딜 가셨나...(찾아 뛰어나간다.)

영택; (뜨거움에 젖어)군당비서동지... 그런 당일군과 함께라면... 우선 빨리 만나 봐야지...(나가려다.)

△이때 불도젤동음이 멎으며 상준이 나온다.

그는 끊어진 사슬판을 안고있다.

상준; 아니 영택동무, 왜 아직 안떠났나?

영택; 응, 여 동무 혹시 우리 군당비서동지 못봤어?

상준; 군당비서? 군당비선 왜?

영택; 응,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어딜 갔을가...(나가려다.)

상준; 여 영택동무, 저 판사슬의 못들을 더러 교

체해야 할것들이 있더구만...

영택; 응? 응- 그걸 누가 모르나, 하지만 못이 어디 있어야 바뀌끼우지...

상준; 부속들이 인차 도착할거야.

영택; 인차 도착한다구?

상준; 그래 우선 나한테 몇개 있는걸로 교체하세요.
(배낭끈을 푼다)

영택; 동무한테?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간다)

상준; (배낭에서 판사슬못 한묶음을 꺼내며)자...

영택; 하! 하하... 아 이 웬거야? 이거면 한동안 잘 쓰겠는걸? 하하... 동무 배낭 이거 보물배낭이로구만, 응? 하하... 됐어! 제격 교체해야지...(판사슬못묶음을 든다.)

상준; (뺨어들며)동문 어서 병원애나 갔다오라구, 내가 할게.

영택; 아, 참 처가 해산했다는 소식이 왔네.

상준; 뭐라구?! 그래 뭘 낳았대?

영택; 땅크병과 간호원!

상준; 응?

영택; 오누이쌍둥일 낳았다누만.

상준; 뭐라구?! 하하... 정말 경사로구만, 자, 쌍둥이아버지, 축하하네! (손을 내민다.)

영택; (상준의 손을 잡으며)고맙네.

△두사람은 마주잡은 손을 흔들며 웃는다.

상준; 자 그럼 빨리 병원으로 가게, 가서 안해한테 수고했다는 인사도 하구 또 미래의 땅크병, 간호원들하고도 첫상봉을 해야지? 어서...(영택을 떠밀고 자기는 판사슬못묶음을 들고 언덕으로 간다.)

영택; 아니 이건 왜 이러나...(웃으며) 응, 솜씨를 보이겠단말이지? 좋아...(장갑을 끼며 상준에게로 간다.)

△두사람은 함께 사슬판에 판사슬못을 꽂는다.

△이월 이 들어온다.

이월; (상준을 발견하고)아이, 여기 계시는걸...

영택; (이월을 보고 웃으며)위원장동무, 이거 걱정하나 또 덜었습니다. 아 이 친구가 판사슬못을 한배낭 가져왔구만요.

이월; 아니...(오라고 손짓한다)

영택; 네? 이 친구요? 땅크병, 나하구 한부대 친구...(이월에게로 가며)아 저런 친구와 함께라면 무슨 일인들 못해제끼겠습니까...

이월; 아니, 영택동무...(영택을 한쪽으로 끌고가서)정신있어요?

영택; 왜 그러니까?

이월; 비서동지하고 무슨 룡담을 그렇게 해요?

영택; 비서동지라니요?
 이월; 우리 군당비서동지예요.
 영택; 네?! 군당비서동지요? ...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한다.)
 △이윽고 영택 상준을 바라본다.
 △상준은 얼굴의 땀을 문지르며 관사슬뿔을 꺾노라 애쓴다.
 △음악이 흐른다.
 △영택은 뜨거움에 목이 메여 움직이지 못한다.
 상준; 여 영택이, 이거 와서 좀 잡으라우! ... (안간힘을 쓴다) ...빨리!
 △그러나 영택은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상준; (얼굴을 돌려 바라보며)?...뭘 그래?
 영택; 군당비서동지...
 △이윽고 영택은 상준에게로 가서 그를 도와 사슬판을 붙잡는다.
 △상준 망치질을 하여 조립을 끝낸다.
 상준; 됐네, 하하(조립한 사슬판을 안고 나가려다.)

영택; 비서동지... 비서동진 정말...
 △상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본다.
 영택; 관리위원장동무한테서 이야길 다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준; 아 뭘 그래? (웃는다)
 영택; 제가 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상준; 여, 뭘 그래, 땅크병답지 않게, 자꾸 그러면 오히려 내가 웅색해지지 않아?
 영택; 사실 전 저와 같은 로동잔졸로만 알구...
 상준; (웃으며)동무가 날 자기와 같은 로동자로 알았다는것이 얼마나 좋은가... 한부대친구, 물론 우리가 맡은 분공이 서로 다를순 있어, 그러나 군당비서도 불도젤운전수도 다 같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일하는 똑같은 혁명전사들이라는걸 잊지 말라구!
 영택; 비서동지...
 상준; (웃으며)자네가 정말 그렇게 간격을 가지고 대할 참이면 난 다신 자네하구 상델 안하겠네.
 △모두 웃는다.
 상준; 참 저기 관리위원장동무의 어머니가 나오시누만...
 △이윽고 금녀 나들이차림으로 닭, 닭알꾸레미들과 보파리들을 들고 나온다.
 이월; 어머니, 준비가 다 됐어요?
 금녀; 오냐...
 상준; 어머니, 편안하셨습니다(인사한다.)

금녀; 아이구 우리 군당비서동무, 내 이 애한테서 나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준; (웃으며) 그런데 딸네 집에 가는 친정어머니처럼 그렇게 차리시구 어딜 가십니까?
 금녀; 네, (영택을 가리키며)내 저사람네 집엘 며칠 나가있으면서 아이에밀 좀 돌봐주고 올랍니다.
 상준; 그래요? 거기도 사람들이 있겠는데요.
 이월; 비서동지, 어머니가 가시도록 뒤두세요. 어머니, 어서 떠나세요.
 상준; 아니 관리위원장동무, 어머니 농장원이 아니요. 그렇게 지시할 권한이야 없지뵈.
 이월; 아이 비서동무...
 △모두 웃는다.
 금녀; 비서동무, 이 애가 농장의 호주라고는 하지만 호주구실을 제대로 못한답니다.
 상준; 왜요, 착실한 살림꾼인데요.
 금녀; 그저 종일 뛰여다니기만 하지요. 방금두 비서동무네 집에서 전화를 받고 와서는 전 왜 미쳐 비서동무처럼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구 한숨을 쉰데다.
 △상준 크게 웃는다.
 금녀; 나두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했어야겠는데... 사업이 바쁜 군당비서동무에게 또 수고를 끼쳤구만요.
 상준; 원 어머니두, 안할 말씀을...
 금녀; 난 그럼 막차를 타러 빠스정류소에 가겠습니다.
 영택; 어머니...(더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을 슴벅인다.)
 금녀; (다가가 등을 어루만지며)사람두... 어서 쌍둥이 이름이나 지어보내라구.
 △그 말에 모두 웃는다.
 상준; 어머니, 그럼 수고해주십시오.
 금녀; 네...
 △금녀 모두의 바래움을 받으며 나간다.
 상준; 자 그럼 영택동무도 어서 자전거를 타라구.
 영택; 비서동지, 저야 불도젤을 타야지요, 당조직이 우리 가정을 그토록 따뜻이 돌봐주는데 제가 가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준; 영택동무...
 영택;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날을 따라 유족해지구 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라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도록 새땅을 찾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질 않았습니까.
 저희 집만 해두 오늘 당장 식구가 배로 늘어났습

니다. 전 그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새땅을 더 많이 일궈야 할게 아닙니까.

△상준과 이월 웃는다.

영택; 오늘부터 당장 교대운전수몫까지 맡아 해 제끼겠습니다. 동무들도 호응해나설겁니다.

상준; 교대운전수몫까지?

영택; 그래야 저 다락밭개간기일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상준; 좋소, 그럼 내 지금 오룡리로 가겠소. 거기서 운전수동무들을 좀 조절해서 보내주겠소.

영택; 그만두십시오, 거기도 긴장하겠는데요. 일을 짜고들면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해낼수 있습니다.

상준; 그래두...(떠나려고 자전거로 간다.)

영택; (막으며)비서동지, 비서동지가 해야 할 일이 어찌 여기 일뿐이며 가야 할데가 어찌 한두 곳이겠습니까. 오늘 비서동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켜준 충성의 불은 그 어떤 폭풍과 눈보라속에서도 꺼지지 않을테니 여기 일은 우리들한테 맡기고 어서 일을 보십시오.

상준; 한부대친구! (뜨겁게 손을 집으며)땀네!

영택; 넘려 마십시오. 땅크의 전조광을 뿌리며 산야를 달리던 그 기세로 모든 야산들을 단숨에 갈아엎겠습니다.

△음악이 흐른다.

△영택 나간다.

△상준 믿음에 찬 눈길로 영택을 바라본다.

△사이

상준; 관리위원장동무, 아까 10일까지 끝내겠다고 했던가?

이월; 비서동지, 5일까지로 앞당기겠습니다.

상준; 그래? (웃는다.)

이월; 비서동지, 저는 오늘 많은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준; 관리위원장동무, 우리 인민의 심부름꾼노릇을 더 잘하자구.

이월; 알았습니다.

상준; (동음이 울리는 야산을 바라보며)아마 저 동무들이 한바탕 돌격전을 벌리자면 빈 속이 출출할거야.

이월; 넘려 마십시오, 간식을 푸짐히 준비하겠습니다.

상준; 관리위원장동무의 통이야 따를 사람이 없

지. 참 그리구 운전수동무들에게 성냥이 떨어진것 같은데 상점 점장동무한테 좀 이야기 하오.

이월; 예.

상준; 자, 그럼 난 가보겠소.

이월; 아니 저녁식사도 안하고 가시겠습니까?

상준; 오룡리에 가서 먹지.

이월; 야, 이제 또 70리 밤길을... 오늘은 여기서 쉬고 래일아침 일찍 떠나면 안됩니까?

상준; 아무래도 지금 오룡리에 가서 거기서 오늘 개간을 끝마치는 운전수동무들을 데리고 와야겠소.

이월; 아니, 교대운전수는 필요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준; 그래두 작업량을 보니 힘에 좀 부칠것같소. 그리고 불도젤들이 련속 가동하자면 부속품 이랑 기름도 더 있어야 할거요. 내 갔다가 해결해가지구 이 밤으로 돌아오겠소.

이월; 네?! ...

상준; 걱정 마오.

이월; 비서동지사업은 언제나 그렇게 바쁘구만요.

상준; (웃으며)관리위원장동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라고 나에게 당일근의 높은 정치적신임을 안겨주시질 않았소. 그런데 그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보답을 못하고있소...(미소하며)자 그럼...

이월; 달도 없는데 밤길을 조심하세요.

상준; 일없소.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전거의 전조등이 언제나 내가 가는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소.

△상준 자전거를 타고 나간다.

△음악이 흐른다.

△이월 상준을 바랜다.

△상준이 타고가는 자전거의 전조등빛이 저 멀리로 비쳐간다.

△한편 이쪽 야산들에는 불도젤들의 전조광이 빛을 뿌리며 흐른다.

△이월은 상준의 자전거불빛을 바라보며 오래서 있다.

△음악이 고조되는 가운데 천천히 막이 닫긴다.

-끝-

조국을 위하여

김기호

1

이 땅에 포성이 울던 아침
사랑하는 어머니의 바래움을 받으며
정든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리수복은 전선으로 가고있었다
영웅은 고향땅을 떠나고있었다

돌아서고 다시 돌아서며
끝없이 바라보는 눈길에
달려오며 따라서는 고향산천
어린날의 푸른 꿈이 꽃피나고
청춘의 희망이 물결쳐간 강산이여!

장군님 주신 땅을 부여안고
아버지 목메여 울던 발머리는 어디
어제날 월사금이 없어
꿈도 희망도 빼앗겼던 리수복이
노래하며 학교에 가던 날
어머니 기뻐 눈물짓던 동구길은 어디

푸르른 산과 들...
숨박꼭질 술래잡기로 해가 저물어
영웅이 집으로 돌아올무렵이면
노을빛도 찬란히
장난꾸러기 어린가슴에
조국의 아름다움을 다 안겨준 향촌

저 밝은 하늘을 바라보며
소나무 푸른 송개산에서
나래치는 희망을 시로 읊던 리수복
저 풍요한 땅을 바라보며
넘쳐흐르는 금천강기슭에서
목메이는 행복을 노래부른 리수복

눈물을 머금으며 너선생이 들려주던
투사들의 한줄 흠을 마음속에 안아보며
이 강산의 슬기로운을 알았노라
나라없던 부모들의 피눈물의 이야기로

이슬맺힌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살결보다 귀중함을 뜨겁도록 느꼈노라

조국이 없던 시절
아름다운 고향이 어디에 있었더냐
인간 리수복이 어디에 있었더냐
굶주림과 헐벗음속에
천대와 멸시 속에
금천강의 조약돌처럼 버림받던 몸
송개산의 락엽처럼 나딩굴던 아이

조국! 그것은
어린꿈을 싹틔워준 땅이었다
조국! 그것은
청춘의 희망이 날게 한 하늘이었다
조국! 그것은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안겨주신
아버이수령님의 넓으나 넓은 품이었다

잃었던 인간의 존엄을 주고
몰랐던 웃음을 안겨준 조국의 사랑을
숨결처럼 속삭여준 요람이여!
생명도 소중하지만
조국은 생명보다 더욱 귀중함을
가슴뜨겁게 가르쳐준 고향이여!

잘 있으라 송개산아, 금천강아!
살아 빼앗길수없고
죽어도 내줄수없는 이땅, 이 하늘
이 세상 모든것의 전부인
조국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리수복은 싸움의 길로 달려가고있었다.

2

울부짖는 총성...
휩싸이는 불길...
리수복은 적진 향해 기여가고 있었다.

뒤에는 조국
앞에는 원쑤
영웅은 생사의 계선을 배밀이하고있었다

벌써 그 몇번
총탄은 그의 살결에 박히고
벌써 그 몇번
일어서던 대오는 멈춰서고
피비린 야수의 아가리처럼.
원쑤의 화점은 불을 토하고

순간은 길었던가 짧았던가
조국과 청춘
조국과 희망
조국과 생명
너무도 숭고한것을
너무도 많이 생각해 하는
준엄한 결전의 언덕이여!

두손으로 땅을 움켜쥔 가슴에
더는 들리게 않았다
사납게 울부짖는 총성도
더는 보이지 않았다
뜨겁게 휩싸이는 불길도
아, 영웅의 눈앞에 보이는것은
오직 하나 상처입은 조국의 모습

날아주고 키워준
그 강산이 몸부림치고있었다
희망처럼 푸르고
미래처럼 노을이 곱던
그 하늘이 불타고있었다

불타는 저 하늘에 어찌
끝없는 희망이 나래칠수 있으랴
불타는 이 땅에 어찌
행복한 청춘이 꽃필수 있으랴
조국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
자신의 존재마저 잊은 리수복

영웅의 심장은 고동치고있었다
멋으로 수첩갈피에 써넣지 않았고

행복할 때만 부르자고 간직하지 않은 수기
원쑤의 화점을 넘어
삶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
노래는 기발같이 나래치고있었다

오, 흠냄새 목메이는 땅을 짚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머리들어 바라보며
불사신처럼 일어난 영웅!
어머니조국의 품에 쏟아지는 불비를
피뿜는 가슴으로 막아나선
리수복 리수복영웅!

총탄으로 짓부시지 못했고
수류탄으로 까부실수 없었던 화점을
영웅은 불타는 심장으로 녹여냈다
조국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노래로
리수복은 원쑤들을 이겼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i

아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리수복 리수복영웅은
둘도 없는 생명을 서슴없이 바쳤다
짧게 살았지만
가장 빛나게 살줄 알았다

3

해방산 푸른 기슭에
전승기념관이 일떠서던 날
몸소 영웅관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
리수복영웅의 사진앞에
오래도록 걸음 멈추시였다

학생복차림의 리수복...

군복입고 찍은 영웅의 사진이 없음을
못내 가슴 아파하시며
생각에 생각을 이으시던 수령님

저 사진을
군복입은 사진으로 만들어 서라도
병사 리수복영웅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길이 보여주자고
자애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었어라

아, 쓰러진 영웅을 두번 다시 품에 안으시여
조국의 참된 아들, 충성의 모범으로
시대와 인민 앞에 내세워주시는 수령님
세월이 흘러도 흘러감을 모르는
그 사랑 그 품속에서
영원한 병사로 다시 태어난
분대장 리수복영웅!

《조국을 위하여!》
불뽕는 화점을 가슴으로 막던
변함없는 그날의 그 자세로
영웅은 오늘도
나아가는 대오앞에 서있어라

리수복영웅!
리수복영웅!

복을 치며 거리를 행진하는
꽃봉오리들의 노래속에도 그 이름 울려가고
영웅의 작은 발자국이 찍힌 송개마을
창밖은 모교의 잔디 푸른 언덕에도
영웅의 동상은 별처럼 빛나고
조국의 새땅이 늘어나는 개간지
청년돌격대의 기발에도 그 모습은 나뉘기여라

열아홉살 청춘!
변함없는 그 나이
변함없는 분대장의 그 모습으로
오늘은 한개 분대만이 아닌
사단과 군단, 학교와 건설장
그 어디서나

천만사람들을 위훈으로 부르는 영웅!

아, 조국 위한 병사의 생애는 끝이 있어도
조국이며, 그대의 사랑엔 끝이 없어라
천년을 누려도 못다 누릴 행복
만년을 갚아도 못다 갚을 은혜를
열아홉살!
애젊은 그 나이에 다 없어준 조국이며!

하늘같은 수령님의 사랑을 안겨주는
은혜로운 조국이 아니었다면
리수복의 이름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것이나
작은 수첩에 써넣은 그 수기가 어찌
조선이 알고 세계가 아는 영웅서사시로
인민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외워질것이나

고마워라 조국이며!
살아 끝없는 행복을 주고
죽어 더욱 큰 영광을 주는
다함없는 그 사랑 그 은혜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리수복영웅!
리수복영웅!

흘러오고 흘러가는 천만년 청사우에
영원불멸의 금별로 빛나는 그 모습
누구보다 조국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줄 안
숭고한 영웅의 이름을 빌어
이 병사도 온 세상에 웨치고싶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나라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며
살아도 병사는 그대와 함께
죽어도 그대의 품속에서 영생하리라
조국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나도 리수복, 리수복영웅이 되리라

복무 년한

림종근

어깨우의 빨간 견장
거울에 비추어보던 때
어제만 같은데
아! 빨리도 흘러갔구나
나의 군사복무의 나날이여

호미를 쥐었던 손에
로동계급의 총을 잡고 한걸음 두걸음
혁명의 구령에 맞추어
발걸음 떼며 시작된 나날
얼마나 즐기치게 흘러갔던가

해빛을 안고 걸음걸음
해방구역을 넓히며
노도쳐가던 남진의 길
오늘도 눈에 삼삼하고
불타는 증오와 복수심을 안고
미제를 쳐갈기던 영웅의 고지들
지금도 마음속에 높이 솟아있고

아! 총잡은 나날
전사로 마차수로 지휘관으로
기쁜 일 슬픈 일 아니당해본 일 있었던가
판가리격전에서 피도 흘렸고
훈련의 산밭에서 땀도 많이 흘리며
조국땅 아니가본곳 있었던가

영웅고지전호속 달빛아래서

입당청원서를 쓴 이 근위병사
앞가슴을 훈장으로 채우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던
그날의 감격
복무의 년륜속에 물결치고있어라

청춘의 한목숨 조국에 맡기고
시대의 한복판을 자랑차게 걸어온
성스러운 그 모든 복무의 발걸음들
잊지 못할 사연으로 엮여졌지만
아! 뜨거운 가슴속엔
단 한마디뿐이구나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복무함!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아낌없이 돌격으로 나아가던
그날의 그 자세 그 걸음을 따라
즐기치게 흘러갈 복무의 나날이여
준엄한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림없이
한생은 충성의 한꽃으로만 흘러가려니

아! 영웅조선의 력사의 갈피마다
충성의 자욱을 새겨온 복무년한
위대한 수령님을 위한 충성으로
해와 달이 바뀌는 혁명의 년한
이것이 병사의 한생이여라
이것이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한생이여라

습격의 밤

한웅빈

1

부대전연으로 불시에 닥쳐온 심상치 않은 정적의 비밀은 정찰병들에 의하여 해명되었다. 여지없이 두드러맞은 적들은 새로운 공격시도로서 이른바 《신형무기》라는것을 전연에 끌어온것이였다. 위치는 지도에 정확히 기입되였고 숙제로 남은것은 무기의 《성능》뿐이였다.

그런데 련대장은 성능에 대하여 아무 흥미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 책상을 푹푹 두드리며 《그 성능은 우리 습격조의 수류탄이 시험하게 될 것이요!》

하고 결론했다는것이였다. 영희의 옆식탁에 앉은 통신병들중의(그들은 영희처럼 고정적인 개별 식사성원들이였다) 한 전사는 국을 두그릇째 끌어당기며 그 말을 직접 들었느라고 맹세했다. 통신병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거렸다.

《습격조도 이만저만한 습격조가 아닐게야.》

《명수급썰되는 친구들일걸.》

《뻔한 일이지.》

하고 그들은 동시에 뜨거운 국을 불기라도 하듯이 한숨을 내뿜었다.

《제길할!》

영희는 그들을 따라 나직이 한숨을 쉬며 식탁에 서 일어났다. 전선도 공장처럼 직종에 따라 일할것을 요구한다. 더 엄격하게 더 정확하게… 또한 군대에는 공장의 로동행정지도원처럼 융통성 없는 대렬참모도 있다.

여럿의 군화소리가 출입문으로 가까와지더니 문가에 불쑥없이 쾅충해보이는 중사가 구부정하고 나타났다. 군복은 빌려입은것처럼 후줄근해보였다.

영희는 얼른 옆으로 비켜주었다. 그런데 중사는 지나갈대신 우뚝 멈춰서서 그를 뚫어지게 내려다 보는것이였다.

《영희동무… 아니요?》

《?!》

영희는 부지중 한결을 물려섰다.

《나요. 김현구…요.》

《어마나!》

영희는 놀람에 가득 차서 쳐다보았다. 여윈듯해보이는 길쭉한 얼굴, 불쑥없이 쾅충한 몸, 마디 굵은 손…틀림없는 김현구였다. 그에 대한 추억은

너무도 멀리 먼지구름 자욱한 기나긴 행군길과 봄비는 도하장, 떠들썩한 포진지, 대기조차 압축되어있는듯하던 공격출발진지너머 웅근 한세기전처럼 생각되는 전쟁의 첫날, 전선행렬차가 떠나던 역두와 잇닿아있었다.

…《조국보위행진곡》이 울리던 역사의 길다란 흙, 작별의 인사와 상봉의 약속, 그우에 성급한 구령처럼 토막토막 올려퍼지던 켜는듯한 기적소리… 초조하게 설며름 봄비는 사람들속에 끼여 손을 저으며 영희는 생각하였다.

(그 동무도 혹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김…현…구.)

세번째 기적소리가 울릴무렵 영희는 승강구를 메운 얼굴들속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였다.

(그 동무구나!)

낯설어보이기도 하여 영희는 주춤거렸다. 겨우 두번째로 보는 얼굴이였다. 반감까지 일으키던 첫번째의 인상은 느낄수 없었다. 《전쟁》이라는 준엄한 말때문일수도 있었다.

렬차는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너무 흔들어서 줄기만 남은 꽃다발을 든 제관반장이 이동작업 떠나는 사람이라도 바래듯이 소리쳤다.

《여보게 현구-잘 갔다오라구-!》

우렁찬 기적소리가 그에 대답하였다. 포연같은 석탄연기에 휩싸여 멀어지는 렬차의 뒤에서는 두 줄기 강철레루가 7 월의 뜨거운 햇빛아래 눈부시게 번쩍거렸었다…

《안녕하세요? 군복을 입으니 누군지 잘… 한런대에 있었군요.》

《난 알고있었소.》

《그래요? 어떻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저-두루두루.》

《…그렇구만요… 전 그럼 근무시간이여 서…》

통신병들은 말을 푹 끊고 두사람만 지켜보고있었다. 한 전사는 길다란 그의 키에 놀란듯 감탄하는 눈길로 중사를 쳐다보며 입까지 헤-벌렸다. 옆사람이 쿵 찢러서야 그는 황급히 국그릇에 머리를 수그렸다.

밖으로 나오며 영희는 뒤에서 배식구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취사원과 현구의 대화를 들었다.

《잘 있었소. 아바이? 여전하시구려.》

《어랍쇼. <빨래줄조장> 이로군. 어데 또 가나?》

《군단에요.》

되는데로 던지는 대답이라는것이 알렸다. 첫마디에 벌써 생김생김과 척 어울리는 《빨래줄조장》이라는 별명에 영희는 까닭없이 분했고 쓸쓸해졌다.

(별명도... 어쩌면 그따위로... 싱겁게.)

《군단? 더 멀지 않나?》

《의심도 많구려.》

《냄새가 달라.》

《그러니 빨리 늑지요. 식사 다섯!》

영희는 무전실로 돌아와 레시바를 켜다. 조용하고 텅 빈듯하던 공간은 무수한 전파로 가득찼다. 공간도 하나의 전신이었다. 전파속에서는 은밀히 움직이고있는 수천수만의 군화와 무한케도소리, 포차의 둔중한 엔진소리가 들리는것 같았다. 파장을 움직이자 레시바속의 공간은 조용해졌다. 나직한 전류흐르는 소리...

김현구-그에 대한 회상은(아니 그 시절에 대한 회상이다. 그에 대해서는 회상할만한것이 없는것 같다. 그들은 말 한마디 주고받은적 없는 사이였다.) 하나의 노래를 가지고 찾아온다.

언덕을 넘어넘어 바다를 건너건너

해방된 조국에 봄빛이 빛나네

.....

공장으로 오가며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출근길은 개버들이 늘어진 방축우로 났었다. 소리없이 조용히 흘러가던 맑은 시내물, 하나 생각에 잠겨 걸을 때면 다정하게 조잘조잘 속삭이며 따라서군 하였다. 언제나 파사로운 봄빛만이 넘쳐던듯 생각되는 방축길.

실실이 늘어진 시내개버들

풀피리 불어 불어...

뻑.뻑. 주인공을 전파가 머나먼 공간 어디론가 날아가고있다. 누구를 찾는것인지, 아니면 대답하는것인지...

(군단보다 더 먼곳... 그곳은 어델가...)

그에 대한 생각은 그만두는것이 옳다. 모든것은 전쟁이 끝났을 때 승리한 그날에... 현구도 아마 그래서 영희가 한런대에 있는것을 알면서도 찾지 않았을것 이다...

다음날 저녁이었다. 통신병들은 어느날처럼 무

전실앞 복도에 쌓아둔 빈 전원함들을 내려놓고 그 위에 앉아 통신선을 정리하고있었다.

영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적신행무기를 날려보낼 습격조가 쥐도새도모르게 적후로 들어 갔다는것을 알았다.

습격조가 언제 어떤 행로로 갔는지는 누구도 몰랐다. 새소식에는 선천적인 감각을 가진 통신병들조차 알지 못했다. 그들도 방금전에 알았을뿐이었다. 영희는 그들이 주고받는 현명한 예측에 귀를 기울였다.

《내 그럴줄 알았어!》

《첫눈에 안되더군.》

《오늘은 소식이 있을텐데.》

경도 어느 구역에선가 이미 익숙해진 귀뚜라미 소리가 흘러나온다. 어느사이 밤이 된 모양이다. 귀뚜라미소리가 멎을 때마다 주위는 류달리 깊은 정적에 싸인다. 그 정적속에서는 습격조의 소식을 기다리는 초조한 숨소리들이 들리는것 같다.

밤 11 시경 영희가 근무를 교대하고 안테나를 살피려 밖에 나갔을 때 적진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터져나왔다. 적진은 삽시에 발각 뒤집혔다.

지휘부에 전화로 보고하는 감시병의 목소리는 흥분에 싸여있었다.

《s지점입니다!》

s지점이란 적들의 신행무기가 배치된곳이었다. 런대장은 그 지점을 신행무기라는 말의 첫글자를 따서인지 아니면 습격대상이라는 뜻에서인지 s지점이라고 명명하였다. 혹시는 단순히 탐지된 일곱번째 대상이기때문일수도 있었다.

적들의 탐조등이 하늘을 분주하게 더듬었다. 습격조는 땅에 있을것이였지만 그 불빛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한없이 불안하게 하였다. 총소리는 시간과 함께 멀어졌다 가까와졌다 하며 더욱 격렬해졌고 마침내는 굉장한 폭음으로 끝날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후 총소리는 아무런 폭음도 울리지 못한채 멎어버렸다. 탐조등불빛도 꺼졌다. 침울한 정적이 닥쳐왔다.

영희는 얼어드는듯한 가슴을 안고 어둠속을 눈아프게 지켜보았다.

습격조가 임무를 수행하기전에 적들에게 발견되었다는것이 명백하였다. 그 결과에 대하여 생각하는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이제 폭음이 울리리라. 가슴을 후련케 하는 폭음이 습격조의 보고처럼 울리고 s지점에서는 눈부신 화광이 터져오르리라... 그러나... 정적은 끝없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영희는 《영원》이라는 말과 함께 웬일인지 커 큰 현구의 구부정한 뒤모습이 부지중 떠올랐다.

습격조는 어떤 동무들이 었을가...

지휘부 문앞에 누구한테서나 상등병이라는 군 사칭호대신 《아바이》라고 불리우는 취사원이 난 감한 얼굴로 서있었다.

《왜 그러구세요?》

취사원은 눈으로 문을 가리켰다.

《아직 저녁식사전이라네.》

《운반식사해드리면요?》

《소용없었지.》

《그래두,... 식당에 가자요.》

두사람의 발걸음에 따라 귀뚜라미소리는 멎었다가 다시 울리곤한다. 밤낮을 무시하는 갱도불빛에 흥분한듯도 하다. 그 소리는 영희에게 이 밤이 잠들수 없는 불안한 밤이 되리라고 예고하는것 처럼도 들렸다. 어린시절에 부르던 동요가 떠오른다.

장독뒤에 귀뚜라미 슬피 우는데...

《저... 습격나간 동무들을 알아요?》

《알다마다, 어제 식당에 왔더군.》

《예?!》

《왜 그러나?》

귀뚜라미소리는 더욱 가슴을 파고든다.

엄마를 기다려 잠 못드는 밤...

《저 별명을... 왜 그렇게 불러요?》

《나도 잘 모르지. 다들 그렇게 부르더군. 언제 지 한번 습격을 나갔다가 유인조로 떨어졌다면가. 수색대놈들이 어떻게 감겨도는지 가다가다 그 놈들의 병영에 마주치게 되었다는군. 피할데는 없고 그래서 빨아서 주련이 넣어놓은 군복들을 비집고 들어갔다나. 빨래줄에 척 허릴 걸치고 드리워있었다누만 빨래처럼.》

영희는 소리내어 웃었으나 곧 누가 책망이라도 한듯 푹 그치고 소심스레 말했다.

《거짓말이겠지요.》

《물론 거짓말이겠지.》

련대장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책상우의 지도를 보고있었고 참모장은 연신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방안을 초조하게 거닐고있었다. 그때문에 방안은 시계초침소리로 가득 찬것 같았다.

영희는 조용히 말하였다.

《련대장동지, 저녁식사를 하셔야...》

련대장은 책상옆을 가리켰다.

《좀 있다가 하겠소.》

《식기전에...》

《거기 놓아두오.》

련대장은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도에는 고지정점을 보여주는 삼각점에서부터 등고선들이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그것은 여러개의 돌맹이가 동시에 떨어진 수면을 련상케 하였고 기호와 점선들은 수면에 뜬 부표와 짙오라기처럼 보였다.

참모장은 걸음을 멈추고 팔소매를 헝 내리웠다. 손목시계와 함께 초침소리도 사라졌다.

《련대장동지.》

《말하오.》

《열두시입니다.》

련대장은 12 시라는데 약간 놀란듯한 표정을 지었다.

《벌써 그렇게 됐군.》

참모장은 이발이라도 쏘는듯 수면부족으로 부석부석해진 얼굴을 찡그렸다.

《습격조를 다시 조직해야겠습니다.》

영희는 그제야 자기가 식사그릇을 그냥 들고 서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기다려봅시다. -련대장은 참모장을 건너다보았다. -좀 눈을 붙이는데 좋지 않겠소?》

서리내린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류달리 더 눈에 띈다.

《련대장동지!》

참모장의 목소리는 거의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침착한 사람이 보다 더 침착한 사람앞에서는 침착성을 잃는수도 있다.

영희는 터져나오려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식사그릇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감시소에서 오는 전화종소리가 갱도를 가득 채우려는듯 즐기치게 울렸다.

《s지점에서?!》

참모장의 웨치는듯한 음성이었다, 온 갱도가 웅성거리는 기쁨의 목소리들로 가득 찼다. 영희는 성밖으로 달려나갔다.

(s지점... 그 동무들이... 그 동무는 기어이 해냈구나. 임무를... 수행 했구나...)

3

갱도는 어데라없이 조용해지고 병실마다에서는 고르로운 숨소리만 울렸다. 모두들 잠들었다.

그러나 영희는 오래도록 잠들수 없었다. 무엇때문인지는 자기도 몰랐다. 언제나 부족만 느끼게 하던 화선의 잠이 그를 저버린것이다. 정적때문일까, 아니면 청청하게 울리는 귀뚜라미소리때문일까. 아니, 그것은 어제든 그제든 잠을 방해한적이 없었다.

이틀간의 일을 기억속에 나란히 세우며 더듬어

보던 그는 문득

《군단에요.》

《군단?... 더 멀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침대옆에서 울린듯하여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들은 왜 아직 돌아오지 않을까. 그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정황에 있는지는 누구도 몰랐다...

볼품없이 정충하여 구부정해보이는 현구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공장정문앞의 커다란 선전화아래에서였다. 사람중기로 이름난 늙수그레한 제관반장이 영희를 그곳에서 멈춰세웠다.

《내 좀 조용히 할 얘기가 있다.》

그의 머리우 선전화속에서는 2 개년계획수행에 로 호소하는 프랑카드를 든 노동자와 농민이 의미심장한 얼굴로 서있었다.

《넌 마음에 들어하는 총각이 있는데-》

《어마나!》

《김현구라구. 우리 작업반에 있다. 그 녀석이 너만 보면.》

《아이, 난 몰라요!》

영희는 기겁하여 도망치고말았다. 선전화속에 서있는 기본계급의 두 대표자들까지도 죄다 엇보고 미소를 띠운것 같았다. 달려가는 그의 발치에서 방축길을 산보하던 개구리들이 곤두박질쳐 시내물로 뿔뿔이 흩날려들었다. ... 그날부터 시내물은 조잘거리는 속삭임으로 그를 따라흐렀다....

갑자기 복도로 여럿의 발자국소리와 말소리들이 바람처럼 지나갔다.

《습격조...》

영희는 복도로 뛰쳐나갔다. 습격조원들은 지휘부로 가고있었다. 그런데 세명뿐이었다. 그들의 뒤로는 검은 갱구만이 보일뿐이었다.

(없구나. 그 동무는... 돌아오지 못했구나.)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믿고싶지 않았다. 그는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지휘부 문앞에 서서련대장에게 보고하는 말을 엿들었다.

《...지뢰가 2 중 3 중이고 철조망이 겹겹이어서 돌파구를 낼수 없었습니다. 습격대상에 대한 파악도 없었습니다. 조장동무는 두명이 먼저 습격을 가당한 습격을 할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전례없는 《예비습격》이 얼마나 요란스러웠는지 나머지 세명에게는 일이 죄다 끝날가봐 걱정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적들이 혼란에 빠져 두사람을 추격할 때 세명은 기지안으로 숨새어들었고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장동무는 우리에게 먼저 가서 임무수행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놈들을 유인

하여갔습니다. 얼마후 먼곳에서 반땅크수류탄의 폭음이 련달아 울리고(두개 남은 반땅크수류탄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영희는 조용히 문앞에서 물러났다. 몇걸음 물러가 숨기찬 동발에 기댔을 때에야 그는 자기가 신음소리를 삼키려고 입에 가져간 주먹을 아프게 깨물고있음을 깨달았다....

모든 일은 끝났다몇걸음 물러가 숨기찬 동발에 기댔을 때에야 그는 자기가 신음소리를 삼키려고 입에 가져간 주먹을 아프게 깨물고있음을 깨달았다. 갱도는 어데나 조용해졌다. 모두 꿈속에 들었다.》 귀뚜라미도 잠들었다. 잠을 모르는것은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뿐이었다. 그리고 떨어져 부서지는 물방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영희가 전부였다.

(자야지. 나도 자야지.)

앞에는 빈전원함들이 반원으로 놓여있다. 통신병들이 깔고 앉았던대로이다. 영희는 그것들을 제자리에 올려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놓기 시작하였다. 앉았던 그대로 두면 금시 통신병들의 목소리가 울리고 현구네 일행은 살아있다는 현명한 예측을 듣게 될것만 같았다.

우에서 굴러내린 전원함이 발끝을 아프게 때렸다. 그 아픈은 예리하게 가슴으로 전해왔다. 그는 그대로 앉아 얼굴을 손으로 싸쥐었다. 이제야 무슨 이야기가 더 있으랴. 모든것은 끝났다. 그는 영영 가버렸다. 어려운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전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올수 없는 먼곳으로 가버렸다. 하나 그 길은 영희의 가슴으로 잇닿아 있는 길이 었다....

지휘부 문소리가 삐그덕하고 울렸다. 취사원이 식사그릇을 들고나왔다. 그는 영희와 빈바페리함을 번갈아보았다.

《왜 아직 자질 않나?》

《근무를 교대하려구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다르게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저- 식사는 하셨어요?》

취사원은 머리를 흔들었다.

《여섯명분 식사를 준비하라는군.》

《예?》

《여섯명분을 하란당이.》

영희는 식당으로 가는 취사원의 뒤모습만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러면 련대장은 현구네가 돌아오리라 믿고있단말인가.

영희는 방안을 거닐고있는 련대장의 발자국소

리를 들었다. 그렇다, 런던장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것이다!

뚜벅... 뚜벅... 그 발자국소리는 점점 높아지며 갱도를 가득 채우는것 같다. 바라건대 그 소리가 갱도를 떠나 전호를 넘어 습격조의 군화밑에서 메아리쳐주었으면! 하나 부질없는 희망이다. 그들이 말하고 움직이는것은 추억속에서만이다.

천정에 맺혀 한껏 부풀어오른 물방울이 전원함우에서 부서지며 수십수백의 반짝거리는 조각으로 눈앞을 가리운다.

(그러나 런던장동지는... 런던장동지는...)

발자국소리, 발자국소리...

4

영희는 어렴풋한 꿈속에서 부단히 반복되는 이 상스러운 시계추소리를 들었다. 그 시계추는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소리를 내고는 잠시 멈추었다가 하나 둘... 다섯 그리고는 다시 멈추었고 또다시 다섯번, 다시 또 다섯번, 이렇게 완강하게 되풀이되는것이였다.

그 시계추소리를 타고 제관직장의 귀메일듯한 공기함마소리, 이글대는 가열로불길, 떨어지고 쌓이는 철판소리가 꿈속의 회상을 소란케 한다. 큰 화차를 받아들일 때만 열리는 제관직장의 커다란 철판문이 활짝 열렸다. 상반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한 혁신자들이 꽃다발과 박수속에 싸여나오기 시작하였다. 직장안에서는 박수소리를 보충하듯 공기함마가 쇠콩쇠콩 우렁차게 내려쬰으며 발밑을 들썩 들썩 울렸다. 영희는 그들에게 박수를 치며 서있었다,

(누가... 누가... 김현구일가...)

그때 제관반장이 혁신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기도 하려는듯 커다란 속보를 기발처럼 흔들며 달려 나왔다. 영희는 펄럭거리는 속보의 이름들속에서 자기에게 알려진 이름을 조급하게 찾았다. 그러나 없었다. 허전해지는 마음으로 서있는데 제관반장은 속보를 붙이려고 두리번거리며 함마운전공처녀에게 물었다.

《현구 못봤니?》

《그게 누구예요?》

《김현구라구... 키가 꺾두룩하고 4 급공이고... 옹기! 저기 오는구나!》

볼품없이 썩중한 청년이 제관직장마당을 가로질러 무엇인가 손에 들고 성큼성큼 달려오고있었다. 그제야 운전공처녀는 실망한듯 종알거렸다.

《저-동무말이군요.》

영희는 자기가 비난받은듯하여 머리를 푹 수그

렸다. 같은 직장의 처녀들도 모르는 청년이 김현구였다. 입이 귀밑으로 돌아가게 벌글거리며 넘어질듯 달려온 청년이 가까이 왔을 때 영희는 휙 돌아 서고말았다. 청년은 속보를 붙일 풀그릇을 들고 온것이 였다...

다음은 포연에 갈린듯한 기적소리와 석탄내 질게 풍기는 연기...

문득 꾸준하게 반복되던 시계추소리가 멎었다. 영희는 몸을 떨며 눈을 떴다. 세상의 모든 흐름이 정지되어버린듯한 두려움이 그를 휩쌌다. 그는 휘둥그렇게 뜬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모든것이 여전하였고 그는 전원함우에 앉아있었다. 비스듬히 열려있는 문으로는 책상의 지도에 마주앉아 있는 런던장의 모습이 보였다. 책상우에서는 쿵알만한 건전지전등과 나란히 탄피등이 타오르고있었다. 불빛아래 펼쳐진 지도우에는 푸르스름한 담배연기가 낮추 떠서 구불구불한 등고선도를 따라 천천히 흘러간다. 런던장은 지도를 손바닥으로 누르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다시금 하나, 둘... 다섯... 발자국소리는 울리기 시작하였다.

영희는 자기도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네 벽에는 전등불빛과 탄피등불빛이 만들어낸 런던장의 그림자가 질게 또는 희미하게 덧놓여서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그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습격조에 대한 희망의 그림자같기도 하다.

문득 발자국소리가 멎으며 문이 활짝 열렸다. 영희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누구요?》

《하사 신영희!》

런데장은 그의 얼굴을 보려는듯 불빛이 나오게 비켜섰다. 영희는 머리를 떨구었다.

《동무는 교대하지 않았소?》

《교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지 않소?》

《.....》.

런데장은 대답을 기다리며 서있었다.

《런데장동지... 이제 그만 쉬십시오.》

《어쩐지 잠이 잘 오질 않는구만. 늙어서 그런지...》

영희는 자신으로서도 놀랄만치 조용하나 확신성 있게 말하였다.

《런데장동지는... 지금 습격조를...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습격조를?...》

《.....》

《음-》

《런데장동지, 습격조는 꼭 돌아옵니다. 이제 그

만 주무십시오.》

련대장은 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누가 듣기라도 하는것처럼 낮게 물었다.

《동무도 믿소?》

《예... 믿습니다.》

련대장은 그에게 무엇으로 하여 그런 믿음을 가지는가를 묻고싶었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말을 물었다.

《그 동무들을 잘 아오?》

영희의 눈앞에는 공장도 선전화도 반두질하는 조무래기들이 환성을 올리던 방축길도 죄다 마음에 든다는듯한 현구의 병글병글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그 얼굴 그 웃음이 그저 사라져버릴수가 있을가. 그는 이것을 말하고싶었으나 나직이 중얼거렸을뿐이었다.

《저... 한동무밖에는... 조장동무만...》

련대장은 전원함에 걸터앉았다.

《앉소. 알게 된지 오랬소?》

련대장의 얼굴에는 습격조가 돌아오리라고 믿고 기다리는 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어려있어있는것 같았다.

《전쟁전에 알았습니다.》

《음, 력사가 깊구만.》

련대장의 의미심장한 말에 영희는 당황하였다.

《그런게 아닙니다. 련대장동지, 절대로 아닙니다.》

영희는 무릎우에 놓은 자기의 두손을 남의 손처럼 내려다보았다.

(손은 왜 이렇게 떨릴가.)

《그저 전쟁전에 한공장에서 일했을뿐입니다.》

눈앞에는 다시금 봄빛이 넘치던 휘우듬한 방축길이며 귀메일듯한 제관직장의 거뭇게 그슬린 지붕이 떠오르고 가슴속에서는 정다운 노래의 선율이 울리기 시작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이었던가, 즐거운 나날이었던가. 그 하잘것 없는 한토막 구내길, 기계소리, 그리고 자그마한 하나하나의 일들이 모두 얼마나 비상한 아름다움에 싸여 떠오르는것인가. 그것이 행복이었다... 제관반장의 손에서 펄럭이던 속보, 풀그릇을 들고 쫓쫓뛰어오던 현구의 걸음, 그것이 얼마나 행복스런 걸음이었는지를 왜 몰랐던가. 그날의 행복한 걸음이 오늘밤 습격의 간고한 한걸음 한걸음과 어떻게 이어질것인지를 왜 몰랐던가. 아니, 그때는 서로 너무나도 몰랐었다.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몰랐었다.

복수제로 부르던 길- 불타는 거리에서 떨리는 손길로 배낭을 메워주던 눈물없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끝없는 비애를 걸쳐, 반남아 타버린 위생

복을 입고 깨어진 벽돌장우에서 꽃다발대신 주먹을 쳐들어 전선으로 바래주던 처녀들의 웃음없는 얼굴을 걸쳐, 타협할수도 용서할수도 없는 원수와 마주섰을 때에야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지니고 조국앞에 나서야 하는가를 일생동안의 사랑과 증오가 체현되어있는듯한 전투의 한순간에 깨달았다... 그러나 자기들의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아직 몰랐던 시절, 방축길의 개구리를 놀래우던 그 시절은 언제 돌이켜보아도 끝없이 그림고 부끄러움없이 매 순간 순간을 애무하게 되는 유년시절의 추억과도 같은것이였다! ...

พล령-물방울이 군화코숭이에 떨어져 부서진다. 영희는 이제껏 자기가 침묵을 지키고있었음을 깨닫고 머리를 들었다. 그러자 그는 련대장의 얼굴에서 언젠가 선전화속의 로동자, 농민이 짓고있던 것과 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고는 당황하여버렸다.

《아닙니다. 련대장동지, 절대로 그런게 아닙니다. 전 다만 동지로써 전우로써.》

련대장은 입술을 뿌주름히 내밀고 동발에서 축축해진 겹질을 떼어냈다.

《그래, 동지이지. 전우이고...》

그는 재빛으로 변한 나무겹질에 큰 의미가 있는듯 잘게잘게 찢기 시작하였다.

영희는 눈물까지 피어서 부르짖었다.

《련대장동지!》

련대장은 나무겹질의 냄새를 맡고는 빙그레 웃었다.

《소나무로군... 송기떡냄새가 나거던. 자- 이제 식당에 가보지요.》

5

취사원과 련대장은 동년배였다. 전사들속에서는 두사람 다 아바이로 불리웠다. 련대장은 직급상 아바이였고 취사원은 년령상 아바이였다.

영희는 이 밤에 두사람에게 존재하는 공통성-나이에서도 동일한 아바이라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련대장은 그의 느낌을 알아채기라도 한듯 소를 지었다.

《취사원동무도 아바이고, 나도 아바이고... 두 늙은이가 젊은이들을 기다리는 셈이구려.》

《련대장동문 이런 밤마다 더 늙겠소다, 사람 기다리는 일이 세상 못할 일이지오다.》

아궁에서는 장작에 불이 달려서 탁탁소리가 났다. 아궁앞에 앉은 두사람의 그림자는 벽에서 키를 솟구었다 낮추었다 하며 불길모양으로 너울거

린다. 런대장의 희색희색한 머리칼은 불빛으로 하여 불그스름해보인다. 영희는 밀림속의 흰눈이 노을 타는 아침이면 그런 빛으로 물들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내야 무슨 늴었겠소?... 항일혁명투쟁의 그 기나긴 나날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갔던 전사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며 밤을 새우셨소. 우리는 공작을 나갔다가 별로 늦게 돌아와도 우등불가에서 천막문앞에서 거닐으시며 기다리시는 수령님을 뵈곤하였소... 거기에 습관되었지. 그만 습관되고 말았구려. 그저 기뻛고 눈곱이 뜨거워지지만 했더랬소... 지금에야 그때 수령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고 애대우셨겠는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것 같소. 지금엔 죄스럽구려.》

《...자식을 길러봐야 알지오나. 그래도 다야 알 수 없지오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십분의 일이라도 부모 생각하면 효자라질 않소?》

《죄가... 많소다.》

가마에서는 한껏 불기운을 받은 물이 살살거리며 끓기 시작한다. 영희는 그 열정적인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본다.

(만일.. 만일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면 그의 앞날은 언제 한번도 결코 입밖에 내어본적없는 말을 되뇌여보며 끊임없이 찾고 기다리는 안타까운 나날로 이어질것이다. 현구가 걸은 그 길, 무수한 지뢰원과 철조망, 예광탄의 불줄기, 비자루같이 어둠을 쓸어내는 탐조등과 불끈 불끈 솟아오르는 조명탄의 불빛, 한 시인이 노래한것처럼 《이름도 모를 위험이 고양이같이 모퉁이를 지키는》길을 그가 남긴 복수의 말을 찾으며 걸고 또 걸게 될것이다....

《현구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던가?》

하는 런대장의 말에 영희는 머리를 들었다. 그는 이제껏 보아온 엄격한 지휘관이 아니라 눈가에 잔주름이 가득 서린 보통 늴은이의 얼굴을 보았다. 런대장의 어깨는 나이와 근심으로 좁아진것 같았고 잔등은 구부정해보였다.

영희는 머리를 꼭 수그렸다. 눈물이 핑 돌며 앞이 흐려졌다.

《전 아직... 모릅니다.》

《괜찮아... 돌아올게요. 돌아오지... 꼭 돌아오지.》

그렇다. 그는 돌아올것이다. 그가 돌아올것을 믿기에 이렇게 기다리는것이 아닌가! 그들의 이 믿음이 멀리 전선너머로 전해져 적후를 헤쳐오는 습격조의 걸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줄지 어찌 알랴. 늴은이들은 인연이라느것이 있다고 했다...

습격조가 돌아오면... 그러면 런대장은 아들을 맞이하는 늴은 아버지처럼 팔을 벌려 그들을 오래오래 포옹할것이며 영희는...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하게 될지 알수 없었다. 아마도... 울게 될것이다....

식. 가마전으로 뜨거운 김이 총알처럼 뿜겨나온다... 밝아오는 러명과 함께 전초중대에 나갔던 참모장이 돌아왔다.

《런대장동지, 습격조가 돌아왔습니다.》

불에 타고 그슬린 두사람, 조장과 전사가 갱입구로 들어오고있었다.

저벽-저벽-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화가 갱도바닥을 울린다. 그 소리는 기쁨에 싸여 어쩔줄 모르는 어린애처럼 갱도의 이쪽벽에 부딪치고 저쪽벽에 튕겨나며 온 갱도를 가득 채운다. 갱도전체가 환성을 울리며 그들을 마중하고있다.

《하사동지, 하사동지!》

어린 무전수는 영희의 팔소매를 잡아당기다 못해 제가 먼저 부리나케 달려간다.

《빨리요. 하사동지!》

군화소리는 런대장의 앞에서 멎었다. 현구의 보고는 짙막하게 끝났다. 런대장은 그들과 악수를 했다.

《수고했소. 수고했소.》

그는 이미 지난밤의 주름살 많은 늴은이가 아니었다. 여느때와 다름없는 강의하고 엄격한 지휘관이였다. 전사들에게 익숙해진 그 모습 그대로였다. 지어는 덤덤해보이기까지 하였다.

영희는 자기역시 현구의 앞에서 침착하고 자연스러운데 놀랐다. 지난밤의 일은 없었던듯싶기도 하였다.

런대장은 눈가에 미소를 띠었다.

《장하오. 이렇게 돌아왔으니... 동무들에게 부대장의 권한으로 감사를 주오.》

두쌍의 군화가 소리를 내며 모아졌다. 그들의 키는 갑자기 더 자란것 같았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그것은 흔히 있는 부대장감사 그대로였다. 모든 것은 평범하였다.,

만일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자기를 잃은 지난밤같은 시간이 계속되었을것이며 런대장은 런대장으로, 영희는 영희로 돌아올수 없었을것임을 영희는 깨달았다. 그때문에 런대장은 감사를 추는것이고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어린것이 아닐가....

아침이 밝아오고있었다. 컴컴하던 갱구는 푸른 창문처럼 우렁이 떠오른다.

(기다리던... 기다리던 아침이... 왔구나!)

로동계급혁명의 생동한 전형

박승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영화 〈로동가정〉은 아버지가 로동계급이라고 하여 아들이 저절로 로동계급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거쳐서만 로동계급으로 자라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아버지가 로동계급이라고 하여 아들이 저절로 로동계급으로 되는것이 아니며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하여 아들이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예술영화 《로동가정》을 각색한 장편소설 《로동가정》은 원작의 사상주제적과제를 소설의 특성에 맞게 잘 전개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되며 근본을 알아도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지 않고 자만하면 변질될수 있다는것을 종자로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이 작품의 종자는 로동계급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며 로동계급의 혁명화에 관한 문제이다.

이 작품의 종자는 로동계급자체를 혁명화하며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임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를 다그칠데 대한 당의 방침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로동계급도 혁명화해야 할뿐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혁명화해야 하며 또 언제나 끊임없이 혁명화해야 한다는 뜻깊은 사상을 밝혀준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의의있고 절박한 문제를 형상적으로 잘 풀어냈기때문에 장편소설 《로동가정》은 독자들속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작품의 중심에는 우리 로동계급의 사상성격적 특질을 체현한 광록이, 춘보를 비롯한 로동계급출신의 당일군인 한석이와 같은 긍정인물이 서있다.

이들이 체현하고있는 사상성격적특질의 핵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우리 로동계급의 끝없는 충실성을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화폭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깊이 보여주고 있다.

광록이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250만산 날라쑤기대발파를 창안한 두석에게 박토버력을 사방으로 뿌려던지지도 말고 콧새끌어구로 날려 침전못도 함께 만들데 대한 혁신안을 내놓으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껏 도와주고 늙은 몸으로 앞장서 투쟁하는것도 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작품의 주인공 광록이는 어제날 나라 없는 설움을 안고 남북천리 떠다니며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자기 가정에 행복한 오늘의 생활을 마련해주시고 나라의 주인, 《나라의 맡아들》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열정으로 언제나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그는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광산의 모든 일을 주인답게 성실히 수행한다.

광산에서 나오는 돌가루물에 남천강이 흐려지는것을 가슴아파하며 두석에게 침전못을 만들데 대한 안을 내놓은것은 다 이러한 충성의 열정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뿐아니라 온 가정이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도록 모든 식구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준다.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성하도록 하는데서 가장 절박한 요구는 로동계급이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는 동시에 가정을 혁명화하며 특히 지난날 쓰라린 생활체험이 부족하거나 없는 세대대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소설은 이런 선에서 로동계급이 자기의 가정을 어떻게 혁명화해나가는가를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광록이가 자기 아들에게 들려주는 다음과 같은 말은 얼마나 절절하게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인가.

《…너는 자기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돼. 자기의 근본이란 뭘겠냐? 그저 로동계급의 근본이다. 로동계급의 근본이란 또 뭘겠냐? 로동계급의 근본이란 우리 로동계급을 나라의 주인으로 세워주시고 령도계급으로 되게 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한순간을 살아도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도 일흔아홉살나이에 산에 올라가 쇠돌 캐는 일을 돕구 이애비도 공부를 하는게다. 알지 못하고는 어버이수령님의 은혜에 더 잘 보답할수 없어.》

광록이의 이 말은 로동계급이 자기 가정을 혁명화한다는것은 결국 자식들에게 로동계급의 근본을 심어주는 과정이며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자기를 수양해나가는 과정이라는것을 뜻깊게 시사 해준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사람들의 생활의 거점이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우열함을 제일 잘 알수 있는것도 가정식구이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혁명화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혁명화를 다그쳐야 한다. 소설은 노동계급의 열두식구대가정에서 벌어지는 생활의 이모저모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가정혁명화과정을 생활적으로 펼쳐 보이고있다.

소설은 노동계급의 근본을 깊이 깨닫고있는 오랜 광산노동계급출신인 광록이가 춘보와 한석이의 도움과 당조직과 사로청조직의 방조밑에 노동계급의 근본을 잊고있는 자기 가정을 어떻게 혁명화하여나가는가를 참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노동계급에게서 허심하게 배우지 않고 교만해지고있는 기사 두석, 젊은 혈기에 리상은 높는데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들떠있으면서 집안간판을 팔아 먹는 삼석, 결혼후 노동생활을 달가와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려는 딸 순옥, 친정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도시생활과 학위학직만 바라고 남편을 부추기는 둘째며느리 정희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노동계급의 근본을 깨닫고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는 혁명적인 사회주의대가정으로 꾸러지며 혁명화되어나가는 과정은 참으로 심각하고 진실하다.

이름있는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꿈꾸면서 형수 성숙이에게 비준되지 않은 휴가신청서를 맡기고 도선수선발경기에 떠나는 삼석의 그릇된 행동을 두고 광록이가 온집안식구들앞에서 원칙적이고도 날카롭게 꾸짖는 장면과 그를 통하여 시동생을 무원칙하게 두둔한 자기 잘못을 심각하게 뉘우치는 성숙이의 모습 등은 우리 시대 노동계급의 가정들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소설은 무담독녀 외딸로 태어난 정희가 인테리 가정의 소시민적인 사상잔재와 봉건적인 룰리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발파소리 울리는 광산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일시적으로나마 허영심과 공명심에 들떠 마침내는 두석이에게까지 낡은 사상을 오염시켜 미숙한 학위론문을 대학에 올려보내게 하는 모습도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다.

또한 소설은 휴가를 받고 대학까지 찾아가 두석이가 올려보낸 그 논문이 아직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한 논문이므로 돌려보내줄것을 요구하며 자식을 혁명화시켜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길러내지 못한 자기 잘못을 비판하는 광록이의 모습도 진지하게 묘사하고있다.

춘보로인이 이미 60뽕 생일이 가까운 한가정의 세대주인 광록이를 불러앉혀놓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을 노동계급의 근본을 잊지 않고 부단히 혁명화하도록 하는데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충고를 주는 장면은 또 얼마나 진실한것인가,

박광록이 삼석이에게서 광산고등전문학교 입학원서에 수표를 받아내고 저녁마다 앞자리에 앉히고 공부를 시키며 매일 숙제를 검열하여주는 장면들은 우리 시대의 노동가정은 단순히 혈육의 정으로만 얹혀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에 영원히 충성다하도록 온 가정을 혁명화해나가는 광록이의 투쟁을 통하여 독자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끊임없이 다 혁명화해야 하며 노동계급의 가정이 대를 이어 충성다하기위해서는 노동계급의 근본을 옳게 심어주고 온 가정을 혁명화해야 한다는것이다.

소설에서 박광록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있다. 《자식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또 그들 자신이 아이들의 부모로 되었어도 어디까지나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인것이고 그들은 그의 자식들인것이다.

죽어 무덤속에 누워있어도 그애들의 아버지로서 누워있을것이지 다른 사람이 되어 누워있을수 없었다. 때문에 비록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어도 아버지는 그들의 행동을 책임져야 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육체적성장과 생활의 보호자로 될뿐만아니라 자식들의 사상과 행동에 대하여 사회앞에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소설은 이러한 책임을 심장으로 느낄 때만이 부모들이 새세대들인 자식들을 단순한 인간본능적인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세워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도록 이끌어갈수 있다는것을 사상에술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하고있다.

장편소설 《노동가정》이 노동계급의 전형창조에서 이룩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노동계급의 충실성은 빈말로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동하게 형상한것이다.

노동에 대한 성실성은 공산주의자의 기본표징이며 우리, 시대 노동계급의 중요한 품성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은 마땅히 노동에 성실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진 주인으로, 참다운 애국자로 훌륭히 형상화되어야 한다.

노동에 대한 성실성과 국가와 사회재산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그자체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소설에 등장한 춘보, 광록, 보패, 성숙이들은 노동생활에 언제나 성실하며 혁명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열적으로 일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광록이는 노동에 대한 자기 신념을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한평생 손에서 일을 놓지 말아야 한다. 손에서 일을 놓으면 손이 편안해지고 손이 편안해지면 안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행복이 눈을 거쳐 사람들속으로 들어오는것이 아니라 오직 쉬지 않고 일하는 손을 거쳐서 얻어지기때문이고 죽음이라는것도 역시 사람의 손이 게을러지는데서 부터 시작되기때문이었다.》

이것은 노동에 대한 더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이며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과 오늘의 행복을 심장으로 체득한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노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의 특질이다.

소설에서는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와 온 사회의 혁명화문제를 옹계 결합하여 형상하고있다.

로동을 통하여 물질적부가 창조될뿐아니라 사람들의 혁명화과정의 촉진되는것이다.

소설은 로동을 통하여 노동계급의 혁명화는 물론 인텔리혁명화, 녀성혁명화 등 각계층 혁명화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250만산 날려쌓기대발파사건을 취급하

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기술실무적각도에서 묘사하지않고 어디까지나 거기서 표현되는 인간들의 문제를 극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날려쌓기대발파를 노동계급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생각하는 광복이와 그것을 단순히 쇠돌을 더 많이 캐기 위한것으로만 생각하는 두석이의 관점을 예리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소설은 이와 련관되어있는 이러저러한 등장인물들의 노동생활을 통하여 혁명화되어가는 과정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었다.

장편소설 《노동가정》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예술영화 《노동가정》을 소설의 특성에 맞게 잘 전개하였기때문에 영화를 보고 내용을 다 아는 독자들에게도 새로운 감명을 주고있다.

소설은 혁명의 령도계급인 노동계급의 가정혁명화의 본모기를 깊이있고 생동하게 보여준것으로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말없는 길동무로 되고있다.

답시

사랑의 새 전설

리일복

구월산 아흔아홉봉우리
어디서 시작된 내물인가
지줄대며 흐르는 맑은 물우에
보일듯 말듯 징검돌 다섯개

몇채의 농가에서 뻗은 오솔길
이 물건너 당은곳은 아담한 학교
아침저녁 세킬레의 꽃신이
징검돌에 물무늬 새겨놓을뿐

비오면 물에 잠기는 그우로
눈오면 얼음 덮이는 그우로
세 아이 꽃책가방 들썩이며
즐거 넘나드는 다리 아닌 다리

누구도 더는 건너는 이 없고
누구도 모르는 징검돌 다섯개
행복의 일손 바쁜 부모들도
아직은 거기에 마음쓰지 않을 때

어느 아침 갑자기 높이 올랐다
산골짜를 뒤흔드는 발동기소리
총창인양 어깨에 삽날을 번쩍이는
건설자대모의 기세찬 발걸음소리--

아이들이 놀라고 부모들도 놀라고
산도 강도 모두 놀라 바라볼 때에
기증기의 큰 팔이 징검돌을 뽑아내고

콩크리트 큰 기둥을 거기 박았다

어리둥절 바라보는 짧은 나날에
기적같이 콩크리트다리 번듯이 서고
자, 주인들아 어서 건너 학교로 가라!
아이들의 등을 미는 손길이 있었나니

깊은 산골 세 아이의 학교길 위해
큰 다리를 놓아준 자애론 은정
장마지고 얼음어는 그 길을 걱정해
행복의 넓은 다리 안겨준 사랑

아버지도 어머니도 생각 못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큰 사랑, 큰 은혜를 베풀어준
아, 당의 손길, 당의 품!

나라의 모든 일 이끄는 당은
먼 기슭의 세 아이도 보고있었다
혁명의 앞길을 헤쳐가는 우리 당은
깊은 산골 작은 징검다리도. 보고있었다

이렇게 은혜론 당의 손길은
맑고 넓은 반영의 큰길우에
이렇게 위대한 당의 손길은
미래로 가는 행복의 큰 다리우에
이 나라 아이들을 다 올려주었다!
이 나라 인민들을 모두 세워주었다!

그날은 오리라

리상철

어머니품속에서 나서자란 고향, 마음속깊이 간직되어 언제나 잊을수 없는 정다운곳.

고향! 불러보아 다시 부르고싶은 이름이다.

나의 고향은 남강원도 원주에서 서북쪽으로 40리 떨어진 문막이란곳에 자리잡고있다.

한강상류를 이루는 석지강의 맑은 물이 바위를 활으며 조잘조잘 흐르고 철따라 왜가리떼 날아들고 봄이면 밀보리,기장,수수가 삼단같이 자라는 고장이다.

아카시아나무 우거진 고향의 앞고개마루에서 어머니와 헤어지던 그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우리를 갈라놓았는가?

고향의 어머니품속에서 열일곱해, 어머니품을 떠나 30년!

참으로 기나긴 세월이 애타게 흘러갔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의 혈육들을 이렇게 무참히 갈라놓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현단계에 있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강령적교시를 가슴깊이 새길 때마다 나는 반드시 이룩되고야말 통일된 조국을 눈앞에 그려보군한다.

그럴 때면 문득 고향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게 떠오른다.

내가 마지막으로 고향을 떠난것은 1950년 7월 초였다.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의 불길이하늘땅을 뒤덮은 초여름 이른아침에 나는 집을 떠났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적색부락》이라고 하여 발끝까지 무장한 피괴경찰놈들이 눈에 쌍심지를 달고 돌아치며 피비린내나는 참극을 빚어놓던 고향마을이 이 영웅한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되였다.

마을사람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인민군대를 부둥켜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다.

《여러분, 이제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인민정권을 세워주시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십니다.》

인민군대의 말을 들은 나는 감격에 부풀은 가슴을 안고 집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김일성장군님께서 땅을 나누어주신대요!》

《뭐?!》

《이 땅이 모두 우리 땅이 된대요!》

《이게 꿈이 아니냐?!》

《이젠 우리 세상이 됐어요. 가난과 천대가 없는 우리 세상이...》

어머니도 나도 서로 붙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마당을 빙빙 돌아갔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대통운이 텃다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

평생소원이 풀리는데 어찌 춤인들 나오지 않으랴.

그래서 어머니는 동네방네에서 벌어지는 새라새로운 일들에 몸을 잠그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밤이 새는지 몰랐다.

고향의 이 새로운 모습을 뒤에 남기고 나는 남진하는 인민군대를 따라 의용군에 입대하였다.

어머니는 마을앞 고개마루에서 떠나는 내 손을 꼭 잡은채 말없이 오래동안 서있었다.

그리고 다만 전선에서 《쿵 쿵...》 울려오는 포소리를 들으며 먼 남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애야, 처 대포소리가 멀어지는걸 보니 전쟁은 다 끝나가는것 같구나. 너두 어서 떠나거라.》

어머니의 이 말에서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 원쑤놈들을 한놈도 잡지 못한채 전쟁이 끝나면 어찌랴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읽었다.

《어머니, 가보겠어요. 부디 몸조심하세요.》

나는 허리굽혀 작별인사를 하였다.

《오냐, 내 걱정을랑 말아라. 그리구 애야, 예로부터 사내대장부는 전쟁판에 나가서 공을 세워야 한다더라. 이 에미는 네가 꼭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리라 믿는다.》

어머니는 이렇게 확신에 찬 한마디 말을 던지고는 내가 걸어가야 할 우불구불한 오솔길을 바라보았다.

이제 몇분후에 내가 건너갈 저아래 징검다리 밑으로는 떠나가는 나를 축복하여 은방울을 굴리며 속삭이듯 시내물이 돌돌 흘러내렸다.

《어서 가거라. 원썬놈들을 쳐부시구 돌아오너라 그리구 제땅에서 농사를 마음껏 지어보자꾸나...》

원래 이전에는 눈물이 많은 어머니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마음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래서 이날 이 순간만은 눈물 한방울 보이지 않고 정다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날의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아들의 무사한 장래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만이 아니었다. 아침해빛에 반짝이는 어머니의 다정한 눈매는 그 어떤 불행이 아들에게 닥쳐올까 두려워하는 그런 눈길은 더욱 아니었다.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해방후 이승만괴뢰통치 밑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 구박만을 받으며 살아오던 어머니에게 있어서 방금 펼쳐진 새생활, 새 민주제도는 참으로 얼마나 소중한 귀중한 것이었던지 모른다. 하기에 그 모든것을 목숨으로 지키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과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념원을 가슴깊이 간직한채 나는 고개길을 내리기 시작했다. 얼마간 내리다가 멈춰서서 다시 돌아다보았다.

어머니는 7 월의 무더운 해살을 받으며 오래도록 한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주고있었다.

징검다리를 한달음에 건너 개울가언덕에 올라서서 다시 뒤돌아보니 어머니는 가벼운 바람에 치마자락을 날리며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주고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부탁대로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민주건설의 새생활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해방된 고향마을을 지켜 역세게 싸우리라, 미제침략자들을 조국땅에서 몰아내고 앞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어머니를 다시 만나리라 굳게 맹세다지며 걷고 또 걸었다.

바로 그날로부터 반년이 지난 1951 년 봄이었다.

일시적후퇴가 끝난 부대는 또다시 남으로 남으로 재진격을 하여 드디어 나의 고향을 30 리 앞두고 기동방어로 넘어갔다.

나는 이때 련대정찰병들의 도움을 받아 어느 산 골짜기의 적구에서 고생 많으신 어머니를 다시 만나뵙는 기회를 얻었다.

짚신을 신긴 동생을 앞세우고 아들을 찾아 정찰병들과 함께 적구의 험한 80 리길을 헤쳐오신 어머니는 나를 보자 《둘째야!》 하고 내 어깨를 법석 그리안으며 반가움에 목메여 눈물을 지었다.

인민군대가 후퇴를 하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할수 없었던 아들을 여섯달만에 꿈같이 만나게 되는 어머니의 감격은 너무도 큰 것이었다.

인민군대의 복장을 한 나를 대견스레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집에두 땅을 4 천평이나 주셨단다.》

《그래요!...》

《그런데 그놈들이 또 기여들어와서는 발광을 하는구나.》

장군님의 가르치심 따라 잘 싸우라 그리고 어서 마을을 다시 해방시키라는 당부를 남기고 어머니는 다음날 어스름한 저녁무렵에 30 리길을 되돌아갔다.

저녁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저물어가던 때 그 험한 덩불길을 헤치며 멀리 사라져가던- 아,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였다.

그 밤 어머니가 어두운 적구 30 리길을 무사히 갔는지?

힘에 겨운듯 무릎을 오래동안 주무르고나서 다시 돌아가던 어머니의 그 마지막 모습.

가슴에 못박힌 그때의 리별을 내 어찌 잊을수 있으랴.

피바다를 이룬 락동강을 도하하던 진격의 길에 서도, 고지에서 원썬들과 육박전을 벌리면서도, 기동방어의 전호속에서도 잊을수 없었던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지금도 무시로 내 머리속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그 모습.

즐거울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는 그 모습을 되살려보곤하지만 이제는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흘러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모습마저 희미해지니 어찌 글이나 말로써 그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다 표현할수 있으랴.

하지만 이것은 오늘 나 혼자만이 당하는 일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제원썹들에게 생리별을 강요당하고있는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북으로 갈라진 그 원한과 통분으로 하여 잠못이루고있는것인가.

반백이 가까와오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남녀의 백발성성한 어머니들, 부모를 모시지 못해 애타하는 복녀의 자식들, 시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며느리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채 벌써 다 자라서 기사가 되고 노동자가 된 그들의 손자 손녀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세번이나 거듭하는 오늘까지 여전히 이 불행을 가시지 못하고있으니 조선사람의 피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어찌 우리 민족에게 생리별을 강요하는 미제와 그 주구 남조선피뢰도당의 영구분렬책동을 그냥 보고만있을수있는가.

한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35 년!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갈라진채 이 기나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북과 남의 장벽은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신 북반부에서는 주체의 해발이 찬란히 비치여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섰다.

사람들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병나면 치료받을 걱정, 자식들 공부시킬 걱정, 쓰고 사는 집걱정 등 모든 근심걱정을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미제침략자들의 더러운 구두발밑에 짓밟힌 남조선은 일제통치 36 년간에 겪은 망국노의

파란 많은 설움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또다시 사람들은 인간생지옥속에서 허덕이고있는것이다.

북과 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차이는 하늘과 땅보다 더 멀어지고있으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으며 이 참극을 어찌 그대로 앉아서 보고만있을수 있겠는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피뢰도당은 우리 조국이 통일되는것을 두려워하고있으며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 우두머리 카터놈은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 철군공약을 포기하고 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며 일본군국주의를 부추겨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한편 남조선피뢰도당은 조국의 영구분렬을 획책하며 분계선을 따라 동서로 콩크리트장벽까지 쌓는 천추에 용서못할 죄악을 저지르고있다.

하지만 시대에 역행하는자들은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말것이다.

나는 굳게 믿는다.

나의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시여 나를 기다리리라고.

30 년전에 아들을 떠나보낸 그 길에서 굳은 마음 변치 않고 살아계시리라고...

어머니와 아들이, 수많은 혈육들이 행복의 요람속에 다시 만날 통일의 그날, 상봉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